

# 인천

## 서구의 생활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지역화 교육 참고서 ③

# 인천 서구의 생활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입니다.

지역화 교육 참고서 『인천 서구의 생활(3) -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우리 서구의 자연환경과 삶의 터전을 이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23년 『인천 서구의 생활(1) - 경제를 중심으로』, 2024년 『인천 서구의 생활(2) - 길과 교통으로』에 이어서 인천 서구의 도시 형성의 특징을 담은 섬, 해안을 다루게 된 것은, 도시의 변형 과정을 인천 서구의 섬과 해안의 경계를 참고서로 학습하며 우리 인천 서구가 변화·발전해 온 역사를 학교 교육에서 깊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마을 지도’ 등을 학습하는 기회가 있지만 공통으로 제작된 사회 교과서 속에서 인천 서구의 도시 변형과 마을 지도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접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서구문화원은 서구의 아이들이 교과서와 함께 ‘진짜 우리 인천 서구’를 배우고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현재까지 지역화 교육 참고서를 꾸준히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천 서구의 생활(3) -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그 세 번째 이야기로, 서구의 바다와 섬, 그리고 그 변화에서 우리 서구의 삶과 자연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드넓은 서해 갯벌이 마을이 되고, 섬이 다리로 이어지며, 바다가 새로운 땅으로 변해 온 서구의 시간 속에는 서구민들의 생활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참고서는 도시의 변형 속 서구만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키워주는 배움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참고서 제작에 함께해 주신 집필 위원 김희주 선생님, 안정현 선생님과 서구학 연구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며, 지역화 교육 참고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서를 교육 현장에서 살아 있는 수업으로 완성해 주실 선생님들께도 지역의 역사와 서구에서 살아갈 아이들 사이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이 새로운 인천 서구라는 도시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기록하고, 서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의 배움과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

##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인천 서구의 생활(3) -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바다와 갯벌, 그리고 그 위에 쌓인 삶의 역사를 품은 도시입니다. 우리 서구의 섬과 해안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의 땀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삶의 터전이자 기억의 장소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역화 교육 참고서는 이러한 서구의 변화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뜻깊은 자료입니다.

이 참고서는 인천 서구의 외형적 변화에서 큰 특징을 가지는 ‘매립 이전의 바다’에서부터 ‘오늘의 도시 공간’에 이르기까지, 서구가 걸어온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고서를 통하여, 서구의 섬과 해안을 단순히 ‘사라진 옛 흔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과거이자 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의 자연과 사람, 환경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고, 서구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천 서구는 자치구 인구수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의 변화가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체성을 학습하는 경험은 현재 서구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교재로, 교사들에게는 교육의 길잡이로, 주민들에게는 서구의 뿌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활용되는 것에 나아가, 아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품고 미래의 서구를 이끌어갈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참고서 제작을 위해 기획, 조사, 집필, 편집 등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인천서구문화원 서구학연구팀, 김희주 선생님, 안정현 선생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입니다.

바람이 머물다 가는 갯가의 마을, 파도가 닿던 옛 섬의 기억 속에서 서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천 서구의 생활(3) -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가 안내하는 우리 지역의 역사에는 도시의 변화와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전작 ‘길과 교통으로’에 이어 이번에도 뜻깊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서구는 바다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갯벌 위로 물길이 드나들고, 작은 섬마다 사람들의 삶이 피어났습니다.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 지역의 정체성은 바다의 리듬처럼 고요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바다를 메우고 섬과 섬을 이어 새로운 도시를 잉태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몇 곱절이나 늘어났고, 도시의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때의 서구와 지금 서구의 간극은 변화와 발전을 넘어 우리에게 이제는 성찰의 시간이자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상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섬과 해안은 늘 변했지만, 그 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행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기는 이 기록처럼, 섬과 바다의 이야기는 내일의 서구를 살아갈 세대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이자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기억을 지키고, 그 기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영감과 자긍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교재를 통해 우리 서구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멋진 인생을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뜻깊은 작품을 만들어 주신 서구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

## 축사



안녕하십니까?

소통·공감·존중으로 행복한 서부 교육을 지원하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발 딛고 살아가는 소중한 터전, 『인천 서구의 생활(3) -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구문화원에서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완성한 이 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서구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이 지닌 자연적 가치와 그 안에서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삶, 그리고 다채로운 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실 안에서의 배움을 넘어 우리 지역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며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이 교육 참고서는 그 어떤 교재보다 값진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고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긍심을 키우고, 더 나아가 주체적인 시민이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귀하고 훌륭한 교육자료가 발간되어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깊은 교육자료를 만들어 주신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

# 인천

## 서구의 생활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 0 서구의 자연환경

특징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10

### 1 서구의 섬과 해안

1) 유인도와 무인도, 사라진 섬 18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 살지 못하는 섬, 그리고 사라진 섬을 살펴봐요.

2) 매표로 보는 서구의 섬과 해안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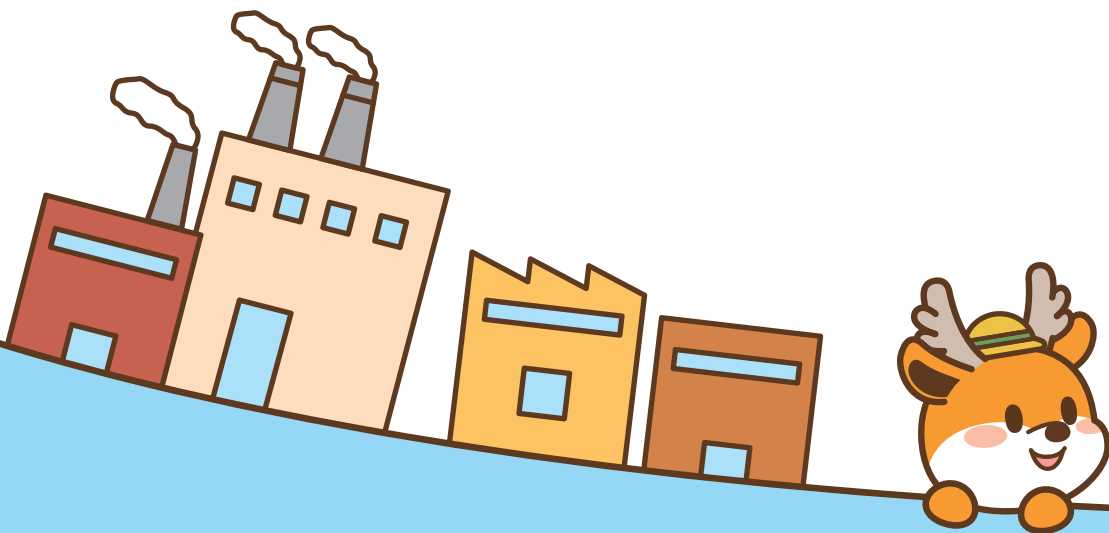
바다가 땅으로 바뀌면서 섬이 사라지고 서구의 해안선은 단순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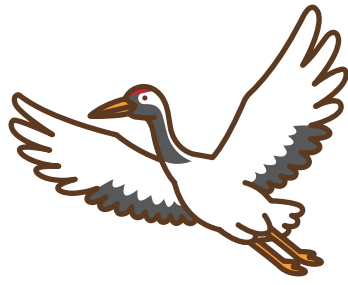
3) 지도로 보는 서구의 해안 52

옛날 옛적 서구는 많은 섬과 해안이 있었어요.

4) 문화로 보는 서구의 섬과 해안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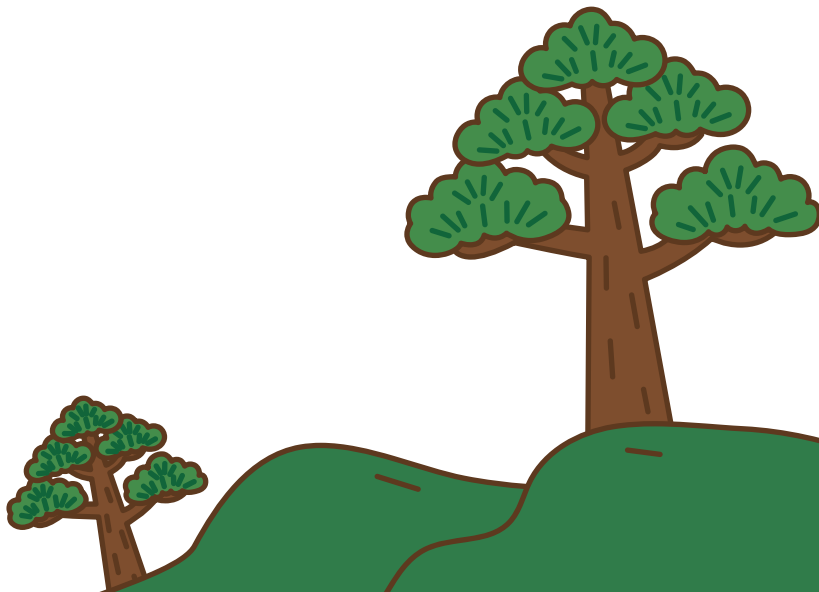
시와 글에 담긴 서구의 섬과 해안을 만나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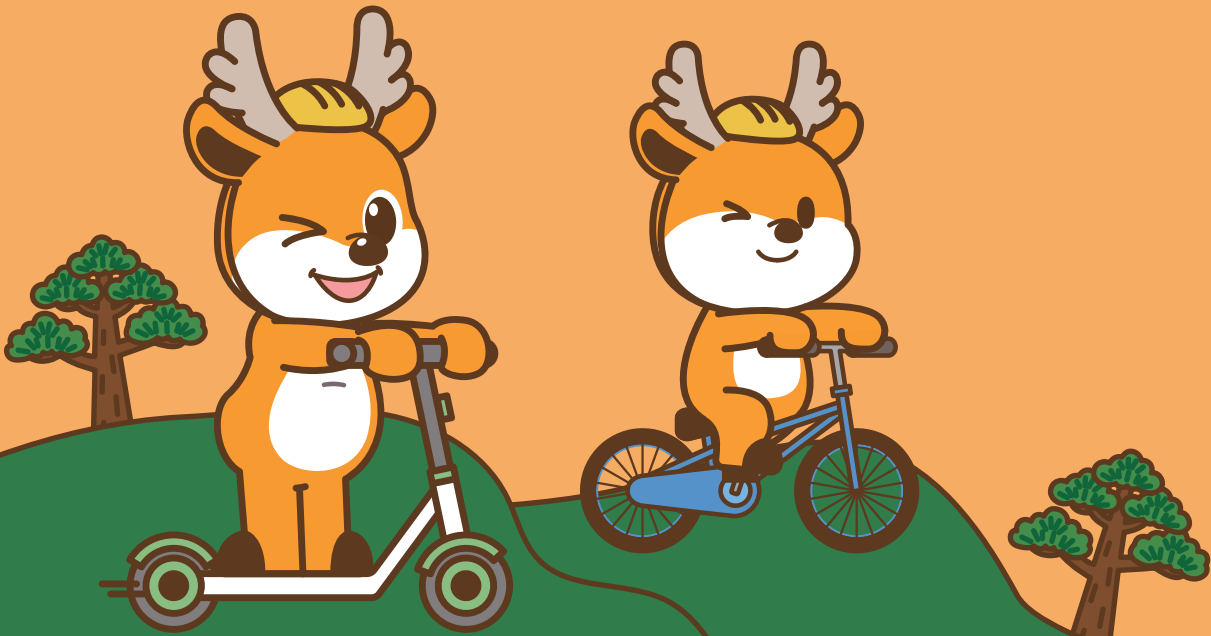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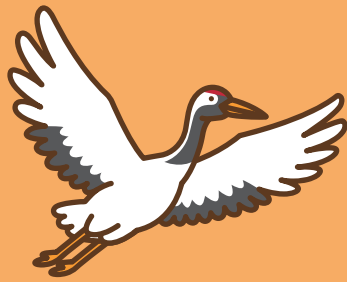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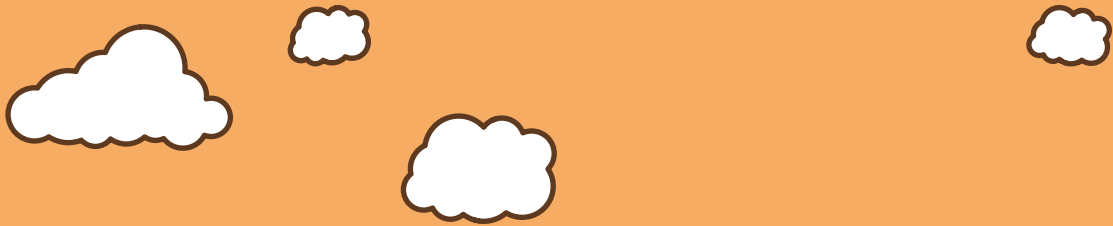




## 2 부록

- |                           |    |
|---------------------------|----|
| 1) 과거와 현재의 서구의 해안선        | 90 |
| 과거와 현재의 서구의 해안선 해안선 비교해보기 |    |
| 2) 섬과 해안에 담긴 서구 생활 이야기    | 92 |
| 해양 산업, 환경변화               |    |







서구의 자연환경

# 0. 서구의 자연환경

## 특징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인천광역시 서구는 지난날 석곶면, 모월곶면, 검단면 등 3개의 면이 하나로 합쳐진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석곶면과 모월곶면은 **부평도호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1914년 부천군 서곶면이 되었다가, 1940년 서곶출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인천시에 구가 만들어질 때 북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인천직할시 서구가 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가 되고 김포군의 검단면이 서구에 속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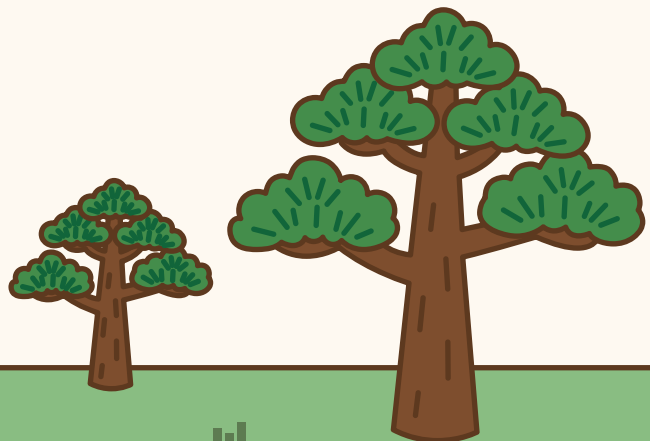
서구의 위치와 주변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주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시대에는 경기도 부평도호부 석곶면 신현리가, 일제시대에는 경기도 부천군 석곶면 신현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경기도 인천시 북구 신현동이 되었다가, 지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이 되었지요. 지금도 군, 면, 리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치는 북쪽으로는 김포시가 있으며, 동쪽에는 계양구와 부평구가, 남쪽으로 동구와 미추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서해 바다가 펼쳐져 있답니다. 서구의 자연환경을 산, 하천, 갯벌, 섬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해요.



· 부평도호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조선시대 지방 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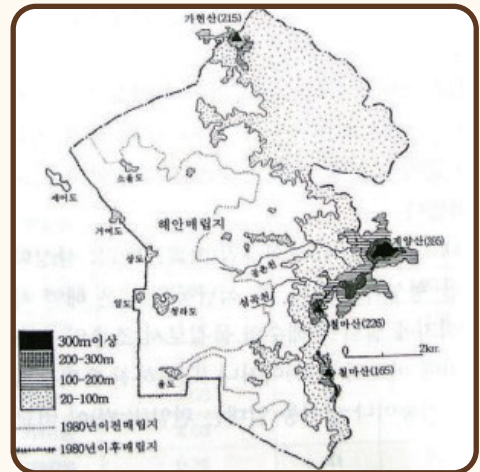


## 1 서구의 산

인천광역시 서구의 산은 경기도 안성시 칠장산에서 김포시 문수산까지 이어지는 **한남정맥**이라는 긴 산줄기에 속해 있습니다. 서구의 가현산, 천마산 외에도 계양구의 계양산과 부평구의 원적산이 한남정맥에 속합니다.

지역을 나누어 살펴보면, 옛 검단면 지역에는 북쪽의 가현산부터 세자봉, 토당산, 완정산, 할매산, 골막산, 성황대이산 등이 있습니다.

서곶지역이었던 모월곶면에는 꽃메산, 피고개산, 계양산, 경명현, 중구봉, 길마봉, 마제봉 등이 있었으며, 석곶면에는 아나지고개, 원적산, 철마산, 장고개, 함봉산 등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들 산으로 인해 서구는 계양구와 부평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구의 지형

출처: 『제2회 인천 서구학 세미나 자료집』

## 2 서구의 하천

앞에서 본 것처럼 서구에는 산이 많이 있고, 이 산에서 물줄기가 시작된 하천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현재 서구의 하천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한강과 물길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아라천(경인아라뱃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촌천, 심곡천, 검단천, 계양천, 나진포천, 대곡천, 시천천, 대포천 등 8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이들 하천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으로 갈산천, 가현천, 금곡천, 황곡천, 매천, 용천, 목지천, 오랑천, 상동천 등 9개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들 하천 대부분이 길이가 짧고, 사람들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물의 흐름이 바뀌어 자연 상태의 하천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 매우 느리고,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주변이 물에 잠기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심곡천, 공촌천, 나진포천, 검단천 등 4대 하천에 대한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한남정맥

인천의 중요한 산들을 연결하고 있는 한남정맥은, 백두산맥의 한줄기가 속리산에서 갈라진 줄기의 하나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칠장산에서 우리 서구 지역의 원적산, 천마산, 계양산, 가현산 등을 지나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로 약 18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촌천

출처: 인천광역시 도시경관 아카이브



### 3 서구의 갯벌

인천 연안에는 김포갯벌, 송도갯벌, 남동갯벌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갯벌의 대부분이 매립되어 지금은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의 갯벌만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서구주민들은 이들 갯벌에서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갯벌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연이 우리 서구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대쯤에 천일염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천일염전은 봄부터 가을까지 햇볕을 이용한 것으로 가좌동에 있었습니다. 왕길동의 안동포에는 토끼섬을 중심으로 대흥염전, 인포염전, 경희염전 등이 1980년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개뿐 아니라 게, 소라, 낙지, 굴 등을 호미나 삽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건간망이라고 갯벌에 반원 모양으로 말뚝을 박고, 그 사이를 둘러친 그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밭을 갈아서 보리나 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논은 갯벌을 막아 만들었어요. 방죽에 수문을 만들어 비가 많이 오면 바다로 흘러보내고, 썰물 때에는 수문을 닫아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인천 연안의 갯벌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 매립  
우묵한 땅이나 바다, 하천을 돌이나 흙으로 메움.
- 방죽  
물이 넘치거나 치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운 둑. 예전 검암동에 한들방죽이 있었고, 석남동에는 윗방죽, 아랫방죽, 안방죽 등 세 개의 방죽이 있었습니다.
- 수문  
물의 흐름을 막거나 물의 흐르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 여닫을 수 있게 만든 시설.



#### 4 서구의 섬

현재 서구의 섬은 세어도를 비롯하여 8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3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매립되어 지금은 육지가 되어 옛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도와 울도가 1970년대 화력발전소 터가 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고, 1980년 들어서면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울도~청라도~일도~장도~거침도~안암도~가서도 등 7개 섬을 남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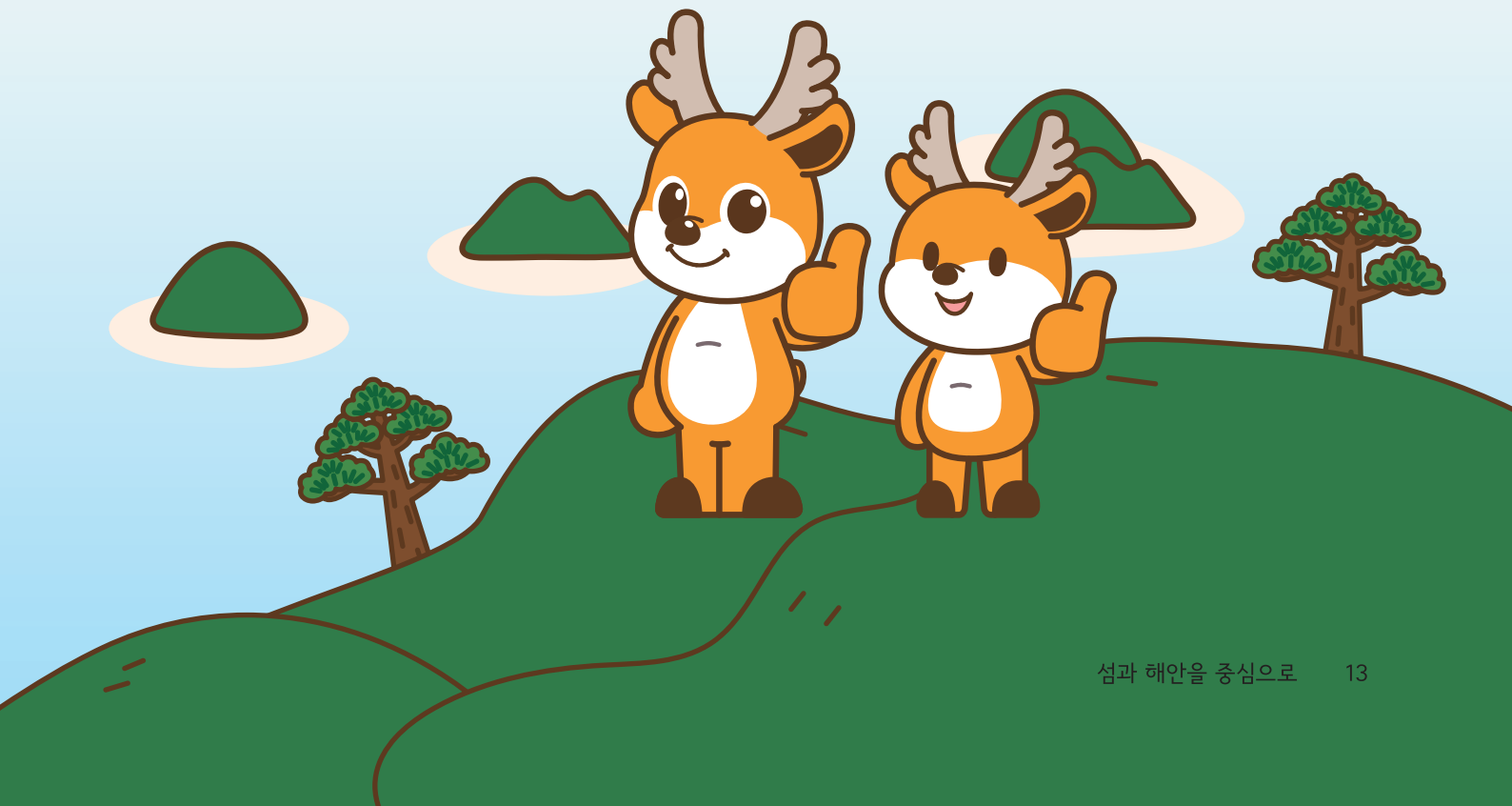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안암도 등 많은 섬들이 사라지고, 난지도, 장도 등은 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를 건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이용되었습니다. 영종대교로 인해 호도와 정도는 섬의 한쪽 부분이 파괴되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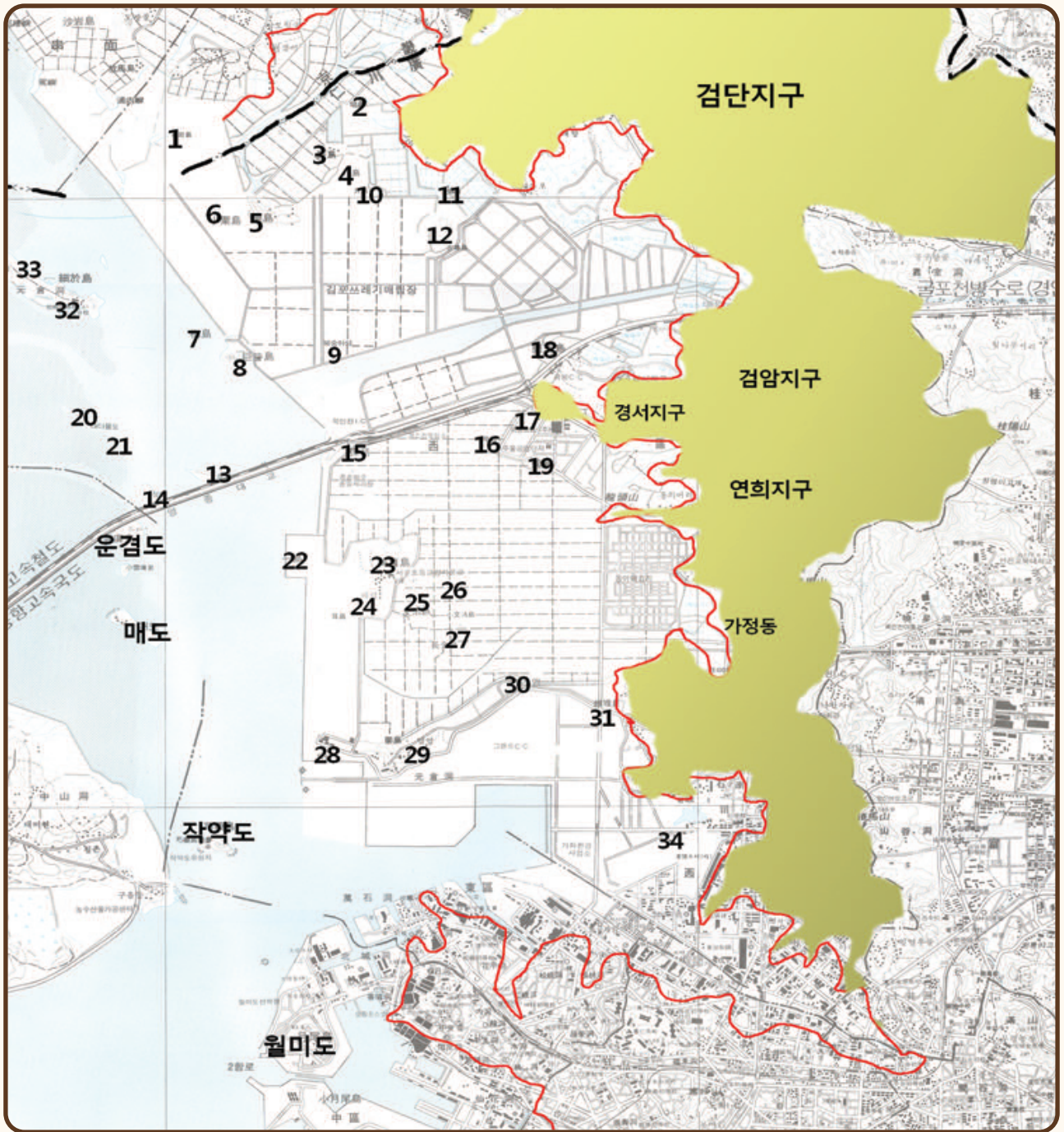


· 간척사업  
바다나 호수 주위에 독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육지나 경지로 만드는 일.

그나마 8개의 섬과 세어도를 중심으로 북서쪽의 강화도와 남서쪽의 영종도로 넓게 펼쳐진 갯벌이 남아있고, 주변의 섬들과 바다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구에는 많은 산과 그곳에서 물줄기가 만들어진 하천이 있었습니다. 그 하천들은 바다까지 이어지면서 풍요로운 갯벌을 만드는 데에 한몫하면서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 있었던 많은 섬들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풍경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지금도 해가 질 무렵 정서진공원에서 바라보는 '해넘이풍경'은 정말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원래 해안선과 34개의 섬  
출처: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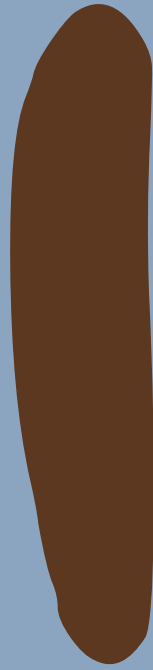
서구 관내 34개 섬의 실태

번호	도서명	이용실태	비고
1	안암도	수도권매립지 내 유수지	사라짐
2	명도	검단 오류농장 내 편입(금호동 서북 측)	매립됨
3	륙도	검단 오류농장 내 편입(금호동 서측)	매립됨
4	뉴도	검단 오류농장 내 편입(금호동 서측)	매립됨
5	율도	검단 오류농장 남측 경계	매립됨
6	소율도	동아건설 매립지	매립됨
7	매도	거침도 앞 도서	남아있음
8	거침도	수도권매립지 경계로 육지화	매립됨
9	복송아섬	수도권매립지 내	매립됨
10	승도	수도권매립지 인접지	매립됨
11	토끼섬	수도권매립지 인접지	매립됨
12	길무도	수도권매립지 인접지	매립됨
13	호도	영종대교 북측	남아있음
14	정도	영종대교 북측 호도 옆	남아있음
15	장도	북인천 I.C 동아매립지	매립됨
16	까투염	경인주물공단 앞 동아매립지 내	매립됨
17	기도	동아매립지 내 청라도 우측	사라짐
18	난지도	1968년까지 도서로 존치(수도권매립지)	사라짐
19	사도	1977년까지 도서로 존치(경인주물공단 단지 및 수도권매립지 편입)	사라짐
20	소다물도	세어도 남측	남아있음
21	대다물도	세어도 남측	남아있음
22	일도	1977년까지 도서로 존치, 일도복합화력발전소 입지	매립됨
23	청라도	동아매립지 서측	매립됨
24	이도	청라도 남측	매립됨
25	문침도	청라도 동남 측 동아매립지 내(1970년도에 통계연보에 등재)	매립됨
26	소문침도	청라도 남측 동아매립지	매립됨
27	장금도	청라도 남측 동아매립지	매립됨
28	소율도(목섬)	인천화력발전소 부지(목도)	매립됨
29	율도	1978년까지 섬으로 존치(한화발전소 부지)	매립됨
30	소도	1977년까지 소염으로 존치(율도 입구)	매립됨
31	자치도	1978년까지 섬으로 존치(율도 입구)	사라짐
32	세어도	인천 최서북단 도서	남아있음
33	지내섬	세어도 인접섬(세어도에 편입)	사라짐
34	소염도	1977년까지 도서로 존치(목재단지 북측)	사라짐

서구의 섬 현황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





서구의 섬과 해안



# 유인도와 무인도, 사라진 섬

사람이 살고 있는 섬과 살지 못하는 섬,  
그리고 사라진 섬을 살펴봐요.



서구의 해안선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1995년 검단지역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역은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서곶은 길게 해안을 끼고 있는 터라 연안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세어도를 비롯하여 울도(범염), 소염도, 청라도(파렴), 일도, 장도(노렴), 사도(범섬), 자치도(까투렴), 거참도, 다물도, 호도, 매도, 곰의바위, 쟁끼섬, 장금도, 목섬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섬들은 갯벌 매립 사업으로 거의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 동아건설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립지 확장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로 원창동과 석남동 앞바다가 매립되어 울도와 소염도가 사라졌고, 2차로 검단지역 앞바다와 백석동, 검암동, 연희동 앞바다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이 청라매립지에 포함되면서 세어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섬들이 육지로 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구에는 **유인도**인 세어도와 무인도인 호도(범염), 대다물도, 소다물도, 정도, 지내섬(소세어도), 컴섬(키도), 매도(갯섬)만이 남아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현재 원창동에 7개, 오류동에 1개의 섬이 분포하고 있는데, 1개의 섬은 유인도이고, 나머지 7개의 섬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섬의 크기는 ①세어도(408,000㎡), ②호도(23,702㎡), ③대다물도(15,273㎡), ④정도(12,893㎡), ⑤지내섬(2,281㎡), ⑥소다물도(1,785㎡), ⑦컴섬(793㎡), ⑧매도(513㎡) 등의 순서입니다.



## 1 서구에는 몇 개의 섬이 남아있을까요?

### 1) 서구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세어도

#### (1) 세어도의 역사, 그리고 이름에 대한 이야기

세어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소재(353번지)의 섬으로, 1917년 경서동에서 원창동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원창동은 조선시대에 삼남지방에서 배편으로 올라온 세곡을 내리고 보관하던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곳은 옛날 부평부 석곶면 소속으로 갯말과 환자곶이라는 두 마을이 있었는데 이를 합해 포리라고 하였습니다. 원창동 해안 바로 앞에 있는 울도, 장구도, 매섬도 포리의 관할이었습니다.

1917년에 바닷가 섬들의 관할이 바뀌었는데 세어도는 고잔리(현재의 경서동) 소속이었다가 포리(현재의 원창동)로 바뀌었습니다. 세어도는 **삼남지방**에서 **세곡**을 운반하던 길목에 있고 세곡선들의 마지막 정박지여서 강화와 김포, 영종 등에서 주민들이 모여들어 주막을 짓고 영업했습니다. 한때는 70여 가구가 살았었지만, 2016년 26가구에 인구수는 37명이었는데, 2025년 6월 현재 23가구에 인구수는 32명으로 줄었습니다.

세어도의 면적은 408,000㎡(약 15만 평)이고, 갯벌의 면적은 990,000㎡(약 30만 평)입니다. 세어도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며,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로 높이가 40m 이하이고, 해안선은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해안선의 길이는 총 4.2km로 서북쪽에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 보충설명

- 곶  
바다로 길게 뻗어 세 면이 바다로 둘러 있는 작은 육지.
-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
-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세곡  
예전에,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을 이르던 말.



세어도 전경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 전체가 4개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고, 내륙방향으로 다소 경사가 급하며 서쪽(영종도) 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약 1.62km이며, 둘레길은 약 5.4km입니다.

세어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선착장 바로 뒤쪽의 봉우리로 약 38m 높이고, 다른 지역은 20m 이하의 낮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도에서 강화도로 이어진 큰 **갯골** 사이에 위치한 세어도는 섬의 형태가 ‘가늘고 길게 늘어선 섬’의 모양을 하고 있는 데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세어도의 다른 이름으로 ‘서천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는 ‘서쪽 저 멀리 귀양 가서 있는 섬’이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흔히 ‘세루’라고 부르는데, 이는 ‘서쪽에 머무른 섬’이라는 뜻의 ‘서류도’에서 ‘세루’로 발음이 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서일도’로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 (2) 세어도에서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

### 식물

세어도의 육상에서 서식하는 야생 식물은, 섬 전체적으로 굴피나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3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단풍나무와 고로쇠나무, 이 외에도 고욤나무, 오동나무, 엄나무와 물푸레나무, 참나무(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사리, 산구절초, 질경이, 산국, 이질풀, 쑥부쟁이, 광대나물, 칩냉쿨, 수크령 등 자생하는 **초본식물**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갯벌 식물로는 해홍나물, 갯질경이, 나문재 등이 있습니다.



세어도 소나무 군락지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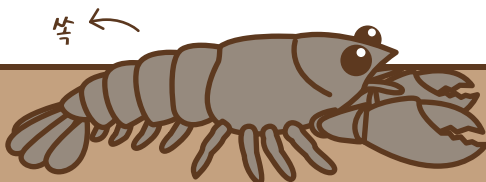
### 동물

세어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물은 육상동물과 갯벌과 바다에서 서식하는 해양동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육상동물로는 노루, 고라니, 뱀 등이 있습니다. 고라니는 현재 약 15마리 정도가 있는데, 섬 곳곳에 이들의 서식지로 보이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주변에 폭넓게 형성된 갯벌 습지에는 겨울 철새인 두루미와 여름 철새인 저어새 등이 찾아와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서해안 일대의 강 하구와 갯벌 생태계가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게 되면서 저어새의 경우 번식지를 옮겨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 두루미



← 썩

갯벌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특히 바지락, 모시조개(가무락), 소라, 맛 등의 조개류가 많으며, 낙지, 썩, 게와 갯지렁이 등이 서식하였습니다. 그런데 갯벌환경이 나빠지면서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3) 세어도에서는 무슨 일이?

#### ① 세곡을 실은 배가 침몰하다

1783년 6월 18일, 충청도 결성현에서 거두어들인 **세곡미** 1,039석을 싣고 세어도에 정박한 운반선이 폭풍을 만나 침몰하였습니다. 이때 물에 젖지 않은 벼 582석과 콩 53석은 나라에 바쳤으나 나머지 400석은 바다에 빠져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바다에 빠진 곡식을 건져 끼니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 ② 세어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1831년 이후 강화에서 정씨, 김씨, 이씨가 김포 통진에서 채씨가 세어도로 이주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창동 출신의 포구장이 섬을 관리하였습니다.

#### ③ 이양선이 나타나다

인천 앞바다에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며 서양의 배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서양의 배를 '이상한 모양의 배'라 하여 '이양선'이라 불렀습니다. 1866년 프랑스가 통상을 요구하며 강화로 쳐들어왔습니다(병인양요). **순무영**에서는 급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양선 큰 배 3척과 작은 배 3척이 팔미도에서 올라와 이중 큰 배 1척은 부평 울도 나룻가에 머물고 나머지 배들은 세어도 쪽으로 왔습니다. 며칠 뒤 이양선 3척이 세어도 밖을 향해 갔는데 산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④ 세어도는 세곡선 대기소

조선시대에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쌀을 실은 배들이 인천 앞바다를 통해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의 손돌목을 지나야 하는데, 그곳은 물길이 거칠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곡선들은 손돌목에 들어서기 전 물때를 살펴야 했는데, 최적의 장소가 세어도였던 것입니다.



#### 보충설명

- 구릉  
산보다는 조금 낮고 완만하게 비탈진 곳.
- 갯골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가에 조수로 인해 생긴 두둑한 땅 사이의 좁고 길게 들어간 곳.
- 초본식물  
줄기가 연하고 물기가 많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에 전체가 말라 죽거나 땅위줄기만 말라 죽는 식물.
- 세곡미  
조선시대 세금으로 나라에 바치는 쌀.
- 순무영  
조선시대 순무사라는 군대가 임시로 주둔하는 곳.



#### (4)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와 풍속

세어도에는 주민들이 지켜온 '비지정 보호수'인 소나무를 비롯한 고욤나무, 고로쇠나무가 있습니다.

선착장에서 세어도 어촌계 마을회관을 지나면 소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마을 제사를 지냈던 신성한 장소입니다. 태풍 피해로 나무의 수가 많이 줄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소나무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옛 마을회관 좌측에는 고욤나무가 있습니다. 봄에는 연녹색 꽃을 피우며, 여름에는 풍성한 나무 그늘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줍니다. 최근에는 나무 주위에 펜스를 설치하여 나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어도 고욤나무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세어도 부두에서 마을로 오르는 언덕 좌측에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킨 수호목인 고로쇠나무가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 나무를 '김침지 나무'라고 부르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기잡이배의 만선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술과 떡으로 제를 지낸 장소라고 합니다.

세어도에서는 매년 동제(도당제)를 정월에 지내왔습니다. 정월에 날을 정해 마을과 가정의 안녕과 평안,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였는데, 마을 제사는 북쪽에 있는 당고개에서 유교식 제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제물로 소를 사용하였는데, 그 까닭은 세어도가 길쭉한 뱀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뱀의 천적인 돼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제를 지내던 당고개에는 흙담에 초가를 올린 당집이 있었는데, 당집 안에는 삼신(신령)의 초상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인구가 줄어들면서 마을 제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당제를 지냈던 소나무 군락지 안내판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2)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여 호도(범섬)라고 했지요.

호도는 인천 서구 원창동 산148번지에 있는 자연녹지의 무인도입니다. 섬이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넓은 갯골 가운데 있어서, 섬 주변으로 펼쳐지는 드넓은 갯벌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호도  
출처: 다음백과

섬의 면적은 23,702㎡로 서구의 무인도 중 가장 크다고 합니다. 섬의 모양은 동서 350m, 남북 150m 정도인 ㄱ자형인데,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기 전에는 군인들의 폭파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섬 전체가 파괴되었으며, 영종대교 교각 설치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섬과 육지와의 거리는 인천항에서 7.0km, 서구에서는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처의 섬인 장도에서 3km 서쪽에 있고, 정도와는 600m 가량 떨어져 있답니다. 섬 바로 근처에 영종대교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구의 무인도 중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섬입니다.



1960년대 호도의 모습  
출처: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2』

다음은 1960년대 세어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앞에 보이는 섬이 바로 호도입니다. 당시 호도는 미군 해군기지였는데, 해군들이 세어도로 건너와 마을 주민들과 친목 도모를 위한 경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호도에는 군부대 주둔 시에 키웠던 고양이가 포식자로 돌변하여 오리 등의 조류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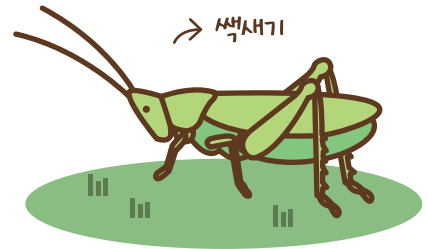
### 보충설명

- 정월  
음력으로 일 년 중의 첫째 달.

서식동물은 호도가 육지와 가까워 육상동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류로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인 매를 포함하여 갑작도요 등 4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곤충은 60여 종으로 한국고유생물종 10종(고마로브집게벌레, 실베짱이, 검은다리실베짱이, 싹새기, 긴꼬리, 섬서구메뚜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 풀무치, 팔중이), 환경지표종 11종(실베짱이, 싹새기, 방아깨비, 풀무치, 썩덩나무노린재, 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뱀허물쌍살벌,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 배짚은꽃등에) 확인되었습니다.

갯벌 바위에는 총알고동, 조무래기따개비, 지중해담치, 바지락 사패 등이 확인되었으며, 관속식물은 70여 종이 분포하고 있는데, 서식처가 제한적인 고란초 군락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는 소나무·곰솔 군락이, 북동쪽에는 혼합활엽수림이, 교란지에는 망토 군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호도는 '범염' 또는 '범섬'이라고도 불렸는데, 생긴 모습이 호랑이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육지에서는 장도와 청라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으므로 뱃사람들이 붙인 이름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전국을 조사해 정리한 지리지입니다. 이는 역대 지리지 중 가장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향토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도가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건치연혁 본래 고구려의 주부토군인데,  
신라에서 장제라 고치었고, 고려 초년에 수주라 고치었다.

.....

세종 20년에 강등시켜 현령을 만들고, 28년에 복구하였다.  
산천 원적산 부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축곶산 부 서쪽 15리 되는 곳에 있다.  
호도 부 서쪽 10리 되는 곳에 있으며 둘레가 2백 보이다.....

서구 관련 기록 중에서 산천에 석남동의 원적산, 가정동의 축곶산과 더불어, 경서동의 호도가 청라도·장도·율도 등의 지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명과 함께 섬의 규모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18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 가까운 바다에 이양선이 자주 출현하였는데, 호도는 갯골 근처에 있어서인지 밀물 때나 썰물 때에도 큰 배가 다닐 수 있고 정박하기도 쉬워서, 1871년 5월에 미국 함대가 강화도에서 신미양요를 일으키기 전 며칠 동안 정박했다고 합니다.

### 3) 쌍둥이 섬, 대다물도와 소다물도(거여도)

대다물도와 소다물도(거여도)는 인천 서구 원창동에 속한 무인도로, 쌍둥이처럼 나란히 떠 있는 아담한 크기의 섬입니다. 대다물도의 남쪽에서 500m 지점에 소다물도가 있습니다.

#### (1) 형님 섬, 대다물도



대다물도

출처: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

대다물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0번지이며, 자연녹지 지역으로 면적이 15,273㎡이고, 김포매립지에서 1.5km 떨어져 있습니다.

섬은 동서로 150m, 남북으로 800m로 길쭉한 모양입니다. 썰물 때에 갯벌이 드러나며 윗부분에는 **염습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섬을 둘러싼 갯벌과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아 **염생식물**이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어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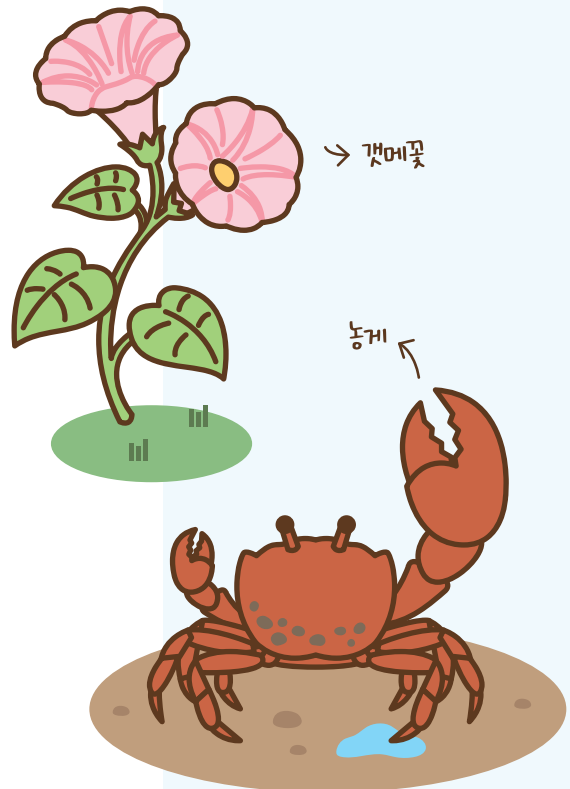
서식식물로는 가는갯능쟁이, 갈대, 갯메꽃, 갯사상자, 갯잔디, 갯질경이, 나문재, 지채, 천일사초,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나무로 이루어진 혼효림으로, 주로 8~10m 정도의 떡갈나무, 산벚나무, 소나무와 3~4m 정도의 소사나무, 자귀나무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서식동물로는 암반 해안 및 갯벌에서는 갈대밭 기수우렁, 농게, 도둑게, 따개비, 세스랑게, 조무래기 따개비, 총알고둥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조류는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꿩이갈매기, 까치, 박새, 직박구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니도 서식하고 있어서, 썰물 때에는 소다물도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보충설명

- 염습지  
조석에 따라 바닷물이 드나들어 소금기의 변화가 큰 축축하고 습한 땅. 거머리말, 해조류 따위의 염생식물이 서식함.
- 염생식물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 세포 안에 소금기가 있어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도 물을 잘 흡수함. 통통마디, 갯메꽃, 거머리말 따위가 이에 속함.



곤충은 한국고유생물종이 8종(민집게벌레, 실베짱이, 싹새기, 긴꼬리, 섬서구메뚜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 팔중이), 환경지표종이 10종(실베짱이, 싹새기, 방아깨비, 썩덩나무노린재, 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뱀허물쌍살벌,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 배짧은꽃등에)이 확인되었습니다.

## (2) 아우 섬, 소다물도

소다물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51번지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면적이 1,785㎡이며 대다물도의 11%에 불과한 작은 섬입니다. '거여도'라고도 불리며, 섬의 모양은 동서로 200m, 남북으로 100m인데, 가운데 부분이 잘록하여 전통 타악기의 하나인 장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다물도의 북쪽 500m 지점에 대다물도가 있는데, 썰물 때는 이 두 섬이 연결됩니다. 대다물도와 마찬가지로 섬 주변은 넓은 갯벌과 이어져 있습니다.

서식식물로는 갯벌 윗부분에 나문재, 칠면초 등의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섬 전체에는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식동물로는 고라니가 확인되었으며, 집쥐로 추정되는 굴도 많았습니다. 조류로는 백로류로 추정되는 알과 둥지가 다수 발견된 기록이 있고, 곤충은 한국고유생물종 5종(실베짱이, 싹새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 팔중이), 환경지표종 7종(실베짱이, 싹새기, 방아깨비, 다리무늬침노린재, 무당벌레, 호리꽃등에, 배짧은꽃등에)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다물도  
출처: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 4) 새들의 고향에서 영종대교를 지키는 섬으로(정도)



정도  
출처: 다음백과

정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49번지에 있는 무인도로, 영종대교에서 불과 63m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남서쪽의 운엄도와는 약 400m, 동쪽의 호도와는 약 600m의 거리에 있는데, 섬의 모양은 동서로 100m, 남북으로 300m인 긴 타원형이며, 면적은 12,893㎡입니다.

이 섬은 잔잔한 물결과 큰 파도가 오랫동안 깎아 만든 낮고 평평한 바위 지형 위에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두 개의 섬이었지만, 모래와 자갈이 쌓이면서 하나로 이어진 형태가 되었습니다.

서식동물로는 6종의 조류가 관찰되었는데 붉은머리오목눈이, 박새 등 텃새가 확인되었습니다. 섬의 주변 갯벌에서는 갯벌새와 갯벌도요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섬의 크기는 작지만, 바위가 많고 갯벌이 가까이 있어서 새들의 번식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326호]의 주요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종대교의 소음으로 새들이 알을 품는 행동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 내부에는 초지대, 관목림 및 교목림,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어 59종의 다양한 곤충이 관찰되었으며, 한국고유생물종 8종(고마로브집게벌레, 실베짱이, 검은다리실베짱이, 싹새기, 섬서구메뚜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 팔중이), 환경지표종 10종(실베짱이, 싹새기, 방아깨비, 석덩나무노린재, 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뱀허물쌍살벌,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 배짚은꽃등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안가의 큰 암반에는 등근얼룩총알고동, 바지락, 조무래기따개비, 총알고동 등의 저서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 5) 지네를 닮은 지내섬(소세어도)

지내섬은 인천 서구 원창동 산147번지에 있는 자연녹지의 무인도로, 섬의 면적은 2,281㎡입니다. 섬의 모양은 동서로 50m, 남북으로 100m 정도의 타원형인데, 그 모양이 흡사 지네와 비슷하다고 해서 '지네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내섬보다는 '소세어도(小細於島)'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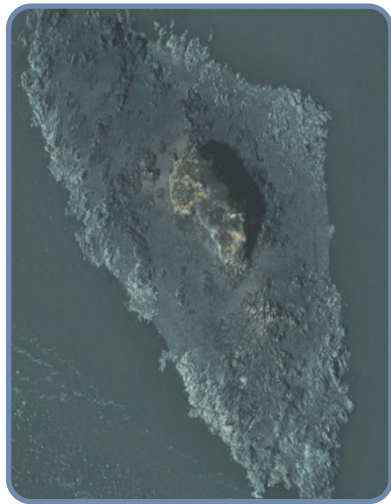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관

지내섬은 세어도와는 100m 정도 떨어진 동쪽에 있어서, 세어도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두 섬을 이어주는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이 섬의 주변이 모두 갯벌이어서 썰물 때만 둘다리를 건너 지내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내섬 둘레길은 산과 바다를 함께 둘러보며 산책을 할 수 있으며, 강화도가 보이는 곳에 '서일정'이라는 정자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동검도와 강화도 등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내섬은 주변의 섬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갯벌과 염습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암반 해안과 갯벌에 도둑게, 세스랑게, 조무래기따개비, 총알고동 등의 다양한 갑각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고라니, 꿩이갈매기, 박새, 그리고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205-1호인 저어새가 서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곤충은 한국고유생물종 3종(쌩새기, 등검은메뚜기, 방아깨비)과 환경지표종 4종(쌩새기, 방아깨비, 무당벌레, 배짚은꽃등에)이 확인되었으며, 혼효림이 우세한 가운데 남동쪽 경사진 면에 소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 6) 인천 연안부두를 위해 아낌없이 내준 켄섬(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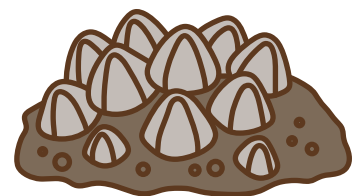
켄섬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블로그

켄섬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140번지에 있는 작은 무인도로, 자연녹지지역의 사유지입니다. 세어도와 김포매립지 사이의 수로 가운데에 있으며, 육지와는 인천항에서 10.6km, 세어도와는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섬의 모양은 동서 20m, 남북 40m 규모의 타원형이고, 면적은 793㎡입니다. 세어도 주민들은 이 무인도를 '키도'라고 부릅니다. 이 섬은 세어도와 선착장 중간 지점에 있어서 배 운항의 기준점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섬 주변의 대부분은 경사도가 큰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 모양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둥글었는데, 1960년대 인천 연안부두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 등의 골재를 공급하기 위해 섬을 깎아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켄섬은 층이 겹겹이 눌러 굳은 바위인 편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라는 풀이 거의 없고 섬의 크기도 작아서 땅에서 사는 동물들이 살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암반으로 된 해안에서 바닷물이 가장 높이 차오를 때와 가장 많이 빠질 때 사이 구간에서 조무래기따개비가 전반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조류로는 노랑할미새와 쇠솔딱새 등이 이동 중에 잠시 쉬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저어새의 서식지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곤충은 한국고유생물종이 4종(실베짱이, 검은다리실베짱이, 쌩새기, 팔중이), 환경지표종이 6종(실베짱이, 쌩새기, 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호리꽃등에, 꼬마꽃등에)이 확인되었고, 섬 전체에는 참싸리를 중심으로 한 잡목림이 분포합니다.



조무래기따개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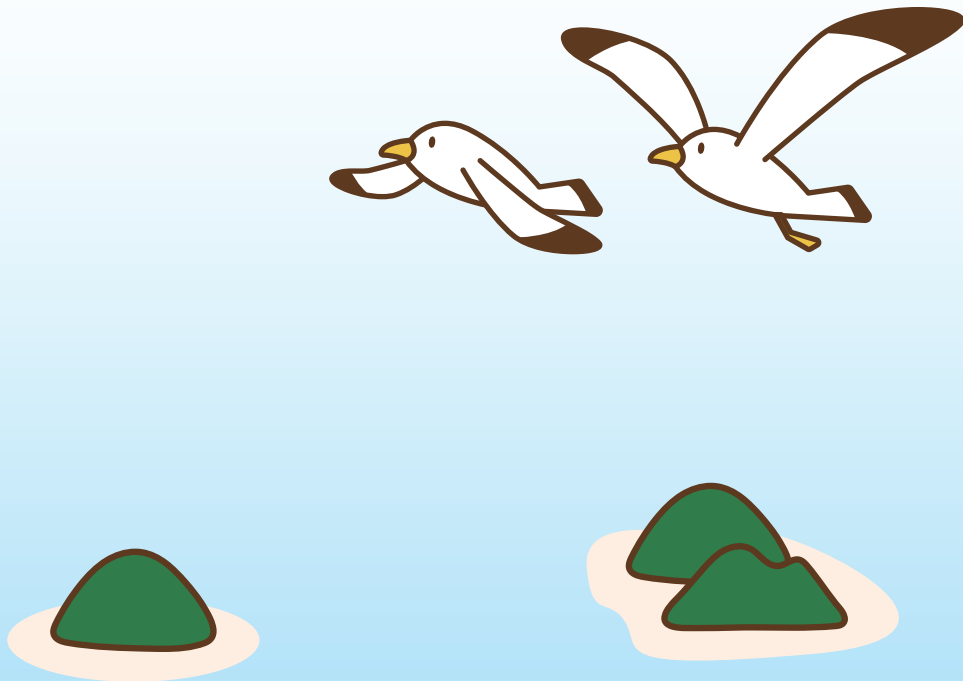
## 7) 작지만 단단한 섬, 매도(갯섬)

매도의 주소는 인천 서구 오류동 산225번지로 군사보호 구역입니다. 이 섬은 면적이 513㎡으로 서구의 무인도 가운데 가장 작아요. 육지와는 정서진에서 약 0.2km 떨어져 있으며, 영종대교와는 2.3km 떨어져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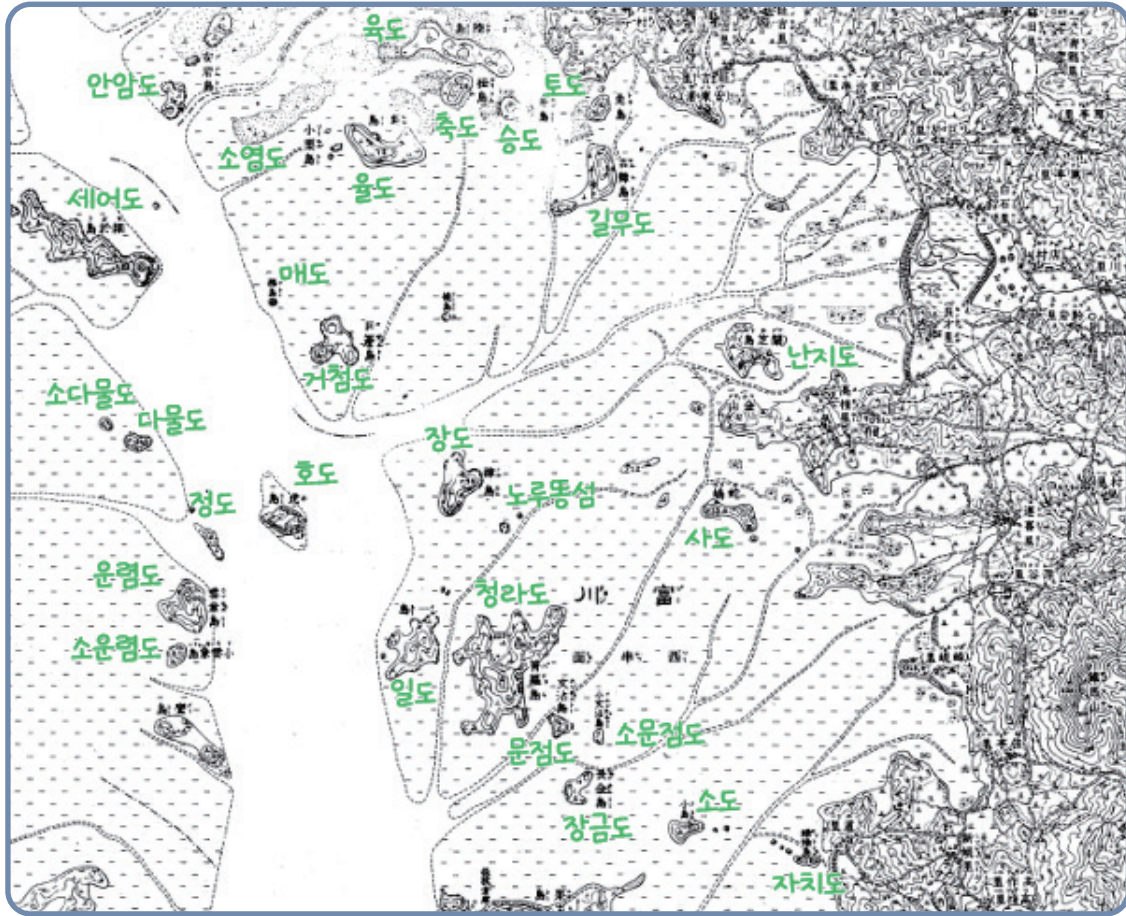
매도는 원래 동쪽에 있던 거침도에 딸린 섬이었으나, 수도권 매립지 사업으로 거침도 일대가 육지화되고 이 섬만 남았으며, '갯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 이 섬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군사지역입니다.

매도에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저어새 수십 쌍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종도 수하암과 남동유수지, 강화도 각시바위와 함께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저어새 번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어새는 주걱 모양의 길고 검은 부리가 특징인 조류로, 현재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3,9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체 번식 개체군의 90% 이상이 우리나라 서해안 일대 섬에서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 서구 매도와 중구 수하암에서 번식하는 저어새의 유전적 건강성이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가 매립 등 개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지만, 인천에서 번식하는 저어새가 질병 등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섬에는 저어새 외에도 한국 재갈매기, 팽이갈매기, 흰뺨검둥오리가 확인되었으며,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검은머리물떼새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 육지가 되어버린 섬



1918년 근대지도

출처: 조선총독부 「50,000:1 근대지도」

### 1) 난지초가 자라던 섬, 난지도

난지도는 경서동 금산의 정북쪽 300m에 놓인 큰 섬이었습니다. 육지에서 가까워 경서동의 한 마을로 여겨져 왔습니다. 섬의 모양은 몸을 크게 편 해파리 같은 모습이었는데, 금산과의 사이에는 큰 갯골이 하나 있어 밀물 때에는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한 『호구총수』에 난지도(蘭芝島)라는 지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약재의 명약 난지초가 자생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난점’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난지염’을 줄인 말입니다. 조선시대 정지석은 <계양팔경>에서 “난포영엽(蘭浦靈葉) : 난지포구의 신비한 난지초 잎”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섬에는 옛날에 세곡미를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 흥성한 때가 있었으나 그 뒤에는 인구가 줄어들었고, 50~60년 전에는 30여 가구가 어업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나 어획량이 많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난지도는 물과 워낙 가까운데다 간척사업을 하면서 만든 방죽으로 연결되어 육지화되었습니다.

## 2) 뱀이 많아 뱀섬이라고 불렀던 사도

사도는 경서동의 서쪽 끝인 금산에서 정북쪽으로 700m, 연희동 '용의머리' 서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800m에 있던 섬이었습니다. 뱀이 유난히 많아 말뜻 그대로 '뱀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40~50년 전 그곳에서 백사가 여러 마리 잡혀, 땅꾼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많은 섬처럼 물이 빠지면 걸어서 갈 수 있었지만, 농사를 지을 땅이 거의 없었고 물이 들어올 때는 물살이 거세서 배가 접근하기 어려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에 매립하여 농경지로 사용하다 그 뒤에 경서동 주물단지가 들어섰고 현재는 서부산업단지로 변하여 섬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3) 노루들의 쉼터, 장도(노름)

경서동 서단 금산에서 서남쪽 3km, 연희동 '용의머리' 서단에서 4km 떨어진 섬으로 서곶사람들은 '노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섬에 노루가 많이 살아 '노루섬, 노루염'이란 지명이 붙었다가 '노름'으로 축약되었고, 한자로 뜻을 살려 '장도'가 되었습니다.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섬이었지만, 거침도나 사도처럼 썰물 때 물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경서동에서 가려면 갯골이 없었으며, 연희동에서는 3개의 갯골을 건너야 했습니다. 영종대교가 시작되는 곳으로 공항고속도로와 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섬의 모양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그곳에 영종대교 휴게소와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4) 까투리를 닮았다던 자치도(까투름)

까투리처럼 생겨서 '까투름'이라고 하다가 한자로 바꾸어 '자치도'가 되었습니다. 원창동의 갯말 서쪽 갯벌에 있던 섬으로, 울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현재 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 5) 파란 섬, 지금은 청라국제도시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난 청라도

청라도는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3.5km, 연희동 '용의머리' 서단에서 2.5km 떨어진 섬이었습니다. 푸른 넝쿨 나무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서곶 사람들은 파란 섬이라는 뜻으로 '파렴'이라고도 불렀는데, 멀리 보이는 그 섬이 유난히 푸른색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곶 앞바다에 있던 섬들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청라도, 1996. 4. 11. 촬영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썰물 때 부지런히 갯벌을 걸으면 밀물이 오기 전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창동에서 가려면 갯골 3개, 연희동에서 가려면 갯골 5개를 건너야만 했답니다. 원창동 환자곶 해안과 청라도 사이에는 자치도, 소도, 소문점도, 대문점도 등 작은 섬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매립되어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은 김포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육지의 끝이 되어버렸는데, 서인천발전소와 신인천발전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도의 북쪽에는 공촌천이, 남쪽에는 심곡천의 물길과 저수시설이 있습니다.

## 6) 인천 전기를 책임지고 있는 일도

청라도 등 뒤에 숨듯이 앉아 있던 작은 섬으로 육지에서는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1980년대 대규모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한국가스공사 기지와 한국전력공사의 인천북화합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도와 청라도와 더불어 방조제로 연결되어 서곶의 새로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7) 임진왜란의 의병장 조현의 이야기가 남아 있는 울도

원창동 환자곶 해안에서 서남쪽으로 2km에 있던 섬입니다. 멀리서 보면 밤알처럼 보여서 '밤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사이에 갯골이 하나 있었으며 해안에서 썰물 때는 갯벌을 걸어 섬까지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말부터 매립이 시작된 울도는 1974년 인천화력발전소, 경인화력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 <중봉 조현장군과 울도 이야기> .....

중봉 조현은 김포에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종6품 통진 현감으로 왔는데 죄를 지은 노비를 죽인 일로 벼슬에서 쫓겨나 부평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벼슬길에 올라, 한양으로 가던 중 조현은 오갈 데 없는 김씨 성을 가진 총각을 거두어 집에 데려와 함께 살다 나중에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 예견한 조현은 김총각을 시켜 울도에 집 두 채를 짓고 산자락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여 논과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등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현은 자기 가족과 김총각 처가 식구들을 울도로 떠나가게 하고 스스로는 일본과 싸우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조현은 여러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1592년 8월 16일 금산전투에서 700여 명의 의병과 함께 순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섬의 이름은 조현의 또 다른 호인 '후율'을 따 '울도'라고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

## 8) 팔뚝만한 지네가 살았다던 소염도

이 섬은 석남동의 고잔마을 남쪽, 가좌동의 큰감중절리 해안 서쪽에서 1.5km 떨어져 있던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지네가 살고 있어, 이 섬으로 나물을 캐려고 건너간 여인이 물려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가좌동 서쪽, 석남동 남쪽 갯벌을 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 주변으로 한양목재 등 목재와 가구 전문업체들이 자리를 잡았으며, 원목을 물에 담가놓는 한양목재저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섬의 형태는 없어진 상태이며, 봉수대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9) 썰물 때 걸어서 갈 수 있었던 서쪽 끝자락의 섬, 거침도

거침도는 경인항 컨테이너 부두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경서동의 서단 금산에서 서쪽으로 4km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의 맨 끝이었습니다. 섬의 바로 등 뒤(서쪽)는 밀물 때나 썰물 때나 바닷물이 머무는 큰 갯골이 있습니다. 썰물 때에는 육지에서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며, 서쪽에는 매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립 이후 섬의 형태는 일부 유지하고 있으나, 골재 파쇄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환경에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 10) 서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던 육도

검단의 오류농장 안에 있던 섬으로 서쪽에는 '고도', 북쪽에는 '명도'가 있었습니다.

## 11) 쓰레기매립장으로 사라진 추도(싸리염), 승도(퇴섬), 토도, 길무도

육도 남쪽에 있는 섬으로 '싸리염'이라고도 했습니다. 남쪽에 '퇴섬'이라고도 했던 '승도'가 있었고 인근에는 '토도'와 '길무도'가 있었습니다.

## 12) 같은 이름이 둘이라서 오해받는 울도와 소울도

육도 서남쪽에 있던 비교적 큰 섬으로 중앙에는 해발 65m 정도의 산이 있으며, 서편의 작은 섬은 소울도라고 불렸습니다. 지금도 울도의 모습은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으나, 소울도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 13) 복숭아를 닮아서 복숭아섬이라고 불렀던 도도

육도 동남쪽 약 1.7km 정도의 거리에 있던 섬으로 복숭아 모양을 하고 있어, '복숭아섬'으로도 불렸습니다.

## 서구 연안의 매립 과정<sup>32)</sup>

- **1964년**  
9월 9일 농림부 수산증식사업 허가로 서구 연안 간척지에 대한 매립 시도.
- **1965년**  
10월 19일 공업부지 지정으로 해안선의 직선화 계획 수립.
- 난지도 아래의 금산(범머리)-사도-포리-주안으로 이어지는 공업용지 구획, 사도 매립.
- **1967년**  
인천항만사령부와 AID 지원으로 매립을 위한 제방 축조.
- **1970년**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시설 설치로 울도 연육.  
2월 9일 건설부 고시 제54호로 김포매립지(일명 동아매립지) 등의 매립 계획 수립: 기존의 난지도-청라도-울도를 이어 매립하는 대규모 간척 사업.
- **1964 ~ 1971년**  
난민구제사업으로 울도-장금도-문침도-청라도-일도-장도-경서동(고잔) 간 길이 6,830m의 제방으로 7개 섬이 이어짐.
- **1980년**  
1월 14일 동아건설 공유수면매립 면허 취득.
- **1983년**  
9월 대규모 간척농지 개발 착수.
- 기존 간척지를 포함하여 원창동-울도-청라도-약암리를 잇는 매립공사를 시작.  
매립 면허 면적은 372.4km<sup>2</sup>.
- **1987년**  
9월 김포매립지와 서구 일대 공유수면에 쓰레기매립장 확충 결정.

● 1988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환경부에 매각, 나머지 16.49km<sup>2</sup>는 1989년 매립준공.

● 방조제 총 연장 9,403m, 매립면적 38km<sup>2</sup>.

● 울도-청라도-일도-장도-거침도-안암도-가서도 7개의 섬을 남북으로 연결.

●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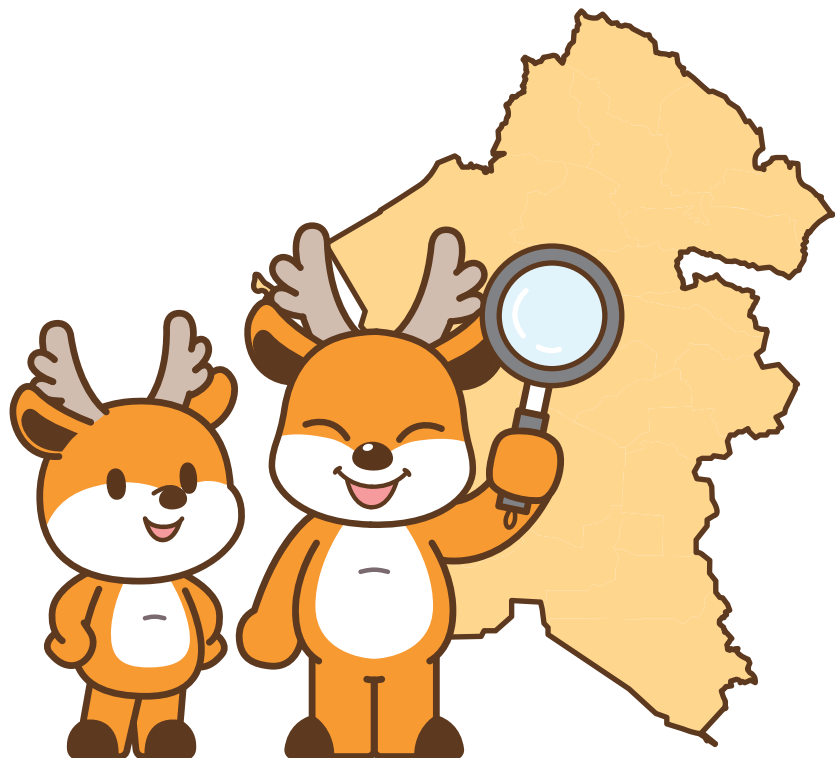
동아건설 농업기반공사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

● 2003년

8월 11일 재정경제부가 김포매립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

●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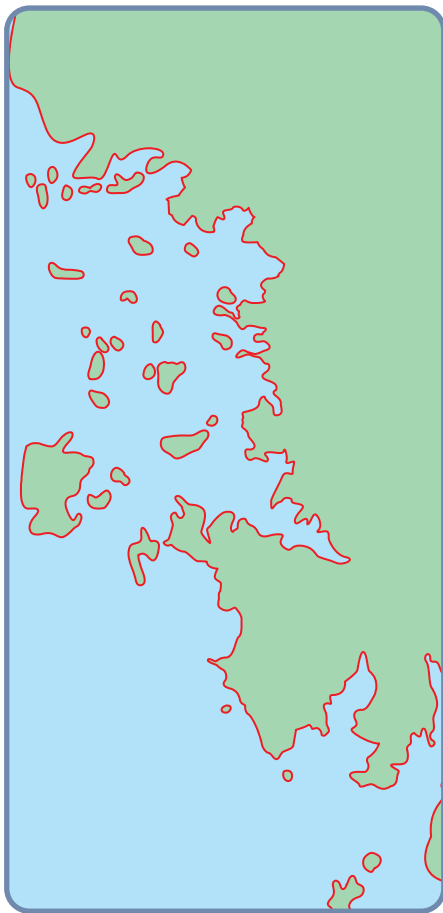
12월 20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시가지 용지로 변경, 청라국제도시로 개발.  
송도·영종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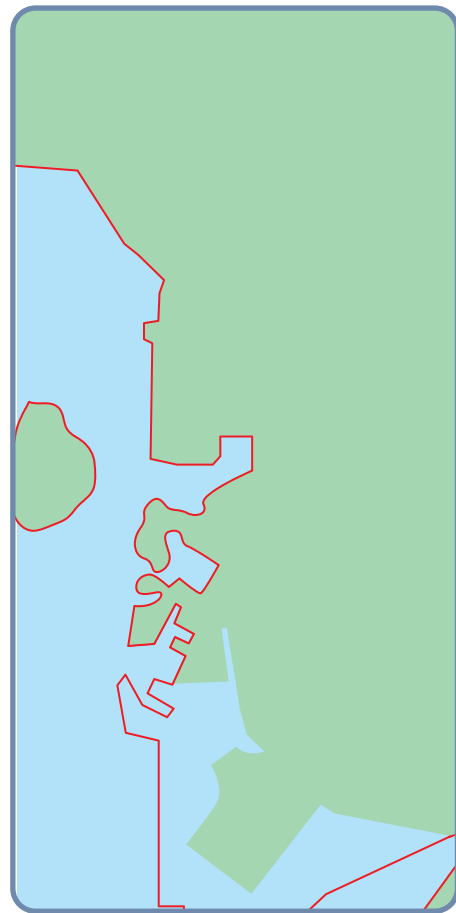
## 2

# 매립으로 보는 서구의 섬과 해안

바다가 땅으로 바뀌면서 섬이 사라지고 서구의  
해안선은 단순해졌어요.



과거의 해안선



현재의 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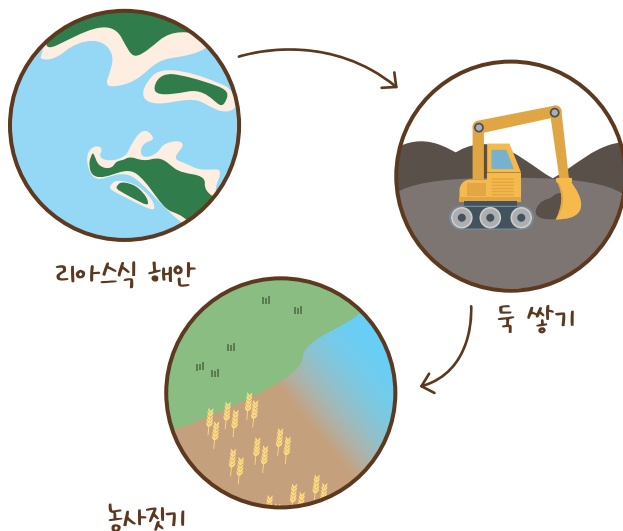
### 1 과거 서구의 해안선은 복잡했어요.

과거 서구 바닷가는 **곶**과 **만**이 발달하여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앞바다에는 수십 개의 비교적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 2 농사지를 땅이 부족하자 바다를 메우는 간척사업을 했어요.

리아스식 해안은 바다를 땅으로 만드는 간척사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수심이 얕은 바닷가 만과 만 사이에 독을 쌓거나 육지와 가까운 섬들을 서로 연결하여 독을 쌓은 뒤 바닷물을 빼면 갯벌을 농사지를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간척하는 방법



농사를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새로운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 간척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백성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바다를 메워 간척을 해서 농사지를 땅을 만들면 소유권도 인정해주고 일정 기간 세금도 면해주었습니다. 양반들은 노비를 동원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계**를 만들어 힘을 모아 **간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갯벌을 간척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바다에 독을 쌓는 일도 어려웠지만 독을 쌓은 뒤에도 바다의 힘을 이기지 못해 애써 쌓은 독이 허물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부지런히 하천의 물을 끌어다서 소금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잘못하면 타죽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 때 태풍으로 지금의 서구에 해당하는 모월곶면과 석곶면에 51개 제방이 무너지고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과거 조선시대 서구 바닷가에는 간척을 하며 쌓은 제방이 수십 개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보충설명

- **곶**  
육지가 바다쪽으로 뿔뿔하게 뻗어 나간 땅.
- **만**  
바다가 육지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
- **리아스식 해안**  
ria는 복잡한 해안선을 말하는 일반 명사임. 유럽에서는 ria라 하고 영어로는 ria cost(리아해안)이라 함. 근대시기 중국과 일본이 앞서 서양의 용어를 한자로 표기했는데 일본의 지리학자들이 ria 해안을 '리아스식 해안'으로 표기하면서 우리도 그대로 썼음.
- **황무지**  
내버려 둔 거친 땅.
- **개간**  
황무지를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있는 땅으로 만듦.
- **계**  
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전통적인 협동 조직.
- **간척**  
바다나 호수에 독을 쌓은 후 그 안의 물을 빼 땅으로 만드는 일.

서구의 한들방죽 전설은 갯벌 간척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들방죽 이야기〉

한들마을(지금의 백석동) 앞바다는 썰물이 되면 어마어마한 갯벌이 드러납니다. 서울의 부자들이 너도나도 간척에 나섰으나 제방을 쌓으면 독이 무너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일파 송병준이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고 간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방을 다 쌓고 마지막 남은 큰 갯골을 막으려 돌과 흙을 메꾸고 나면 밀물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때문에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공사는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공사책임자의 근심도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공사책임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주를 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뭔가 할 말이 있지만 망설이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스님, 이 공사가 완성되면 수많은 사람이 식량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세요!”

스님은 공사책임자의 말에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에밀레종 이야기 아시죠? 그때도 종이 완성 직전에 자꾸 깨져서 결국 어린아이를 희생시켜서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이 제방도 정성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니 사람을 희생시켜야 마침내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책임자는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희생시키다니.

하지만 또다시 제방이 무너지자 결심을 했습니다.

밥때가 되면 간척공사장에 찾아와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공사책임자는 날마다 그 거지를 불러 밥과 고기를 실컷 먹였습니다. 썰물이 되어 제방의 마지막 독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책임자는 거지에게 밥과 고기를 주면서 술도 실컷 마시게 했습니다. 거지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공사책임자는 독을 쌓을 곳에 거지를 눕히고 제물을 바친 뒤 바다의 신에게 기원했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들여 제발 독이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공사를 마치고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책임자와 일꾼들은 초초한 마음으로 독을 지켜봤습니다. 물살은 당장 독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세를 꺾고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독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를 희생시켜 완성한 한들방죽을 거지방죽이라고도 했습니다.

『인천 서구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장수 외』  
『한들방죽에 거지를 생매장하다』 참조



백석동의 한들방죽은 시천천 하류를 막아 쌓은 둑입니다. 1911년 지도에 이미 한들방죽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전에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도에 표시된 방죽 안의 땅은 아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둑이 터져 방치된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들방죽을 다시 쌓은 것은 송병준입니다.



송병준이 다시 쌓기 이전의 한들방죽 지도  
출처: 국토정보맵

### 3 일제강점기에 간척사업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1907년 개간하지 않은 모든 땅을 국유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갯벌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는 비록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이었지만 **을사늑약**에 이어 **정미조약**까지 체결하면서 **외교권**과 **내정권**을 모두 일제에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업무는 대한제국의 **농상공부대신**이 담당하지만 실제로는 차관인 일본인의 입김이 작용하였습니다. 이제 개간하려면 정부에 선불로 대여료를 내야 합니다. 일본인도 돈만 내면 개간할 권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개간을 하여 땅을 가지려던 가난한 백성들은 이조차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때부터 개간은 돈 많은 일본인이나 친일파들의 차지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해서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은 물론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개간지도 일본이 요구하는 서류를 마련하지 못하면 임자 없는 땅이라 해서 모두 국유화했습니다.



#### 보충설명

- **을사늑약**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 **정미조약**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내정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 **외교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간섭없이 외국과 교섭할 권리.
- **내정권**  
나라 안 정치, 경제, 행정 등을 다스릴 권리.
- **농상공부대신**  
조선 말기 농업, 상업, 공업 등 경제 전반을 담당하던 농상공부의 최고책임자. 오늘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모두 합친 자리임.
- **토지조사사업**  
일제가 조선의 토지소유 실태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1910년~1918년 실시한 사업으로 그 결과 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됨.

한들방죽을 쌓은 송병준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정미조약을 체결하여 나라의 내정권을 일본에 넘긴 일곱 명(정미칠적) 중 한 명입니다. 그런 그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한들방죽 일대 갯벌 약 28만 평을 개간하는 권리를 따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28만 평은 축구장 140개 크기의 규모입니다.

1913년 송병준은 총독부로부터 개간권을 따내 한들방죽 공사를 했지만 공사는 쉽지 않아 공사 기한을 한차례 연장한 끝에 1919년이 되어서야 간척을 완공했습니다. 1927년 송병준이 죽었을 때 그의 유산 목록에 한들방죽 땅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사가 끝난 이후 송병준은 그 땅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 4 가좌동의 갯벌을 매립하여 염전을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서구에서는 소금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천일염이 아니라 소금물을 끓여서 만드는 자염이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인천 바닷가에는 자염을 만드는 염전이 많았는데 그 중 서구에 해당하는 모월곶면과 석곶면이 제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인천과 부평의 자염 생산량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었습니다.

지명	현재 지명	염전(소금가마) 수
부평군 모월곶면	서구	44
부평군 석곶면	서구	23
인천군 주안면	부평구 일부+남동구 일부	10
인천군 서면	연수구	4
인천군 부내면	미추홀구	5
인천군 남촌면	남동구	24
인천군 조동면	남동구	9
인천군 신현면	경기도 시흥시	2
합계		121

1907년 인천지역 자염  
출처: 『한국염업조사보고서』

자염을 생산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과 댄감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소금은 귀해서 값도 비쌌고 국가가 생산에서 유통까지 통제하였습니다. (\*\*자염 만드는 방식은 뒤의 9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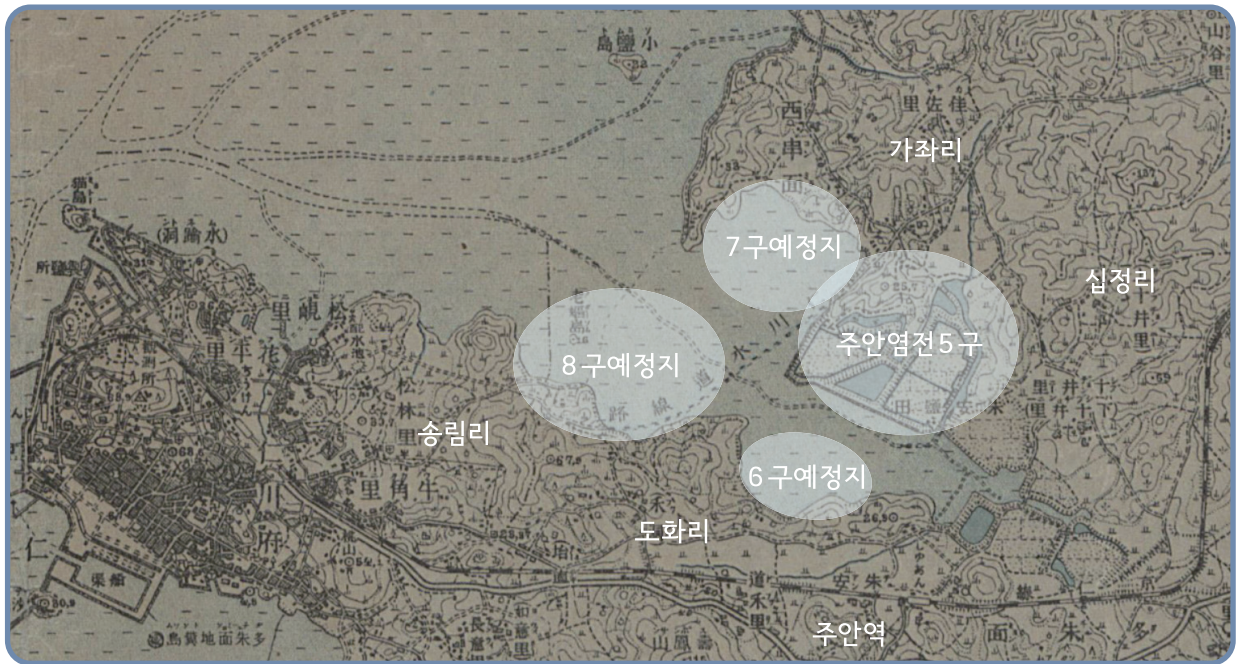
개항 이후 일본산 소금이 들어왔지만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람들은 일본 소금을 사지 않고 전통식 자염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1898년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값싼 천일염이 들어오자 국내 소금 유통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을사늑약에 이어 정미조약까지 체결하며 조선을 점차 지배하고 있던 일제는 소금 시장을 장악해서 일본이 벌여놓은 전쟁과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이 조선에 중국산 천일염에 대항할 천일염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용 염전지로 인천의 주안면 십정리(현재 부평구 십정동)가 선택되었습니다. 갯벌이 넓게 형성되는데다 경인선 철도가 있어 소금 운송에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1907년 주안면 십정리의 갯벌을 매립하여 1정보(9,917m<sup>2</sup>=3,000평) 규모의 염전을 만들어 천일염을 생산해 보았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중국산보다 훨씬 질 좋은 천일염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갯벌을 매립하여 주안염전을 조성하였습니다.

서구 가좌동과 동구 송림동, 미추홀구 도화동 사이에는 커다란 갯골이 있어서 밀물 때가 되면 나룻배를 이용해서 건너가고 썰물 때는 넓은 갯벌에 돌다리를 놓아 건너갔습니다. 주안염전은 이 갯골 양쪽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주안염전 조성 과정  
출처: 국토정보맵

<표> 주안염전 조성 과정

1909년	제2구(5.5정보) 제3구(10.8정보)
1911년	제4구(16.3정보)
1912년	제5구(65.4정보)
1919년	제6구(36정보), 제7구(55정보), 제8구(48정보)

위의 지도와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좌동 갯벌을 막아 만든 염전은 제5구와 제7구로 이 시기 조성된 주안염전 중 가장 규모가 큼니다.

주안염전은 이후 남촌, 군자, 소래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1933년에는 한반도 전체 소금 필요량의 20% 가량을 인천의 염전에서 생산했습니다. 인천은 소금 산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천 사람의 별명도 '인천 짠물'이 되었습니다.



## 5 6.25전쟁 이후 서구에 정착한 피난민들의 구호를 위해 간척사업이 벌어졌어요.

1930년대 후반부터 1953년까지 일제가 일으킨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이어 해방 이후에는 6.25전쟁이 일어나 이 시기에는 갯벌매립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구 지역에서 다시 갯벌매립을 하기 시작한 것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서구는 북한하고 가까워 전쟁을 피해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서곶출장소** 관할 지역의 원주민은 7,794명인데 피난민은 734명으로 인구의 10%에 해당합니다. 특히 황해도 연백과 웅진군에서 온 피난민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농사를 짓거나 염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14년에 발간한 「서구사」에 따르면 전쟁으로 지역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구호**가 필요한 원주민 415명, 피난민 357명이었습니다.

### 1) 민간 주도로 갯벌을 매립해 천일염전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화약의 원료로도 사용합니다. 해방 전부터 전쟁 중이라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고 소금은 같은 무게의 쌀과 맞바꿀 정도로 비쌌습니다. 거기다 분단으로 북에서 들어오던 소금 공급이 끊어지게 되자 소금값은 날로 비싸졌습니다.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금증산 5개년 계획’(1952~1956)을 세웠습니다. 개인이 염전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석곶과 모월곶, 검단의 속사곶, 안동포 주변에 새로운 염전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염을 생산하던 염밭도 천일염전으로 바뀌었습니다.



1960년대 서구의 염전  
출처: 국토정보맵

방죽을 쌓아 만든 논도 염전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염전을 만들려면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은 일정 면적을 한 주(株)로 쳐서 그 주를 모아서 염전을 만들었습니다. 백석염전과 검암염전은 그렇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염전이 생겨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문을 닫는 염전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구 지역의 염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2) 갯벌을 매립해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경서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규모 간척활동을 벌였습니다. 고잔마을의 오영근방죽, 채제동방죽, 이명수방죽 외에 5인조방죽, 6인조방죽이 그 예입니다. 5인조, 6인조는 다섯 사람 혹은 여섯 사람이 자금을 모아 방죽을 쌓아 붙인 이름입니다. 방죽을 쌓기 위해 나온 마을 주민들에게는 미국에서 원조로 받은 밀가루를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간척 규모가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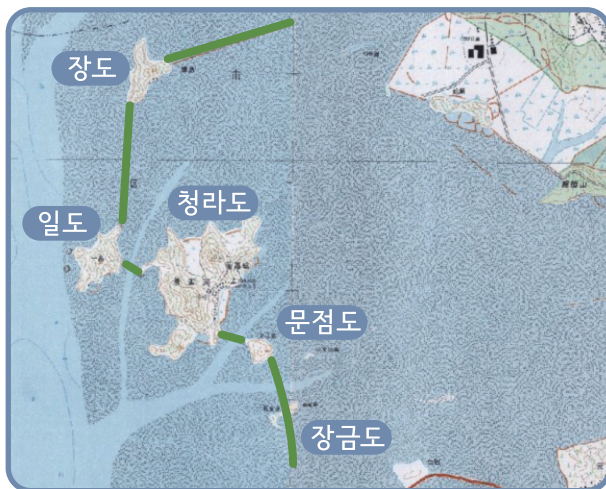
<표> 1960년대 경서동 농경지(밭) 간척사업

번호	간척면허 받은 사람	매립 면적(km <sup>2</sup> )	착수일	준공일
1	경서동 허정	22,417	-	63.4.22
2	에덴마을협동조합 조종관	1,685,958	-	68.6.21
3	회수동 김종윤 외 10명	145,587	65.1.24	65.3.21
4	경서동 김순창	6,595	-	65.2.19
5	경서동 김이배	2,896	-	65.4.2
6	경서동 김만철	3,031	-	65.4.7
7	경서동 허동	2,033	-	65.4.10
8	경서동 이취연	23,941	65.2.1	68.1.20
9	경서동 김준완	11,134	-	65.11.25
10	경서동 문임춘	1,818	-	66.1.20
11	경서동 심정기	26,400	-	65.5.4
12	경서동 함종운	35,273	-	68.11.14
13	경서동 강의현	10,767	66.12.10	67.12.1

출처: 인천공유수면매립 연대별 현황조사, 2001

이와 달리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난민 이명수씨 주도로 청라도 주변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도, 일도, 청라도, 문점도 등 서구 앞바다에 있는 7개의 섬을 연결하는 7,800m 길이의 제방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사에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참여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독이 자주 무너져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매립면허마저 취소되어 대기업인 동양건설에 그 권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 지도에 나타난 이명수 방죽

출처: 국토정보맵



보충설명

- 중일전쟁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일어난 전쟁.
- 태평양전쟁  
1942년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며 일어난 전쟁.
- 서곶출장소  
1940년 일제가 인천부지역을 확장할 때 부평군 서곶면이 인천부에 포함되면서 설치함.
- 구호  
재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일.

## 6 1960~70년대에 갯벌을 메운 자리에 대규모 공업단지와 발전소가 들어섰어요.

6.25전쟁을 겪은 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50년대 말 원조가 중단되자 작은 기업들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로 넘쳐났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1년 정부 주도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공업 중심의 산업화 국가로 바꾸자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생활수준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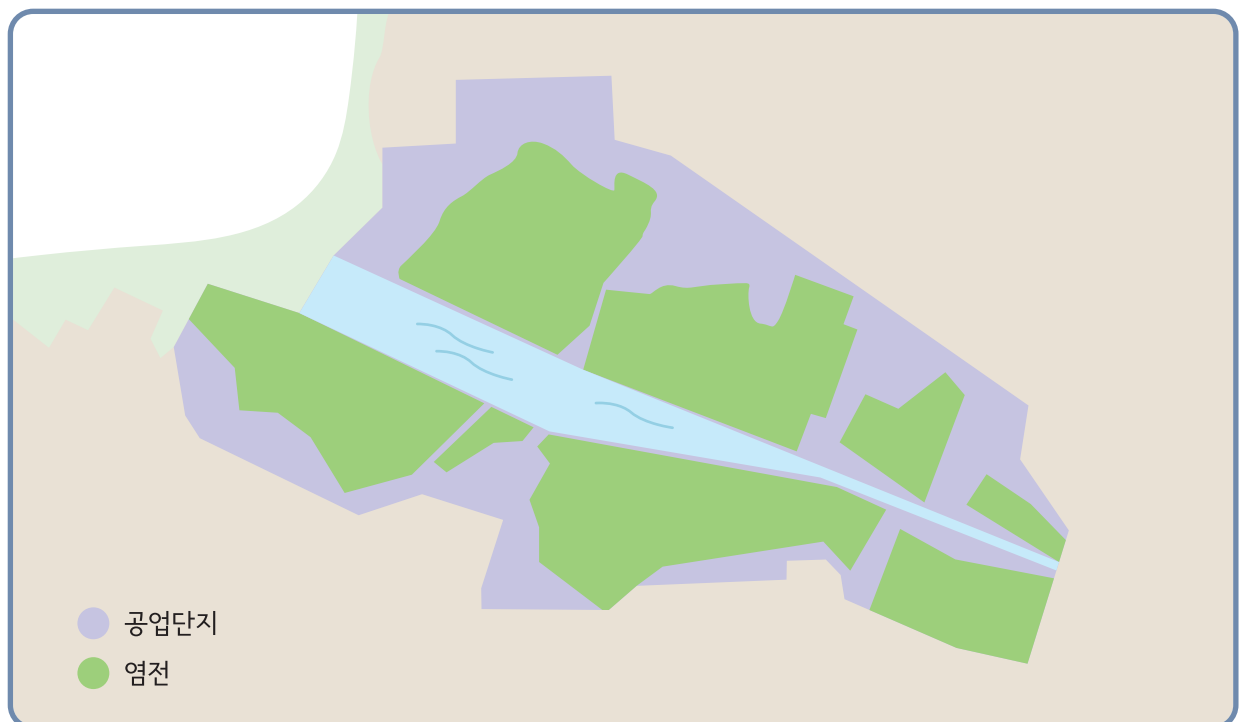
자본도 자원도 산업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철강, 섬유, 화학 등 경공업 위주 산업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 과정에서 고용을 증대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서울에 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1963년 영등포구 구로동에 처음으로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선박을 이용해 수출하였으므로 인천항이 다시 개발되었습니다. 인천에도 1965년 부평에 4공단 착공을 시작으로 1969년 주안의 폐염전을 매립한 5공단에 이어 1973년 6공단이 착공되어 1967년부터 197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 1) 주안의 폐염전과 그 주변을 매립하여 한국수출산업공단 5공단이 생겼어요.

공단을 조성하려면 넓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부평4공단의 경우 농사짓고 있는 땅을 수용하느라 원래 토지 주인과 마찰이 심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염전인 주안염전은 소금제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한 대한염업(주)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급과잉으로 경영난에 빠져 염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토지를 얻기가 수월한데다 서울과도 가까워 공단 조성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1967년 폐염전 60만 평에 70개 중소기업체 유치 계획을 주안공단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염전에서 공단으로



1960년대 주안염전 항공사진  
출처: 국토정보맵



주안공단으로 바뀐 후 항공사진  
출처: 국토정보맵



보충설명

- 5공단, 6공단  
한국수출산업공단의 5번째, 6번째  
공단이라 생긴 이름.

## 2) 가좌동에 인천기계산업단지가 생겼어요.

가좌동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인천의 기업인들이 모여 국가가 주도하는 수출공단과 달리 1969년에서 1972년까지 인천 공업인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하였으니 이것이 인천기계산업단지입니다. 인천기계산업단지는 도심권에 흩어져있던 중소기업형 기계공장을 이주시켜 집단화하고 도시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구 가좌동과 미추홀구 도화동의 염전 매립지에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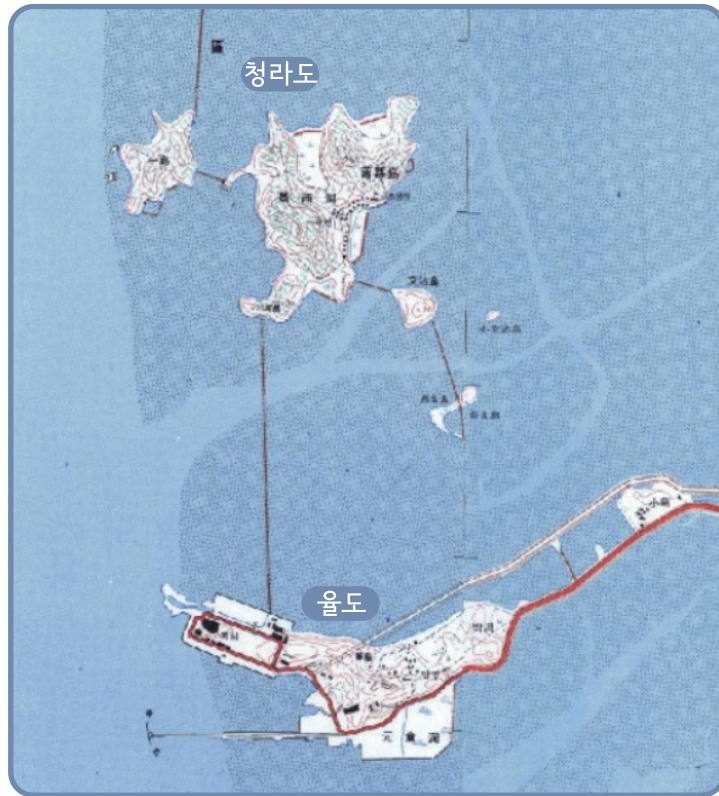
### 3) 울도와 청라도를 매립한 땅에 발전소가 들어섰어요.

해안가에서 보면 밤알처럼 생겼다 해서 밤염이라고도 한 울도는 해안가와 그리 멀지 않아 썰물이 되면 섬까지 갯벌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울도와 가까이 있는 목섬 사이 바다를 매립하여 1970년 인천화력발전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1972년에는 울도에 민간회사가 건설한 경인화력발전소도 들어섰습니다.

1990년대에 청라도와 일도를 매립한 땅에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와 신인천복합화력발전소도 들어서서 서구 앞바다를 매립한 땅에는 모두 4개의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이들 발전소는 인천과 수도권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화력발전소 준공식(1968년)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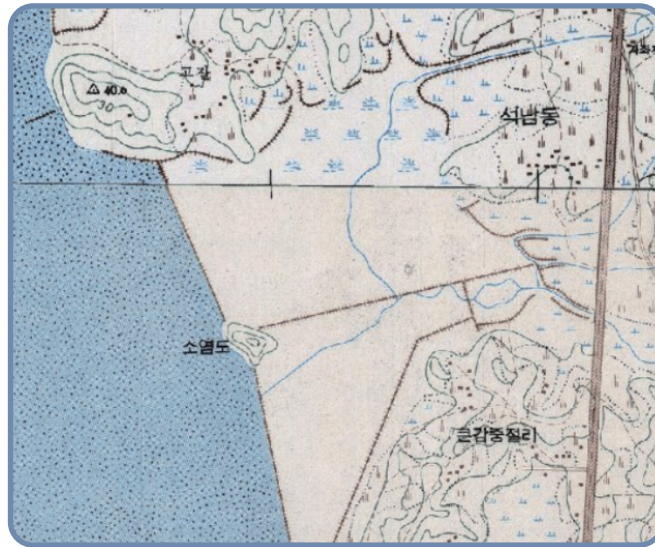


1980년대 울도와 청라도  
출처: 국토정보맵

울도와 목섬 사이 바다는 이미 매립되어 발전소가 들어섰고 청라도와 일도는 아직 매립 이전의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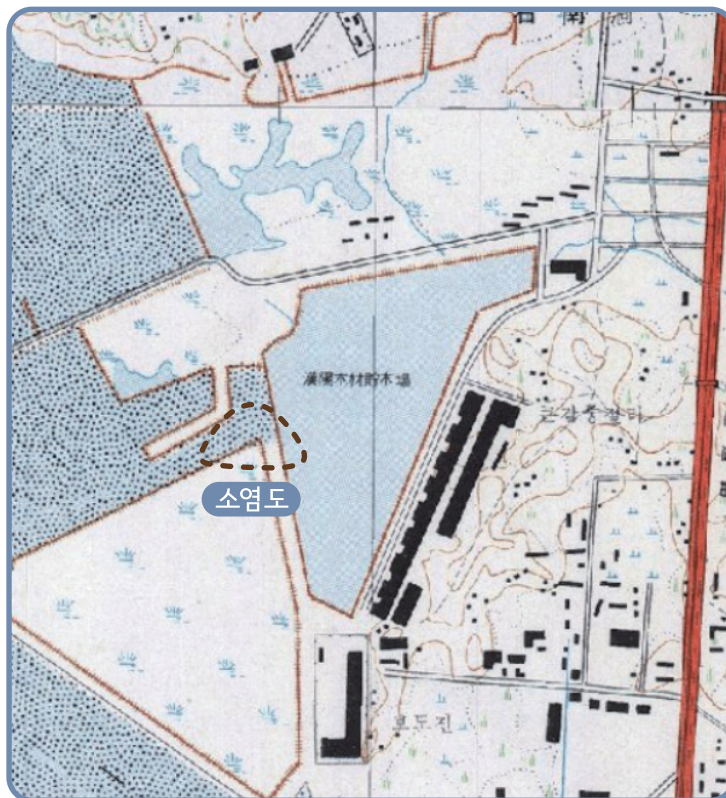
#### 4) 소염도 주변을 매립하여 목재단지를 만들었어요.

1975년 동화개발 등이 석남동 해안에서 앞바다의 작은 섬 소염도 일대 36만여 평을 매립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목재단지가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구회사 대부분이 들어왔습니다. 목재단지 앞에는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원목을 보관하는 저목장도 만들었습니다.



매립 이전의 소염도

출처: 국토정보맵



매립 이후 사라진 소염도

출처: 국토정보맵

## 5) 사도를 매립한 땅에 주물공단이 들어섰어요.

사도는 경서동 앞의 작은 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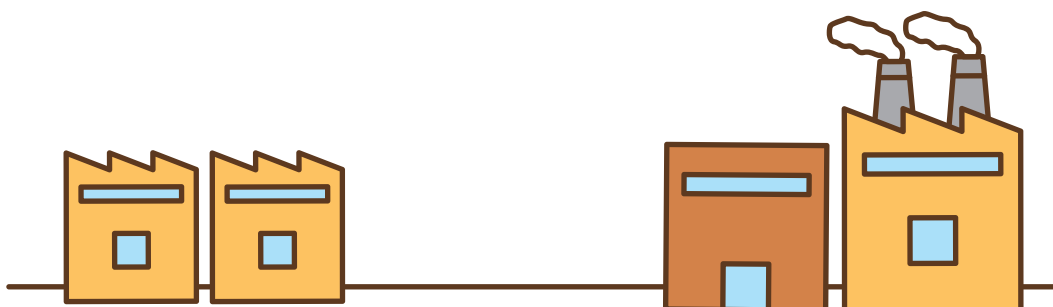
1970년대 초 극동건설이 매립해서 자회사인 대왕화성이 들어섰습니다. 대왕화성 앞쪽의 땅은 적재창고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은 1995년에 주물공단이 들어서고 이후 서부산업단지로 바뀌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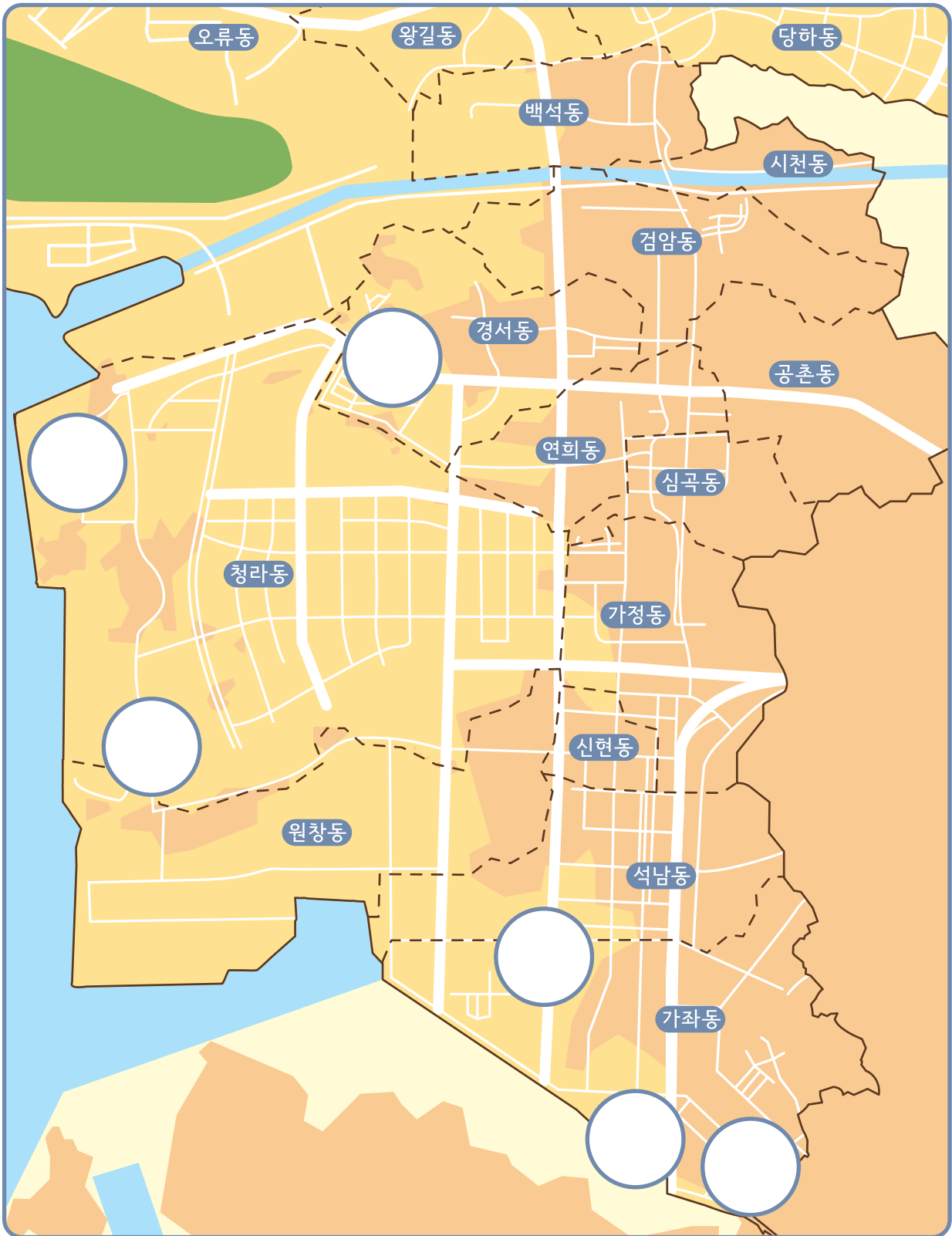


1970년대 매립된 사도

출처: 국토정보맵



앞의 설명을 읽고 지도에 각 산업단지 위치에 알맞은 번호를 쓰세요.



- |                   |            |                  |
|-------------------|------------|------------------|
| ① 주안5공단(주안국가산업단지) | ② 인천기계산업단지 | ③ 울도화력발전소        |
| ④ 일도복합화력발전소       | ⑤ 인천목재산업단지 | ⑥ 경인주물공단(서부산업단지) |

## 7 1980년대 대규모 갯벌 매립으로 서구의 해안선은 직선으로 바뀌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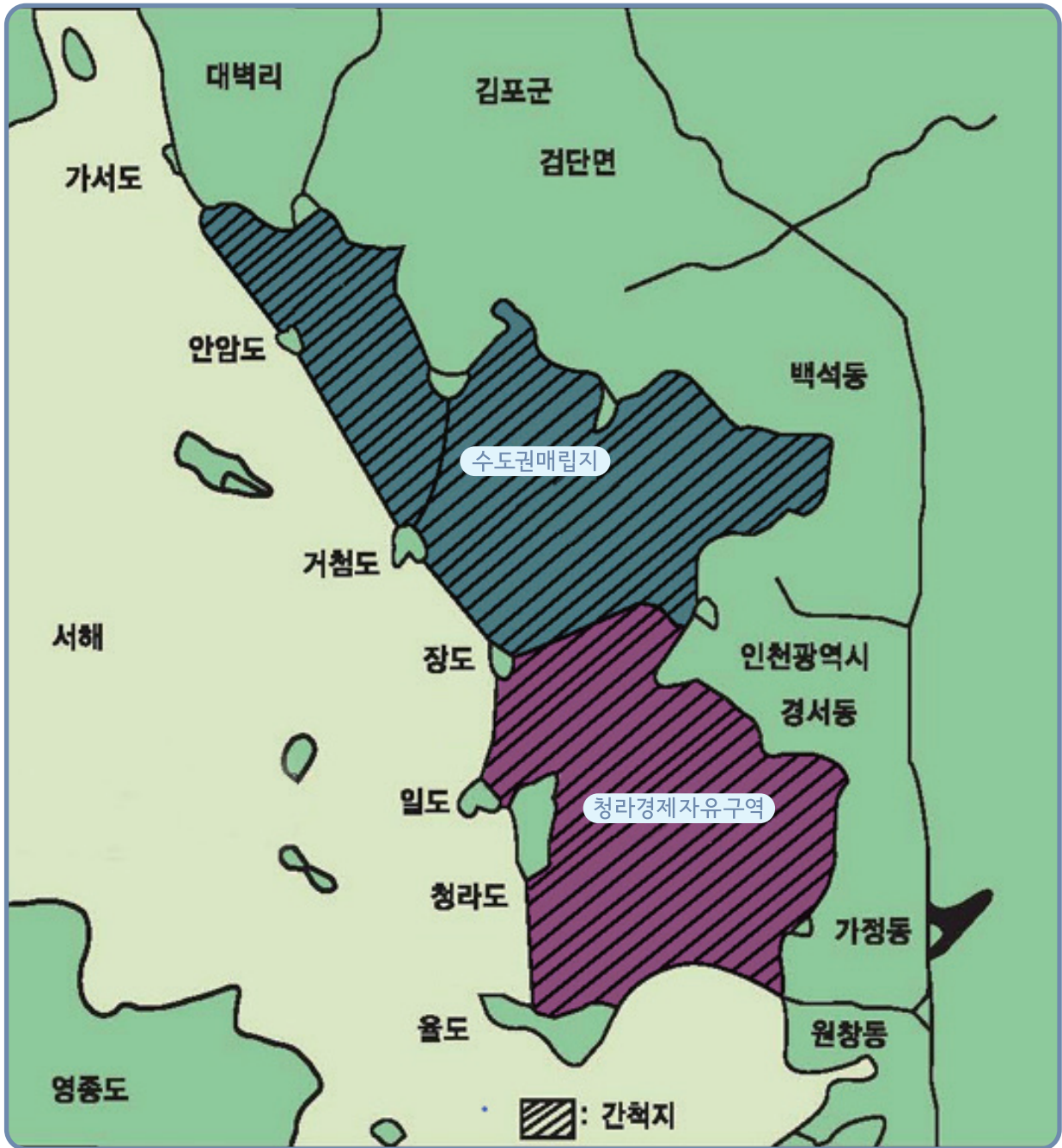
1980년대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갯벌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부터 우리나라의 건설기업들이 중동에 진출하여 경제발전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중동경기가 침체되자 건설업체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해외의 건설장비들이 할 일이 없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은 국내 경제에도 이어져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해외의 건설장비가 국내 간척사업을 위해 들어오면 관세를 물지 않는다는 대책을 내고 나아가 민간기업도 간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때 서구와 김포지역의 광대한 갯벌을 매립하겠다고 나선 기업이 동아건설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은 동아건설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공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경기도 김포 양촌면 앞의 가서도에서 안암도, 거침도, 장도, 일도, 청라도, 울도에 이르는 372km<sup>2</sup>(1,126만 평)의 거대한 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 앞바다의 대부분의 섬은 육지로 변해서 사라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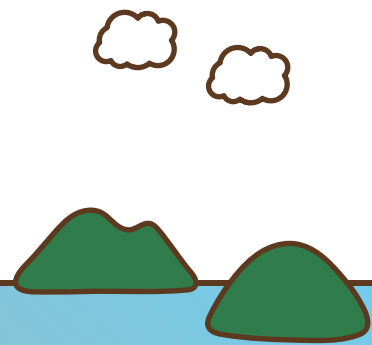
가서도에서 장도에 이르는 매립지 절반에 해당하는 구역은 수도권매립지가 되었고, 장도에서 울도에 이르는 구역은 농업용지와 발전 소용지가 되었습니다. 농업용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IMF 구제금융사태로 동아건설이 부도처리가 되며 농어촌진흥공사에 매각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이 지역은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어 새롭게 변모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서구 땅의 절반 가량은 바다를 간척하여 새롭게 생긴 땅입니다.





1980년대 대규모 매립으로 달라진 해안선과 사라진 섬들



# 3 지도로 보는 서구의 해안

우리 동네는 어디까지 바다였을까요?  
100년 전 지도와 비교해 보세요.

아래 약 100년 전 지도를 보고 오른쪽 페이지 현재의 지도에 해안선을 그려보세요.

가정동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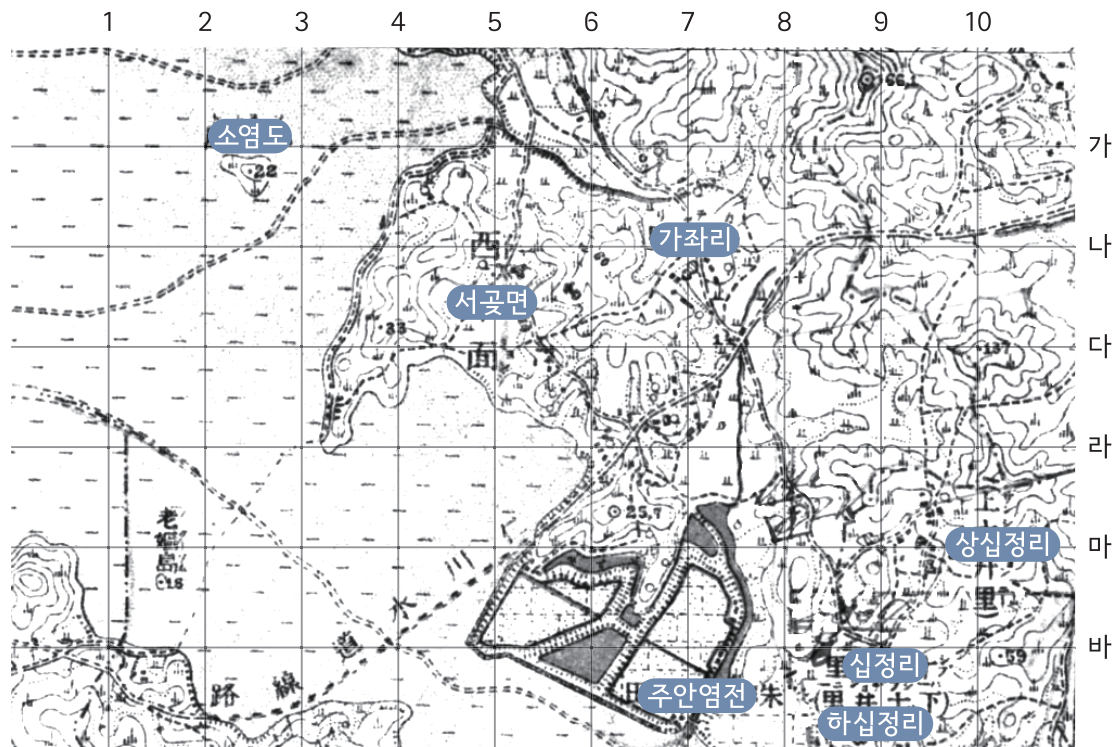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가석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가정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가원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루원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봉수초등학교 |
| <input type="checkbox"/> 서구문화회관 | <input type="checkbox"/> 가정중앙시장 | <input type="checkbox"/> 가정역(2호선)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

1 2 3 4 5 6 7 8 9 1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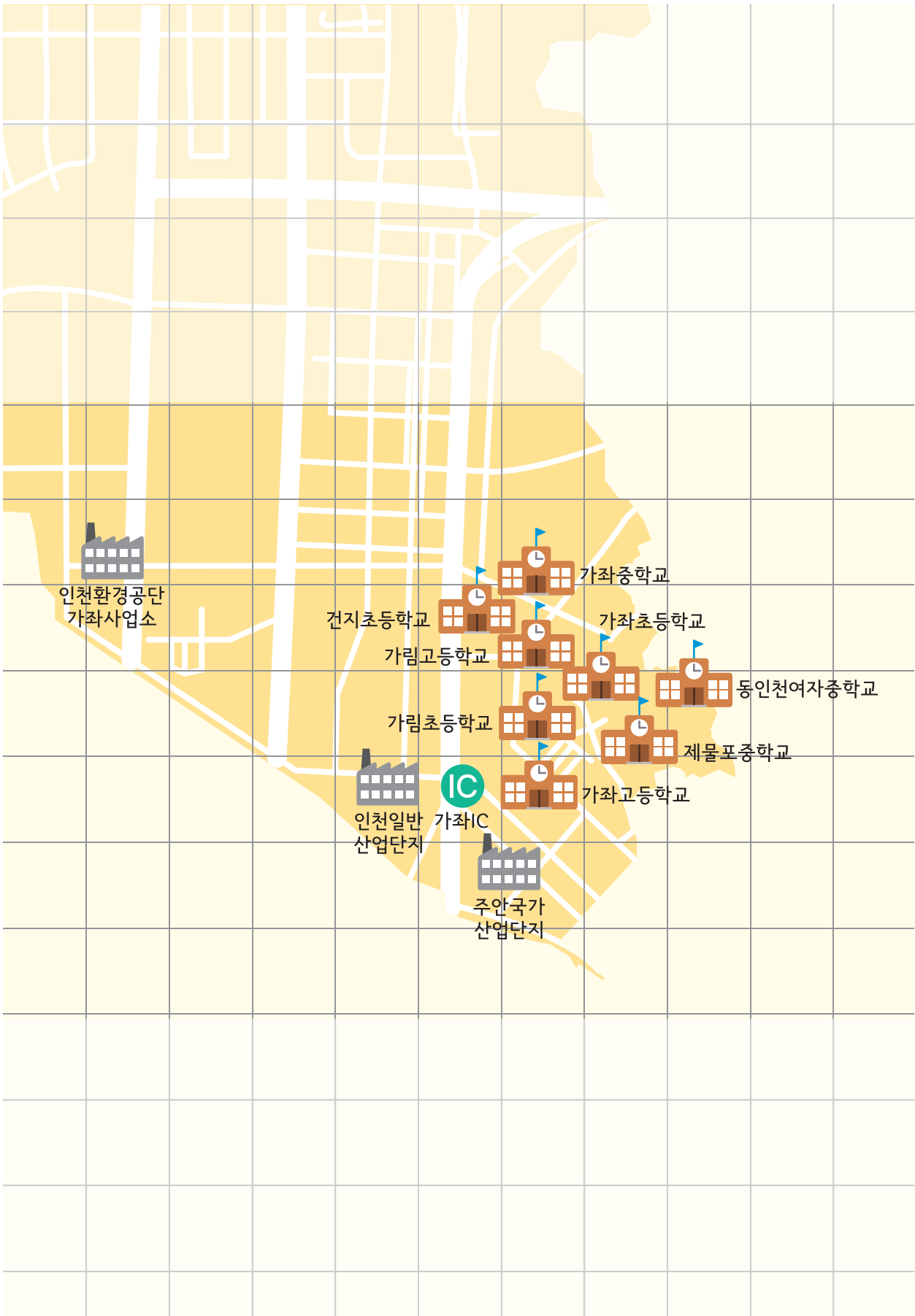
# 가좌동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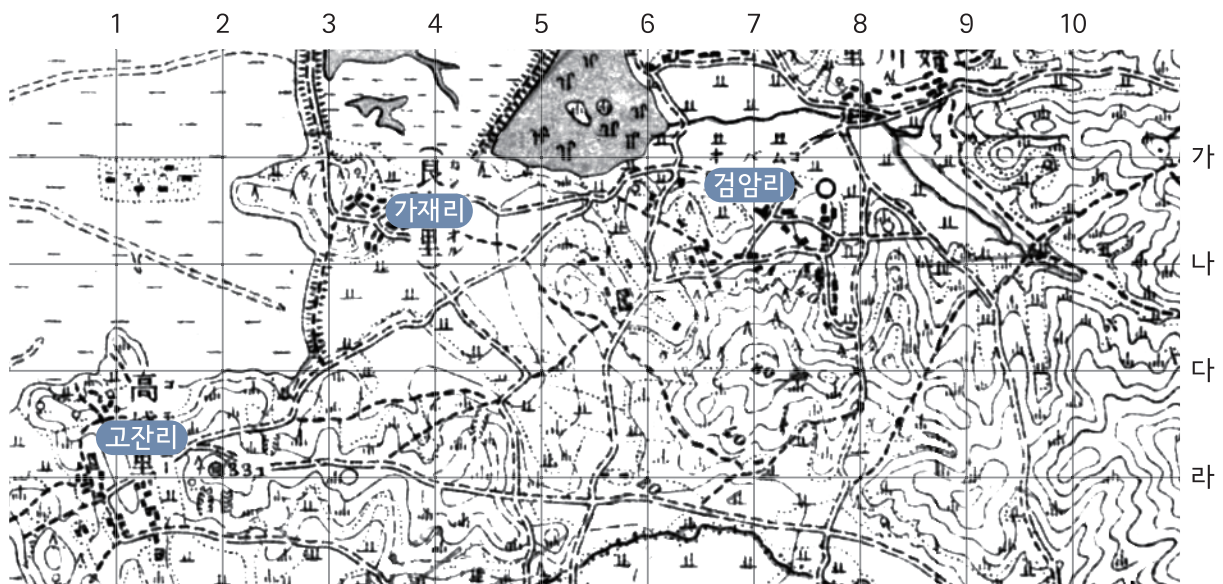
- |                                   |                                   |                                      |                                   |
|-----------------------------------|-----------------------------------|--------------------------------------|-----------------------------------|
| <input type="checkbox"/> 가림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가림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가좌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가좌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가좌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건지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제물포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동인천여자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주안국가산업단지 | <input type="checkbox"/> 인천일반산업단지 | <input type="checkbox"/> 인천환경공단가좌사업소 |                                   |
| <input type="checkbox"/> 가좌 IC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                                   |

1 2 3 4 5 6 7 8 9 10



가  
나  
다  
라  
마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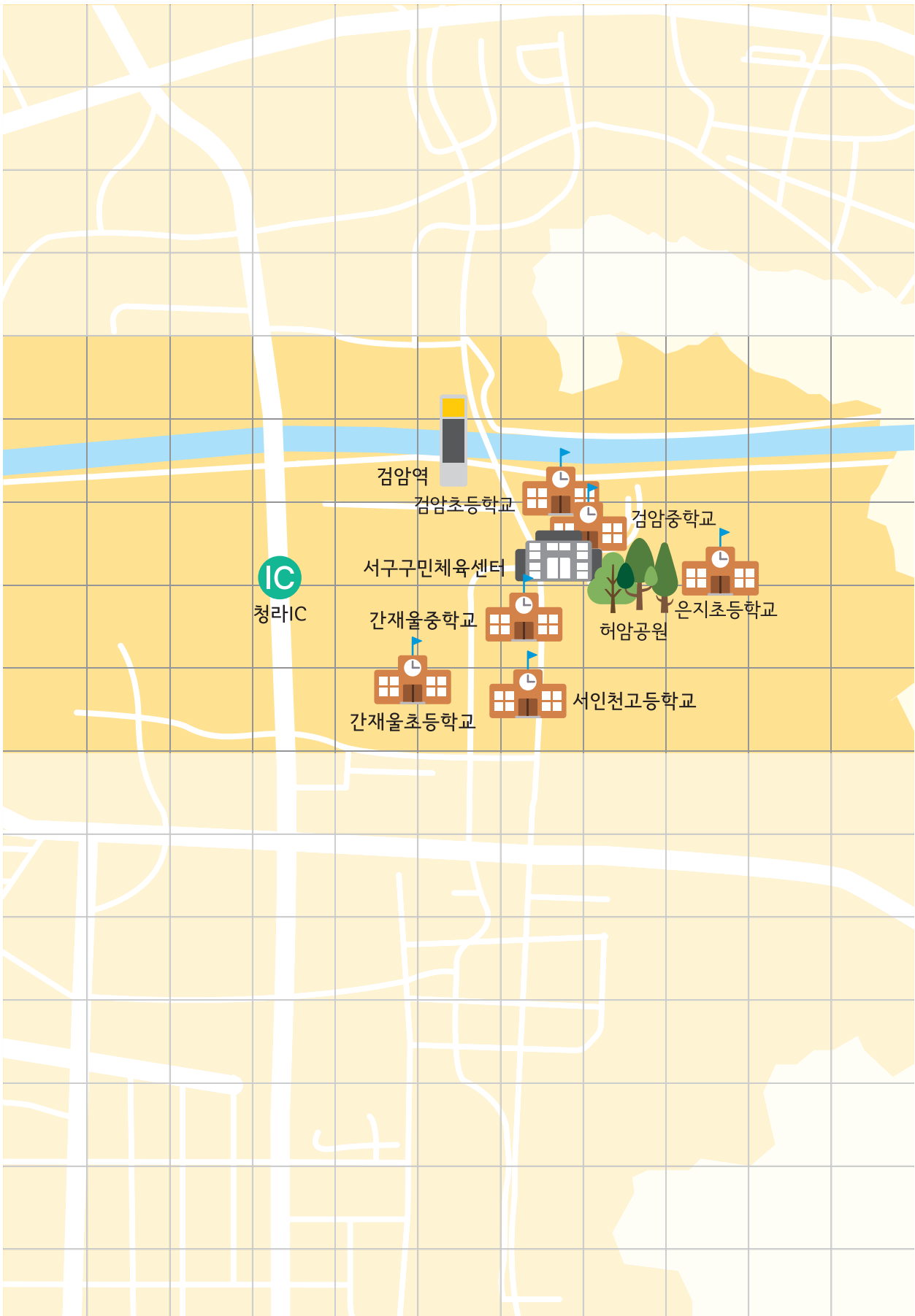
검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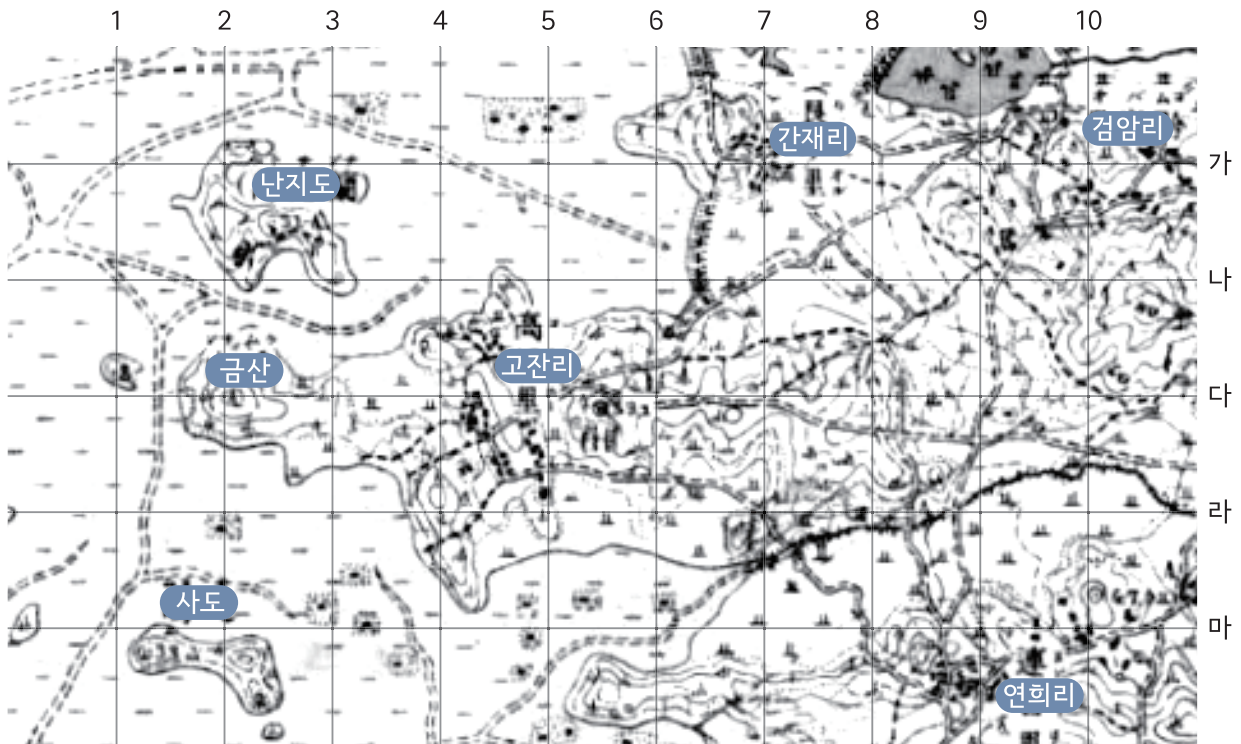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간재울초등학교    간재울중학교    검암초등학교    검암중학교    서인천고등학교
- 은지초등학교    청라IC    허암공원    검암역    서구구민체육센터    우리집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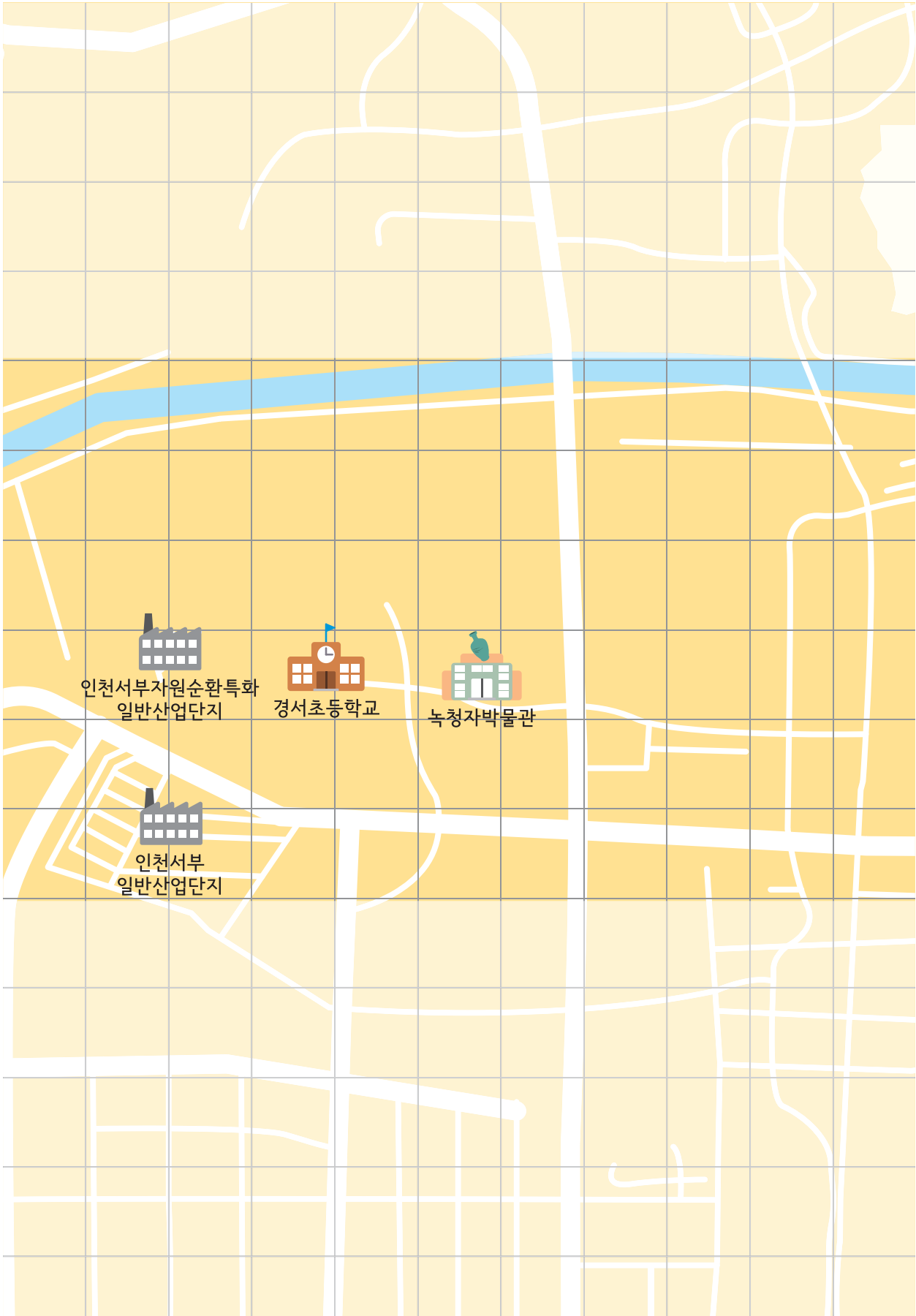
가  
나  
다  
라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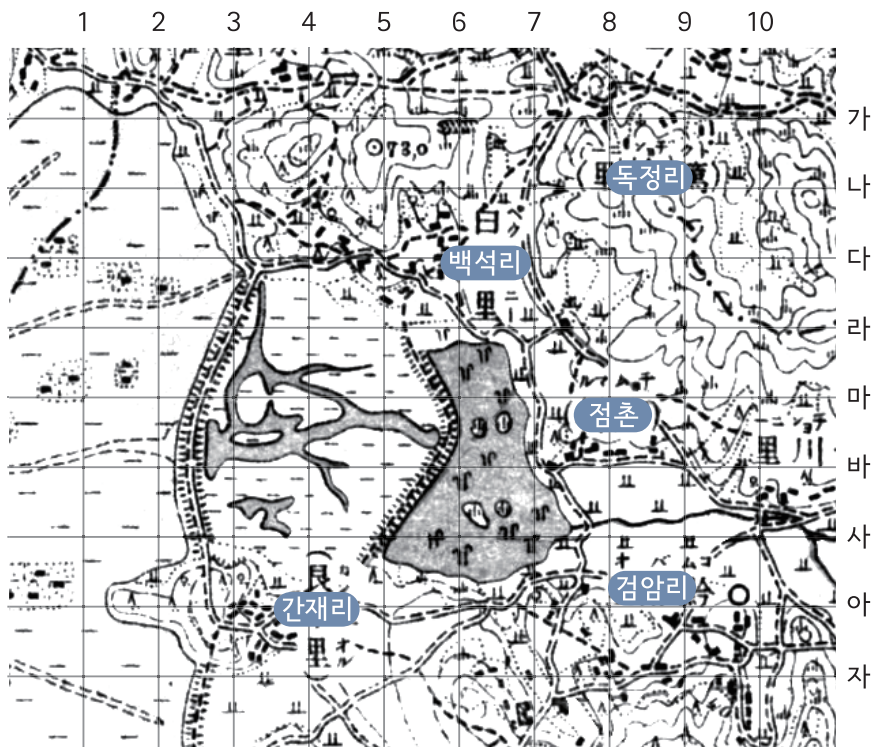
- |                                 |                                     |   |
|---------------------------------|-------------------------------------|---|
| <input type="checkbox"/> 경서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인천서부일반산업단지 | <input type="checkbox"/>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일반산업단지 |
| <input type="checkbox"/> 녹청자박물관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

1 2 3 4 5 6 7 8 9 10



가  
나  
다  
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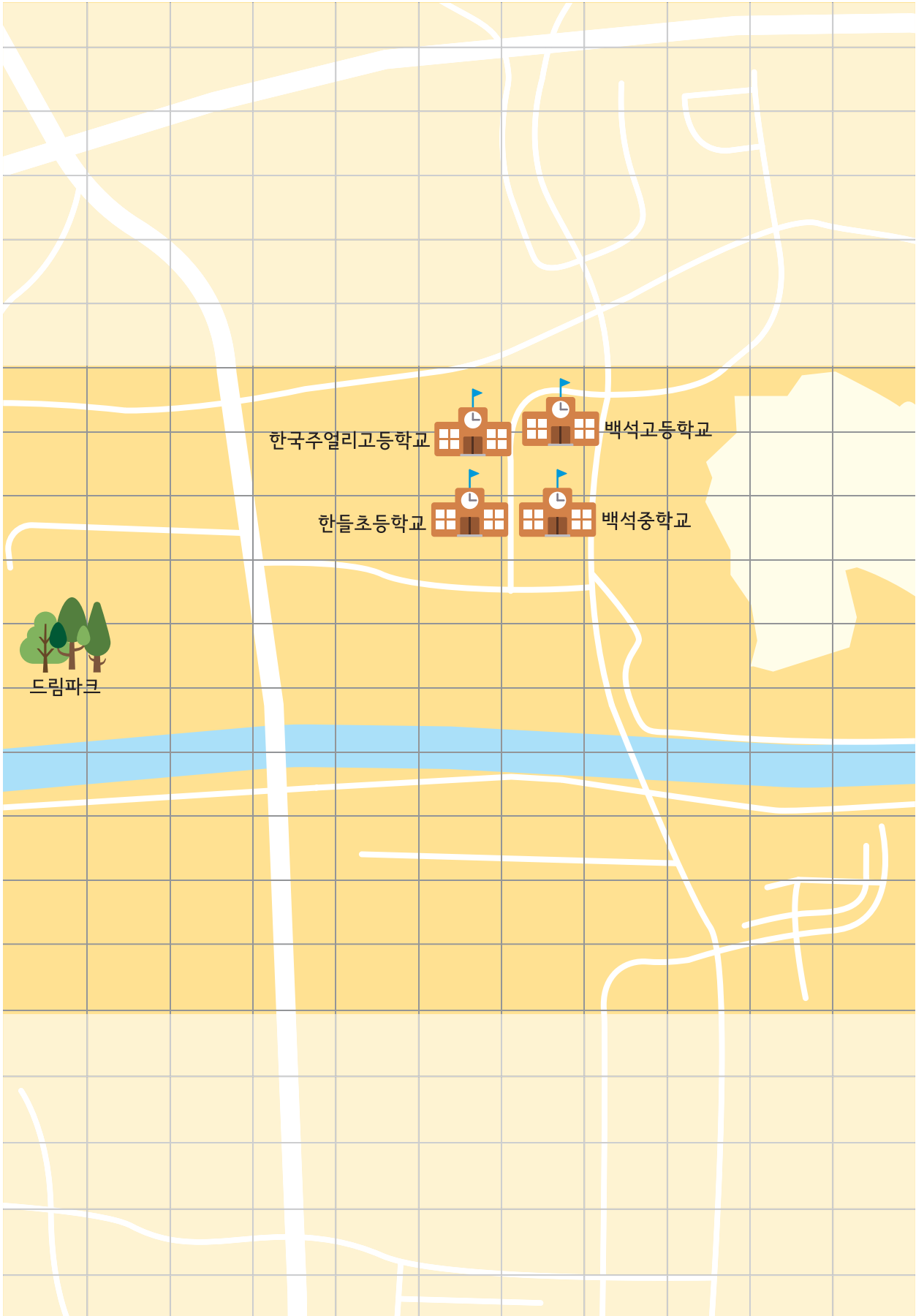
백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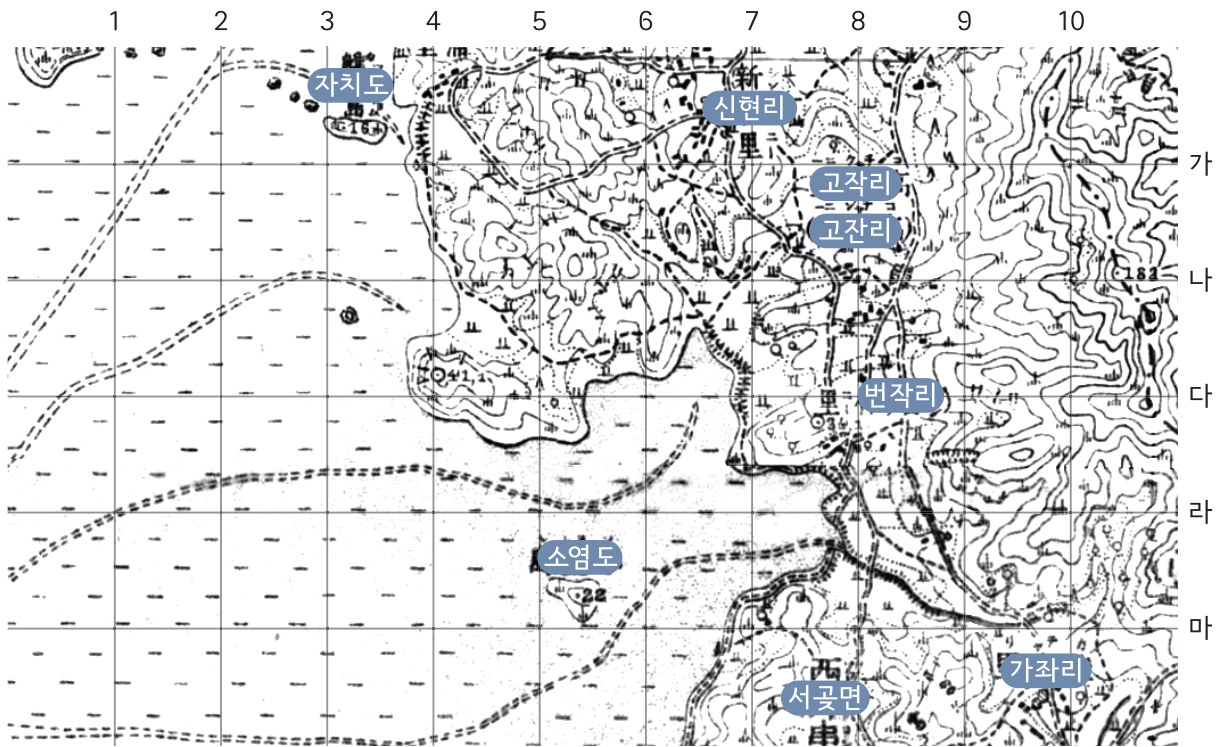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한국주얼리고등학교  
  한들초등학교  
  드림파크  
  우리집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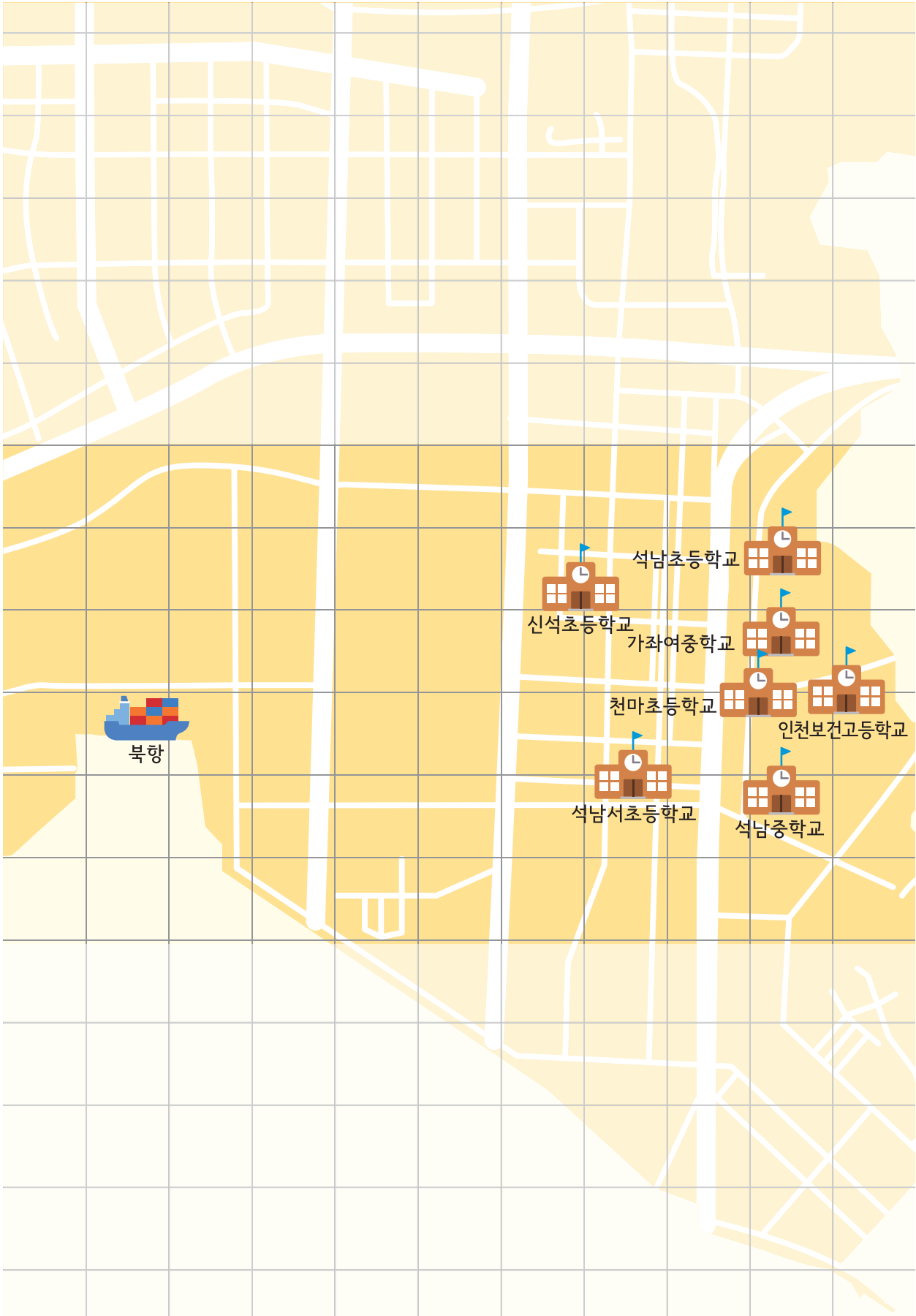
# 석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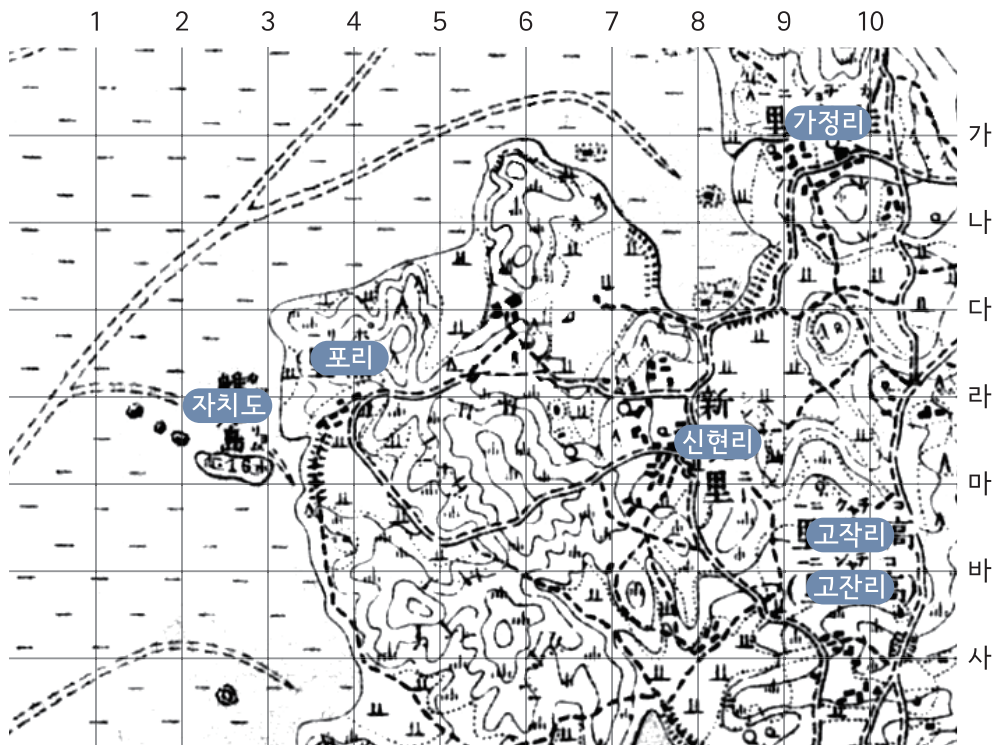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가좌여자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석남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석남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석남서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신석초등학교 |
| <input type="checkbox"/> 인천보건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천마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북항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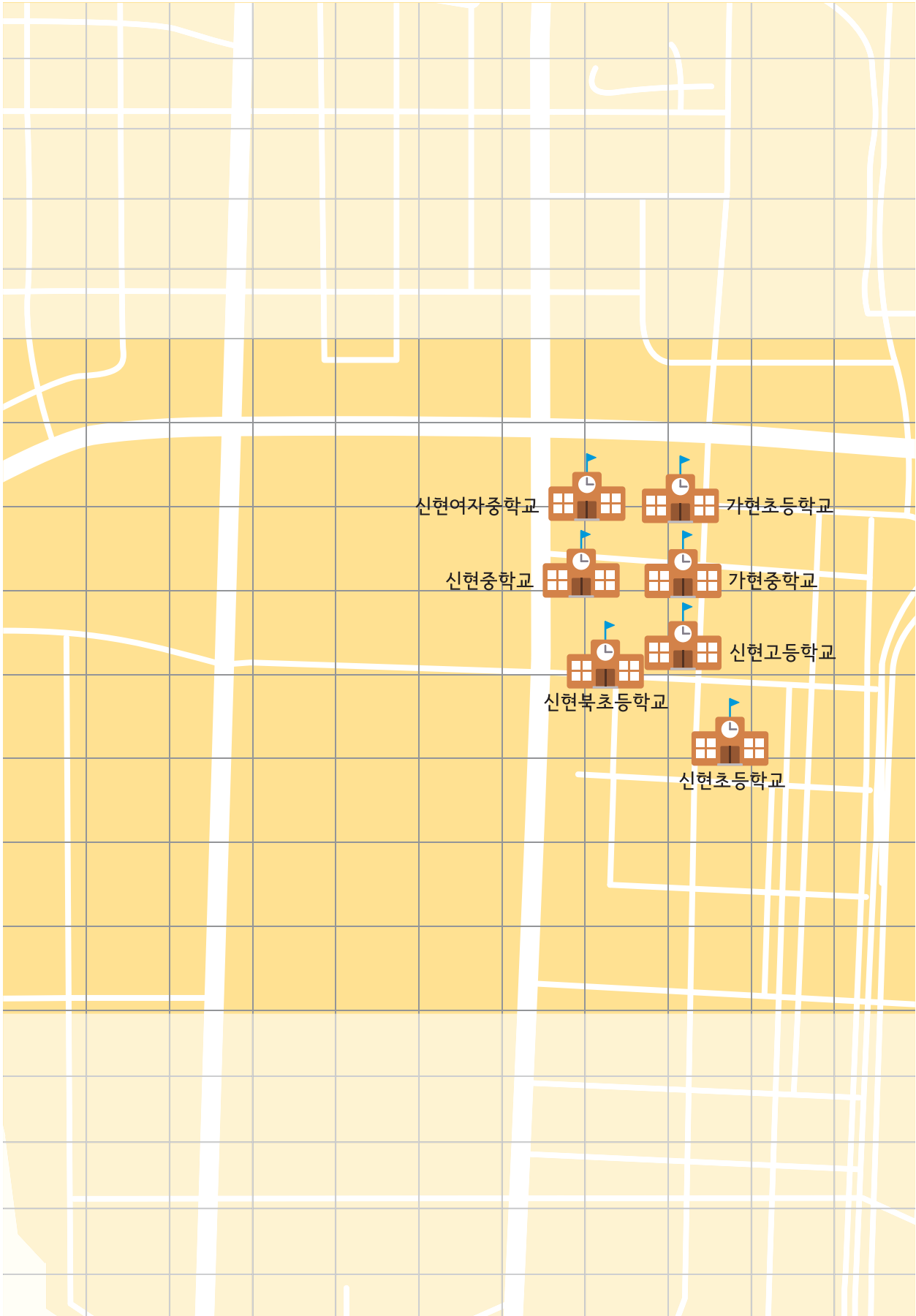
가  
나  
다  
라  
마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가현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가현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신현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신현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신현여자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신현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신현북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                                  |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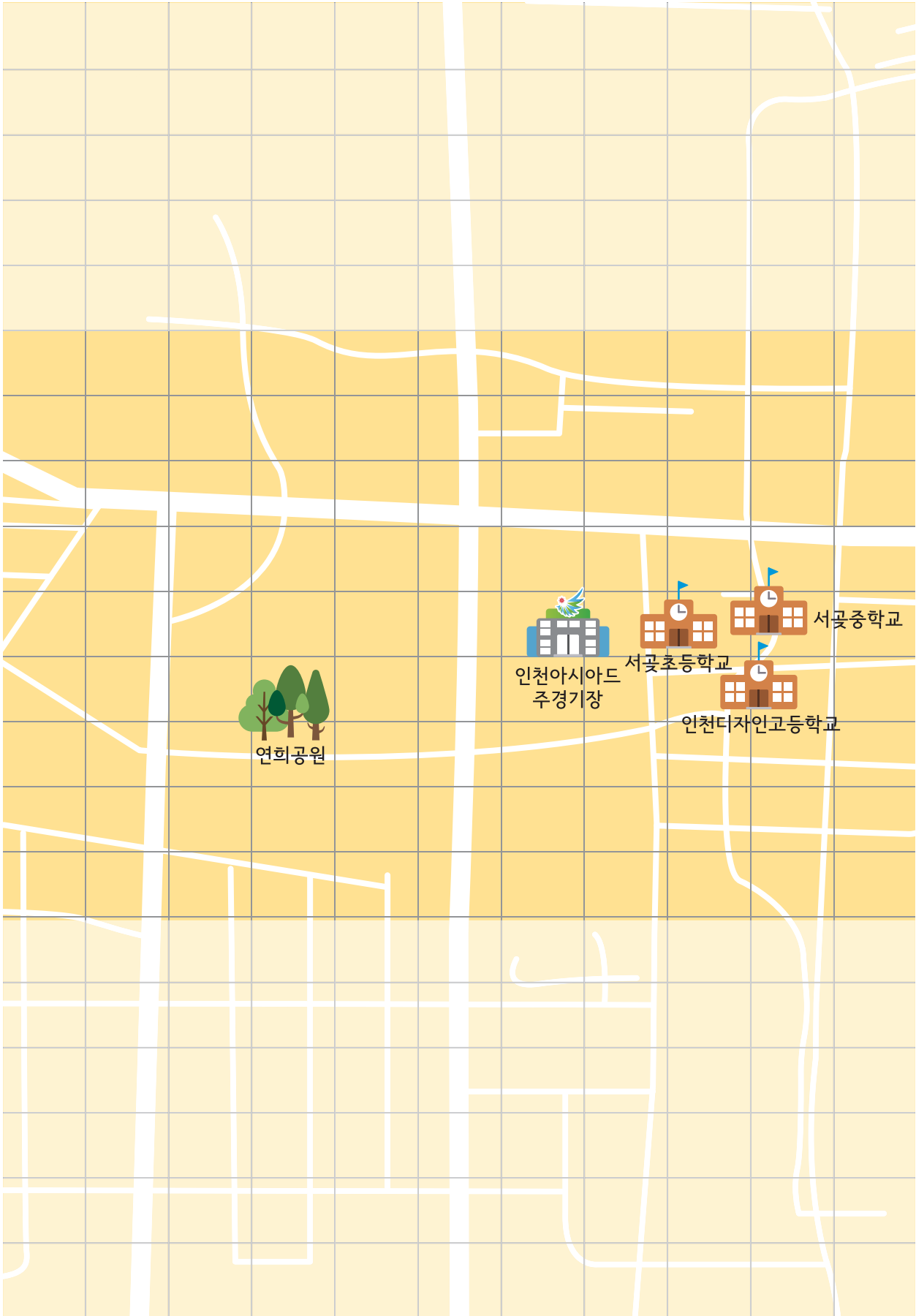
연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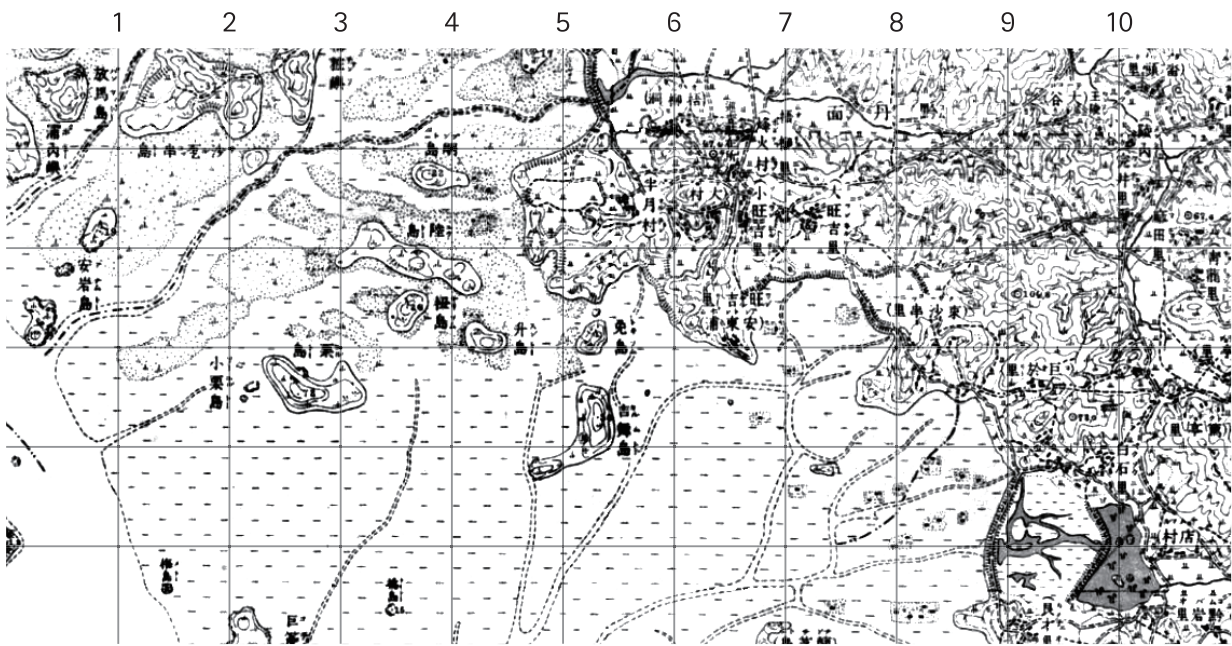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서곶초등학교       서곶중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 연희공원       우리집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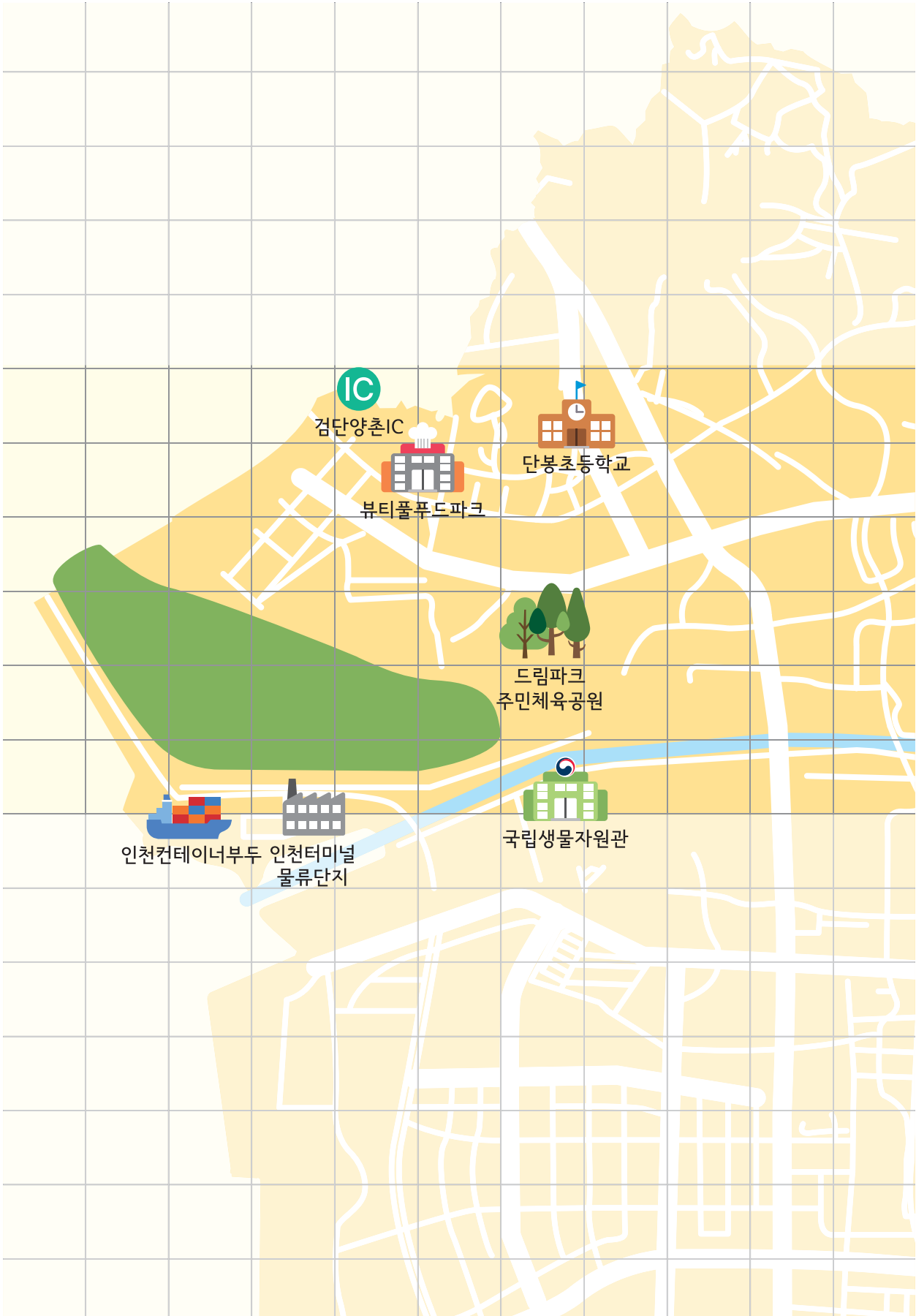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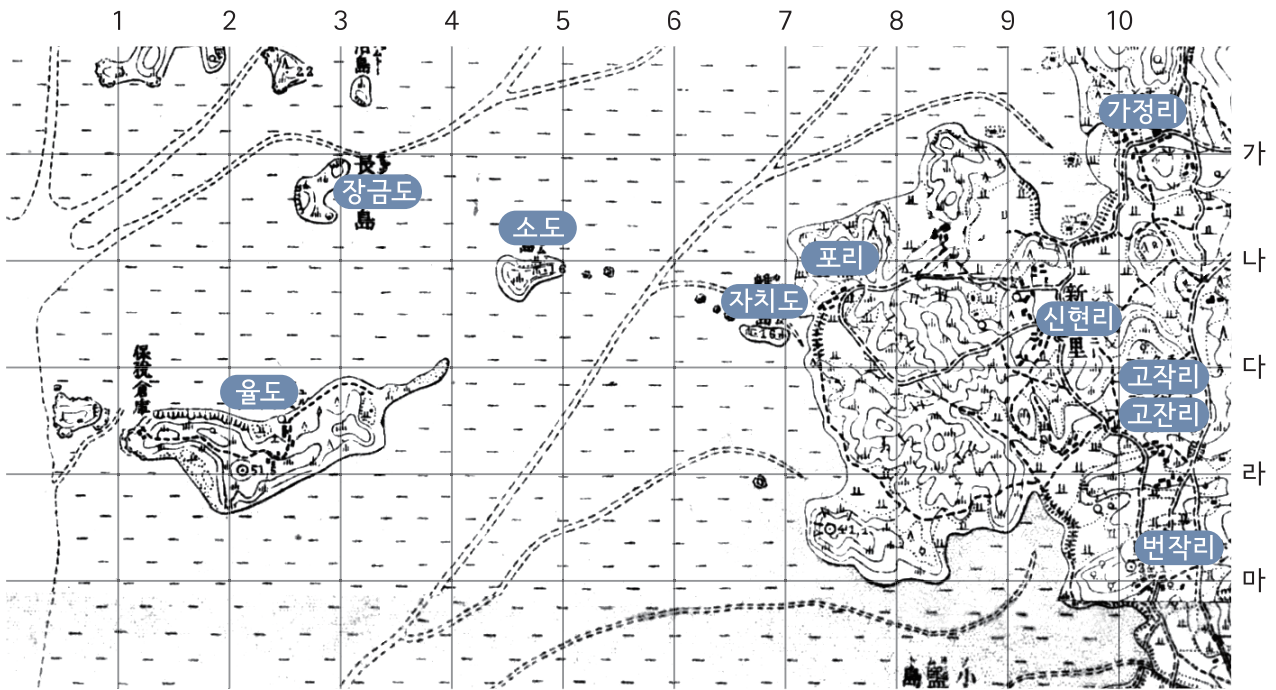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                                   |                                    |                                     |                                 |
|-----------------------------------|------------------------------------|-------------------------------------|---------------------------------|
| <input type="checkbox"/> 단봉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뷰티풀푸드파크   | <input type="checkbox"/> 드림파크주민체육공원 | <input type="checkbox"/> 검단양촌IC |
| <input type="checkbox"/> 인천컨테이너부두 | <input type="checkbox"/> 인천터미널물류단지 | <input type="checkbox"/> 국립생물자원관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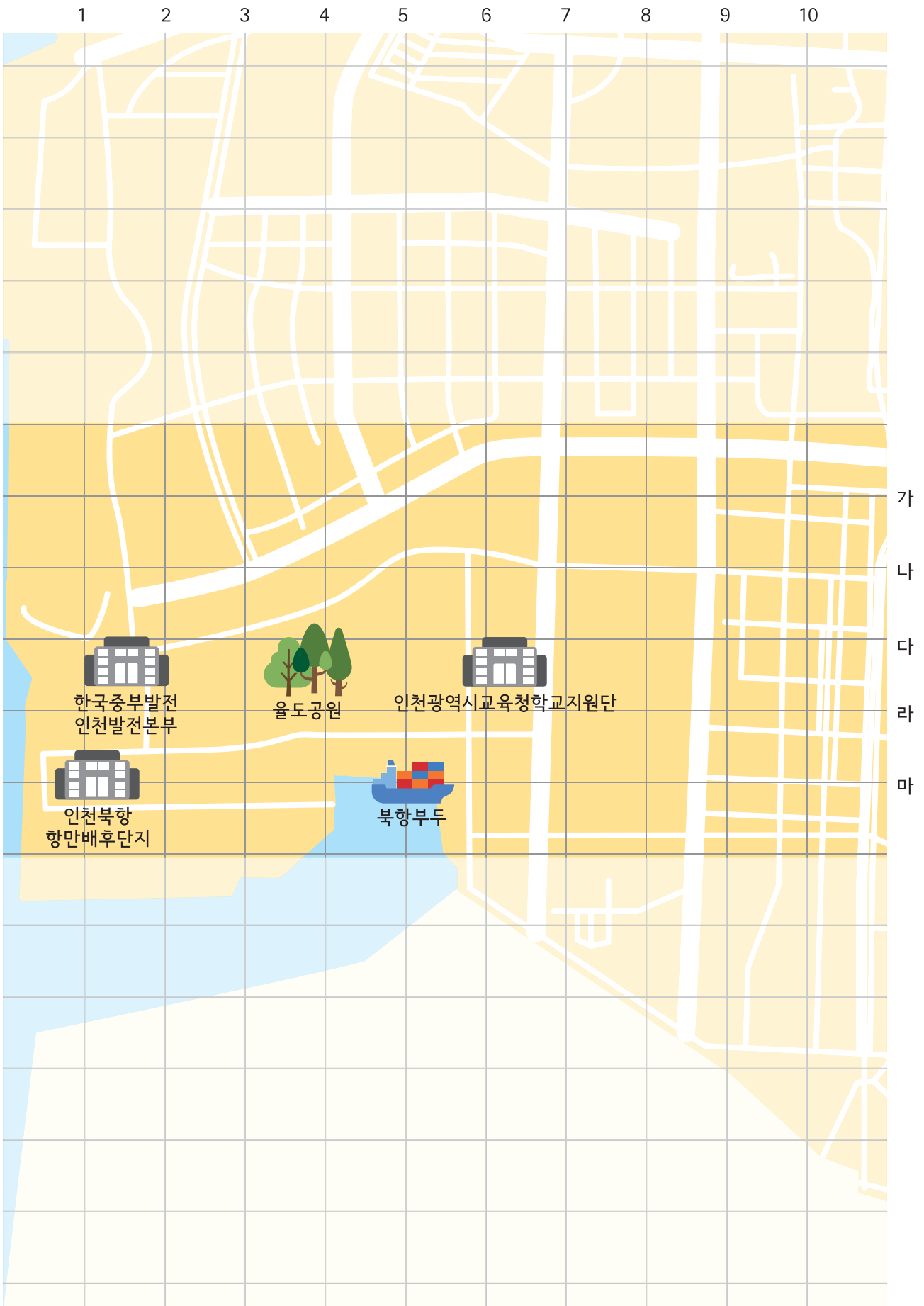


가  
나  
다  
라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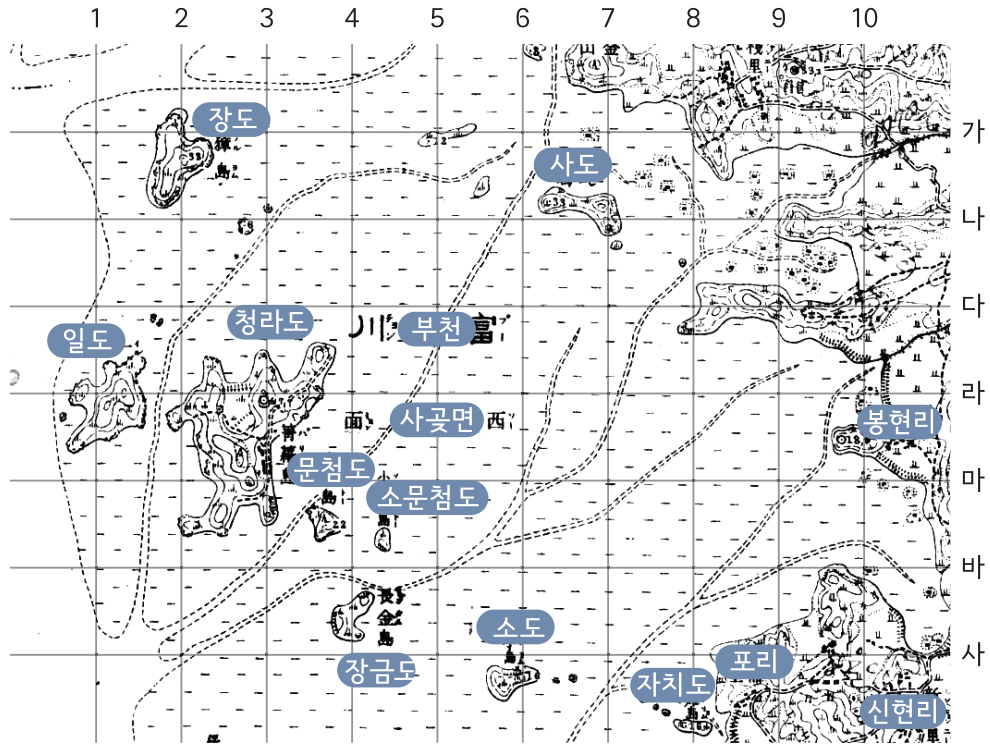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  |                               |                               |                                       |
|--|-------------------------------|-------------------------------|---------------------------------------|
|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input type="checkbox"/> 북항부두 | <input type="checkbox"/> 울도공원 | <input type="checkbox"/> 한국중부발전인천발전본부 |
| <input type="checkbox"/> 인천북항항만배후단지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                                       |



청라동



100년 전, 바다에 있던 시설을 찾아 ☑체크하세요.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도담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청라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초은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초은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초은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청라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청라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청람초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청호초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청일초등학교   |
| <input type="checkbox"/> 해원중학교   | <input type="checkbox"/> 해원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인천체육고등학교 | <input type="checkbox"/> 청라달튼외국인학교    | <input type="checkbox"/> 인천경연초중학교 |
| <input type="checkbox"/> 인천해양경찰서 | <input type="checkbox"/> 서인천세무서 | <input type="checkbox"/> 인천로봇랜드   | <input type="checkbox"/> 인천환경공단청라생태공원 | <input type="checkbox"/> 우리집      |

1 2 3 4 5 6 7 8 9 1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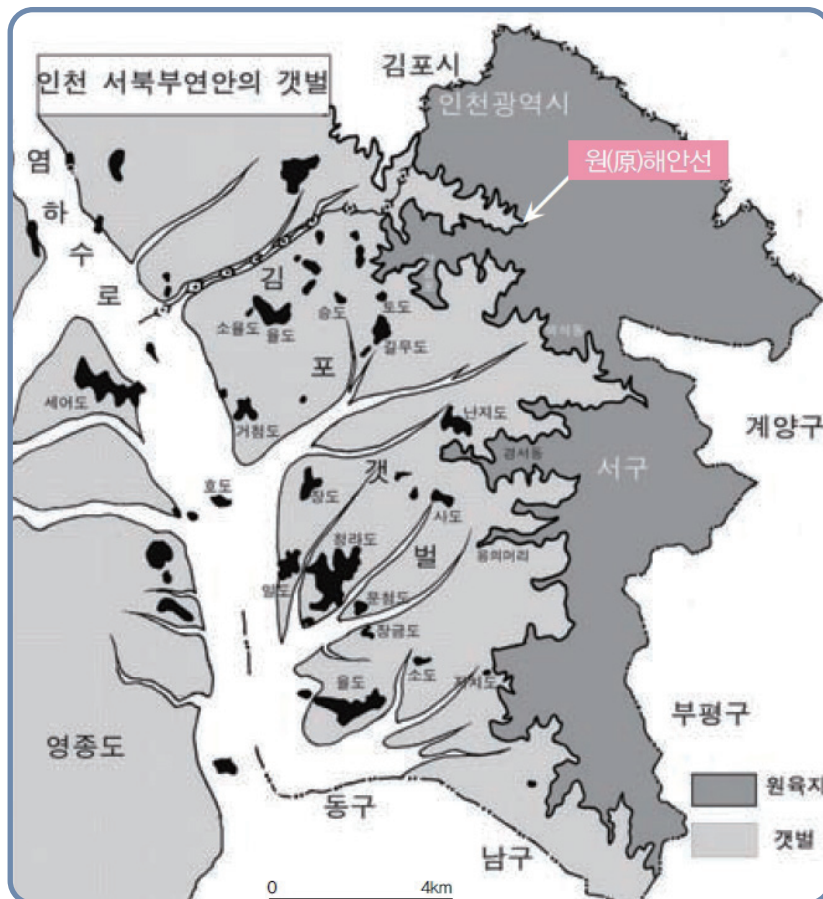
# 4

## 문화로 보는 서구의 섬과 해안

우리가 인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시골에서의 조용한 삶을 꿈꾸거나 외국의 도시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이나 낯선 곳에 대한 낭만적인 동경, 즉 '다른 곳이라면 더 멋지고 특별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에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문학 등을 공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 서구가 고향인 이원규 소설가는 2014년 7월 31일 『인천일보』에 <매립으로 사라진 푸른 섬 '청라' 국제도시로 다시 태어나>라는 제목으로 서구의 사라진 섬과 갯벌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따라 매립으로 사라진 섬들과 갯벌, 그리고 남은 섬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 보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는 갯벌 매립으로 생긴 인천의 신생 지역이자 이 나라의 국제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1991년 동아건설에서 시행한 간척사업이 준공되어 동아매립지라고 불렀다. 매립 목적대로 농업용지로 가지 않고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인천의 총아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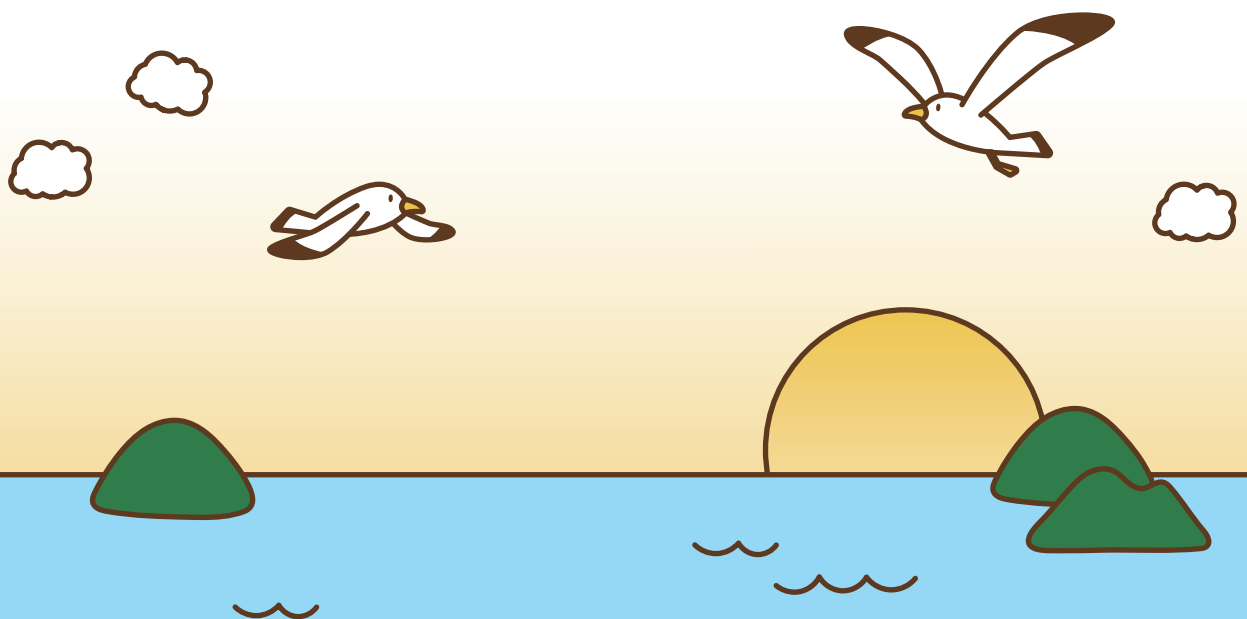
지금의 청라지구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있었다. 청라도, 사도(뱀섬), 일도, 장도(노름), 곰의바위, 자치도(까투럼), 울도(밤염) 소염도, 세어도, 장금도, 목섬, 호도(범염) 등이다.

서쪽의 바다는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밀물과 썰물이 빠르게 드나들었다. 섬들은 밀물 때는 바다에 잠겨 푸른 수평선 끝에 보이기도 하고 썰물 때는 망망한 갯벌의 끝에 암전히 앉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를 이용하여 드넓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를 잡았으며, 썰물을 따라서 섬까지 걸어가 한두 시간 일을 보고 밀물에 앞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앉는 갯벌에서 게가 무진장으로 잡혔다. 초여름 썰물의 밤이면 거의 모든 주민이 햇불을 들고 갯벌로 나가 나문재 가지에 암수가 짝을 지어 그네를 타는 게를 잡아 망태에 담았다. 식은 죽 먹기처럼 게 잡기가 쉬워서, 다음날 아침이면 연희동에서만 4t 트럭에 게를 담은 지루가 가득 실렸다.

지금은 청라국제도시라고 말하는 드넓은 지역이 예전에는 많은 섬과 갯벌로 이루어진 바닷가 지역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안선도 복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과 섬들을 제방으로 연결하고, 매립하면서 해안선은 직선화되었고, 갯벌에 살고 있던 다양한 생물들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문학과 신문 등에 기록되어 있는 글들을 통해 인천광역시 서구의 섬과 갯벌 등 해안지역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 정서진호를 타고 세어도로 떠나요~

세어도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속해 있는 하나 남은 유인도입니다. 세어도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합니다. 필자가 2013년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가을이라 맑은 하늘과 선착장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선착장 보수공사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세어도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경인아라뱃길 아라서해갑문에서 정서진호를 타고 가는 섬으로의 여행, 주변의 크고 작은 섬과 넓게 펼쳐진 갯벌은 섬의 낭만을 느끼기에 충분하답니다.

만석동 부두에선  
 통통배도 귀하구나  
 영종대교 아래  
 조각파도를 업고  
 세어도를 두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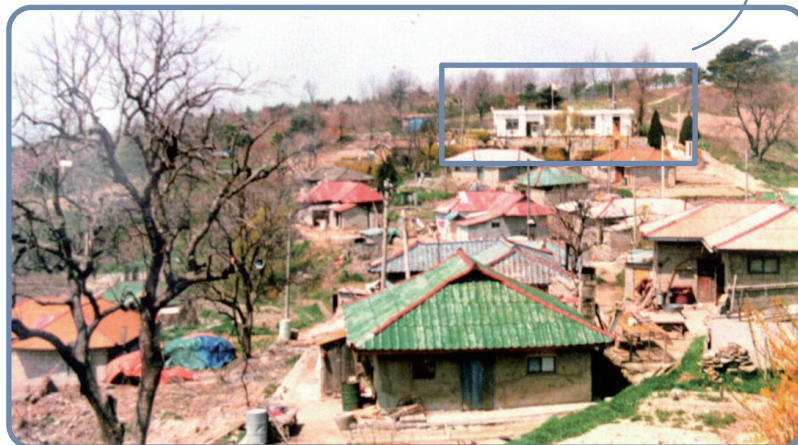
무심한 선착장  
 야박한 갯벌 괴괴한 바람  
 열기설기 서글픈 부락  
 분교도 떠난 마당에  
 어형정(於亨亭)은 무엇인가

야트막한 언덕으로  
 잡목 사이 오솔길  
 까투리는 놀라 튀고  
 황혼마저 숨어든다

그래도  
 꿈을 꾸는 비도에  
 바다도 보조한다

임영준, 「세어도」, 2004년

중앙 뒤쪽에  
 인천송현초등학교 분교가 보입니다.



과거의 세어도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임영준 시인의 「세어도」입니다. 2004년에 발표되었는데, 그 당시 세어도에 가기 위해서는 인천시 동구에 있는 만석부두에서 ‘정서진호’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가야만 했습니다. 배천분 작가도 「세어도」라는 글에서 “서구에 선착장이 없어 동구 만석부두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을 돌아가야 했는데”라고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11년 안암도가 있었던 유수지 인근에 세어도 선착장이 설치되면서 세어도 가는 길이 무척이나 편해졌습니다. 정서진호는 **사리**를 전후로 6일 정도는 동구의 만석부두에서 출발하였고, **조금**을 중심으로 전후 6일 정도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있는 세어도 선착장에서 운항하였습니다. 배천분 작가도 이곳에서 정서진호를 타고 세어도로 향했습니다. ‘정서진 선착장이 생기면서 백실이 가까워진 것이다. 뱃길에 오르려면 간이 선착장인 철조구조물로 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야 한다. 간단한 출입등록을 마치고 행정선 정서진호에 몸을 싣자 배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물 위를 미끄러져 바다 위를 달렸다’고 썼습니다.

인천에 살면서 가까운 곳에 이런 섬마을이 있는 줄 몰랐다. 선착장에 내려 언덕을 오르자 집들이 옹기종기 모인 작은 섬마을이 펼쳐졌다.

(...중략...)

섬에는 소나무군락지가 있고 마을회관이 썰렁하게 서 있었다. 따사로운 햇살과 비릿한 바다 냄새를 한껏 머금은 산들바람, 소음이 없는 조용한 어촌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 속에 잠겨 있고 이름 모를 새들의 합창소리가 정적을 깬다.

배천분, 「세어도」, 2017년

작가는 5월의 봄날 물오른 속향이 가득한 세어도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곳에서 ‘어려운 일과 힘든 일상으로부터 잠시 짐을 내려놓는 호사’를 누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섬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 안에 눈물겨운 삶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항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박한 엄마의 향기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가 세어도에서 그림다.’고 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 보충설명

- 사리  
매달 음력 보름과 그믐날, 조수가 가장 많이 밀려오는 때.
- 조금  
조수가 가장 낮은 때. 매달 음력 7, 8일과 22, 23일에 있음.

소나무 그루터기 위로 나뭇잎 몇 장 날아든다

갈참나무 타고 오르다

멈춰선 칙닝쿨

겨울 내내 저러고 있을 심산이다

급할 것도 기다릴 일도 없다는 듯

우뚝 멈추어버린 섬

나뭇잎 사각이는 길

바람 쉬어가는 갈대숲은 여전한데

세곡선 머물던 포구도

풍어를 기원하던 마음들도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는

갯말

섬을 떠났던 발걸음 시골벽적

다시 들려오고

슬레이트지붕 사라진 자리엔

통유리창 붉은 벽돌집이 바다를 향해 앉았다

바다쉼터

길게 잠들었던 세어도에

바람이 불고 있다

이은춘, 「바람이 분다」



2021년 12월 정서진호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9년에 세어도 선착장에 있는 부잔교(배를 타고 내리기 쉽게 만든 다리)가 부서지면서, 선착장이 경인아라뱃길 아라서해갑문 근처로 옮겨졌습니다.

서구에 하나뿐인 유인도 세어도가 정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 11월 15일 <세어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내용은 세어도항을 고치고 대합실(승객이 대기하는 곳)과 갯벌 들어가는 길, 커뮤니티센터(마을 공공장소)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걸음 몇 번이면 달을 듯한 물머리  
갯골의 뱃길엔 별들이 치근대고

석양을 따라 길게 드러누운 어머니의 그림자  
칠게도 망둥이도 분주해서 예쁜 섬

세어도를 아시나요?

권늘, 『기억에 대한 오해』, 2023년

강화도, 영종도와 이어진 갯벌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세어도, 그 갯벌을 자원으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전망대, 지내섬(소세어도) 부근을 활용한 갯벌체험장 등 세어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조 경관이 아름다운 서해의 특징을 살려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관광코스 등 인천의 새로운 명소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 2. 해가 지는 풍경의 서구, 그리고 호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일은 여행에서 아름다운 경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서구에도 노을 명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서진에서의 노을 감상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낙엽이 지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듯이  
해는 지지 않으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  
벗이여  
눈물을 그치고 정서진으로 오라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히  
노을 지는 정서진의 붉은 수평선을 바라보라  
해넘이가 없이 어찌 해돋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해가 지지 않고 어찌 별들이 빛날 수 있겠는가  
정호승, 「정서진」, 2013년



정서진 낙조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정서진」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정서진’,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쪽’에 있는 이곳은 노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매립되기 전에는 ‘장도’ 부근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인들은 ‘호도’의 낙조를 최고로 꼽았던 듯합니다. 정영근이라는 옛시인은 「서곶팔경」이라는 한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호도 낙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도는 장도 뒤에 있는 섬으로 지금은 영종대교 바로 곁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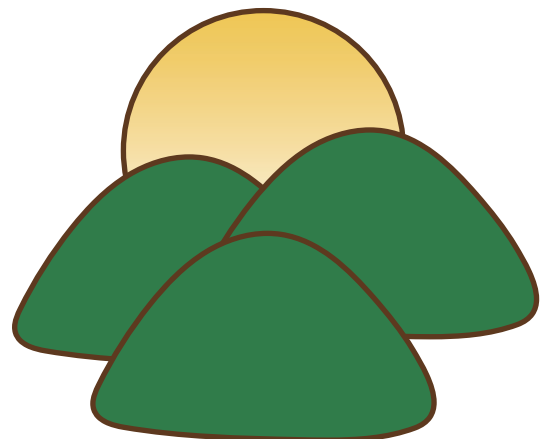
桂陽輪月(계양윤월) / 계양산의 둥근 달  
 虎島落照(호도낙조) / 호도의 낙조  
 銀波沈月(은파침월) / 서해 만조의 바닷물 위에 잠기는 달  
 蘭浦歸帆(난포귀범) / 난포로 돌아오는 배  
 北川細柳(북천세류) / 북천에 늘어선 수양버들  
 西湖垂釣(서호수조) / 서호에서의 낚시  
 虛岩古跡(허암고적) / 허암의 옛 자취  
 黑岩龜形(흑암구형) / 검암동 거북 바위  
 정영근, 「서곶팔경」

서곶팔경은 우리 서구에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뽑은 여덟 가지 풍경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 ① 계양윤월 ‘계양산 위에 뜬 둥근 달’을 말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는 장면과, 산 아래에서 달빛이 계양산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② 호도의 낙조 다른 사람들의 시에도 호도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호도에서 바라본 해 질 녘 풍경이 아주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 ③ 은파침월 새벽 서쪽 바다 위에 달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새벽이 지난 뒤면,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까지 이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 ④ 난포귀범 저녁이 되어 난지도 포구로 돌아오는 배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 ⑤ 북천세류 북쪽 냇가에 늘어선 수양버들을 말합니다.
- ⑥ 서호수조 서쪽에 있는 호수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 ⑦ 허암고적 우리 지역의 인물인 허암 정희량 선생님과 관련된 옛 자리를 말합니다.
- ⑧ 흑암구형 검암동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를 말합니다.



허암 정희량 유허지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블로그



계은 류지익은 시천동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계양산」과 「호도」 같은 한시를 남겼습니다. 류지익(1760~1825)의 본관은 진주이고, 호는 계은입니다. 그는 1793년에 과거에 장원급제했고, 예조정랑, 사간원 정원 등 여러 벼슬을 했으며 유고집 20권을 썼습니다.

滔滔碧海洪無邊(도도벽해홍무변) /  
 도도한 푸른 바다는 가없이 넓고  
 一抹靑螺落遠天(일말청라낙원천) /  
 한쪽엔 푸른 섬이 먼 하늘에 펼쳐졌구나  
 雲寺嘯生瑤窟上(운사로생요굴상) /  
 구름 속의 산사는 계곡 위 옛부터 생기고  
 波光瑤漾蜃接前(파광요양신접전) /  
 물결 빛의 아름다움은 눈 앞에 펼쳐지는구나  
 有時酌歷歸帆止(유시작력귀범지) /  
 때가 되어 돌아가는 돛단배 그치고  
 向夕分明倒景懸(향석분명도경현) /  
 석양을 향해 분명히 비치는 풍경  
 若使中流無砥柱(약사중류무지주) /  
 만일 중류에 지주가 없다면  
 拱河狀觀詎能然(공하장관거능연) /  
 넓은 황하의 장관이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류지익, 「호도」, 2012년

뒷부분에서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어부들의 모습을 노을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의 고사’를 인용하여 선비로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 즉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않고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는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도’는 생긴 모습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해서 ‘범염’ 또는 ‘범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섬은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군인들이 폭파 훈련을 하던 곳이었고, 지금은 영종대교를 세우면서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 그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 보충설명

#### · 지주(砥柱)

중국 황허(黃河) 강 중류에 있는 기둥 모양의 돌. 격류 속에 우뚝 솟아 꿈쩍도 하지 않으므로 난세에 처하여 의연히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비유로 쓰임.

#### 지주중류(砥柱中流)

흐름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 뜻함.

#### · 고사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유서 깊은 일. 또는 그것을 나타낸 어구.

### 3. 섬, 산으로 바뀌었다

청라국제도시는 국제 금융·유통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타운의 통합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라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와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이 각각 2030년, 202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신개념 주거단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경인아라뱃길, 오류동, 경서동이 가까이 있으며 공촌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연희동, 가정동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신현원창동이 있고 심곡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인천 앞바다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이곳은 바다였는데, 육지로 변한 것은 1980년대의 일입니다. 1978년 식량 증산을 위한 농지 확보 차원에서 동아건설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간척사업을 진행했습니다. 1985년 9월 21일 『조선일보』에는 『7개의 섬이 산처럼 큰 땅으로 바뀐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울도, 청라도, 일도, 장도, 거여도, 안암도, 가서도 등 일곱 개 섬을 이어 큰 땅을 만드는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라도는 간척지의 일부가 되는 작은 섬으로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당시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전에는 ‘청라’라는 지명보다 ‘동아매립지’ 혹은 ‘김포매립지’라고 불렸습니다. 김포매립지의 경우는 김포시와 가까워서 붙은 별칭이었는데, 매립 사업이 막바지로 치달던 1988년 전체 간척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쓰레기 매립지로 쓸 수 있도록 정부에 넘겼고, 나머지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 부지는 농업용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2003년 7월부터 이곳에 있던 ‘청라도’의 명칭을 따서 ‘청라지구’로 정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장봉도 가는 배가 있습니다. 다시 장봉도에서  
고깃배 타고 갯벌 가르며 경인에너지, 대성목재, 가구회사 선,  
화수부두 지나 김포쓰레기 매립장 보이면 청라도, 창영국민학교  
분교 어린이 열한 명, 교장선생님 한 분.

(중략)

동구밖에서는 화장터의 장성곡 연기가 보이시는지...  
소각장은 없어도 주말이면 도시의 화형식 아이들 눈빛타고  
어김없이 거행되는데 요즘엔 한라산, 설악산, 오대산, 유명산,  
지리산, 속리산...  
지도 속의 명산들이 생수병에 담겨져 오곤 합니다.

김동환, 『청라도 분교』, 1997년

이 시는 1957년 인천에서 태어난 김동환 시인의 작품으로, 생태시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날으는 것은 새들만이 아니다』(도서출판 봄 여름, 1997년)에 실려 있습니다. 시에 등장하는 ‘창영국민학교 분교’, ‘교장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1967년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이민제 선생님이신 듯합니다. 신문 기사에는 ‘문명의 외곽지대 서해의 낙도- 거기 젊음을 던져 어둠을 깨는 햇불을 들고 10년의 세월을 거센 파도와 갯벌에 묻어온 스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시를 쓴 것은 김포쓰레기매립장 1단계 공사가 끝난 1991년 11월 이후부터 청라도 매립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6년 이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서구지역 문제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쓰레기매립장’,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들과 주민들과의 갈등 등을 생각해 볼 때,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96년 청라도가운데 위쪽 :  
인천송현초등학교 청라도 분교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푸른 비단을 두른 것 같다고 해서 청라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섬 주위에 일섬, 노렴, 문점 그리고 장구염이 청라도를 호위한다.

썰물이 멀리 나가면 갯벌이 뱀장어같이 꾸불꾸불 꿈틀거리는 갯고랑이 나타난다. 뿔 위에 쉬고 있던 낙시배가 심심해질 쫘 밀물이 들어와 갯벌 위의 산을 껴안고 섬을 이룬다. 이렇게 청라도는 하루에 한번씩 육지가 되었다가 또 섬이 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조금 때는 육지에서 논밭 일을 하고 물이 빠지는 사리 때는 호미를 가지고 썰물 따라 물새들과 함께 갯벌로 나간다. 바다가 주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이다. 굴, 바지락, 가무락, 동죽, 맛, 소라, 우렁, 피조개 등이 물 빠진 모래판에 살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물이 다시 밀기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밀물이 갯벌로 밀려들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허기진 배로 갯벌을 나선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해당화 핀 길에는 아낙네들의 웃음꽃이 피었다.

김중훈, 「어떤 갯벌 사람들」, 2010년

이 글은 김중훈이라는 분이 2010년 2월 2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에 실은 글 일부분으로, 제목은 “어떤 갯벌 사람들”입니다. ‘푸른 비단을 두른 섬’ 청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글쓴이는 갯벌에서의 추억과 함께 어른들이 힘든 하루의 노동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보듯이, ‘해당화 핀 길’에서 ‘아낙네들의 웃음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 4. 쓰레기로 메운 바다, 그리고 섬

1982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는 『쓰레기로 바다 메운다』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인천시 북구 경서동 난지도에서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앞 길무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입니다. 검단지역은 1995년 인천광역시로 되면서 서구에 편입되었습니다.

갯내 독한 똥섬바람 불어와 순해지는 동네  
못자리를 가득한 수령배미에 올챙이다리 어설퍼지면  
엄마 따라 쑥 뜯고 무릇 깎다.

(...중략...)

쌀 찢어 뒤주에 부어놓고 안 먹어도 배부른 아버지,  
난점장사 이고 온 강굴 쌀로 바꿀 때 걱정했지만  
농주 담글 땀 온몸으로 웃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농주를 참 잘 담갔다

심응식, 「노구메」,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한들마을’에서 태어나서 최근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심응식 시인의 작품 「노구메」에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섬들에 대한 기억이 담겨있습니다. ‘똥섬’은 안동포 앞 인포염전 서남쪽 갯벌 건너에 있던 섬으로 주변에는 갯바위 같은 작은 섬들이 여럿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에 포함되어 자취를 알 수 없습니다.

섬 주변 갯벌에는 손바닥 길이만 한 ‘맛조개’와 보얀 빛깔의 납작한 ‘마당조개’, 그리고 ‘가무락’이 많이 잡혔답니다. 농번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바지게**를 지고 커다란 망태를 메고 가서 잡아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남은 것은 간장에 졸여 보관하기도 하였답니다. 특히 맛조개는 풋고추와 함께 볶아 먹으면 최고의 반찬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해 먹어 보지만, 그때의 맛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를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도 있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염부’들이었습니다. 월급으로 소금을 받을 경우, 아내들은 머리에 소금을 이고서 ‘당미’, ‘독실’, ‘황굴’ 등지로 팔러 다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갯것**을 거두어 팔았는데, 아침에 나갈 때는 함지 가득 갯것이 무거웠고, 저녁나절 돌아올 때는 바꾼 곡식이 몇 배나 더 무겁다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 보충설명

- 난점  
인천 서구 경서동 앞에 있던 ‘난지염’.
- 바지게  
싸리나 대오리 따위로 만든 발채를 엮어 놓은 지게.
- 갯것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에서 나는 물건.

봄에는 나문재 새싹으로 나물을 해 먹었는데 이를 '행이나물'이라고 했습니다. 칠월칠석날이 가까워지면 방계가 나문재에서 그네를 튕다고 하였는데, 참계보다는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갯망둥어라고 불리던 짱뚱어가 엄청 많았는데, 햇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점이 있어, 독이 있거나 귀신 같은 것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는 먹지 않았답니다.

겨울이면 한강에서 흘러온 커다란 성갯장이 동섬 앞을 지나 장반지(장바지)마을 앞까지 가득 메웠던 때입니다. 시인은 '남점'(난지도)에서 강굴을 따서 머리에 이고 '한들마을'로 팔려고 왔던 섬아낙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던 농부의 마음, 그럼에도 '농주'를 담글 때에는 뒷짐 지고,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짓던 '아버지'께서 눈앞에 계시는 듯합니다.

인천 서구지역은 산과 강, 그리고 바다와 섬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해바다는 밀물과 썰물 차이가 커서, 물이 빠지는 순간이면 넓은 갯벌이 드러났고 그곳에는 여러 생명체가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공촌천을 비롯한 시냇물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김동환 시인은 「경서동에서」라는 시에서 "동네 한 바퀴 휘돌다 간 실개천 / 그 흔한 미꾸라지 한 마리 없고"라고 하면서 "<산성능>은 / 소한 추위에 푸석푸석 경서동을 감싼다"라고 시를 맺었습니다. 개발을 이유로 많은 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장과 신도시라는 이름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위태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 학자 에드워드 소자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에는 반드시 그 이야기가 생겨난 장소가 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역사도 공간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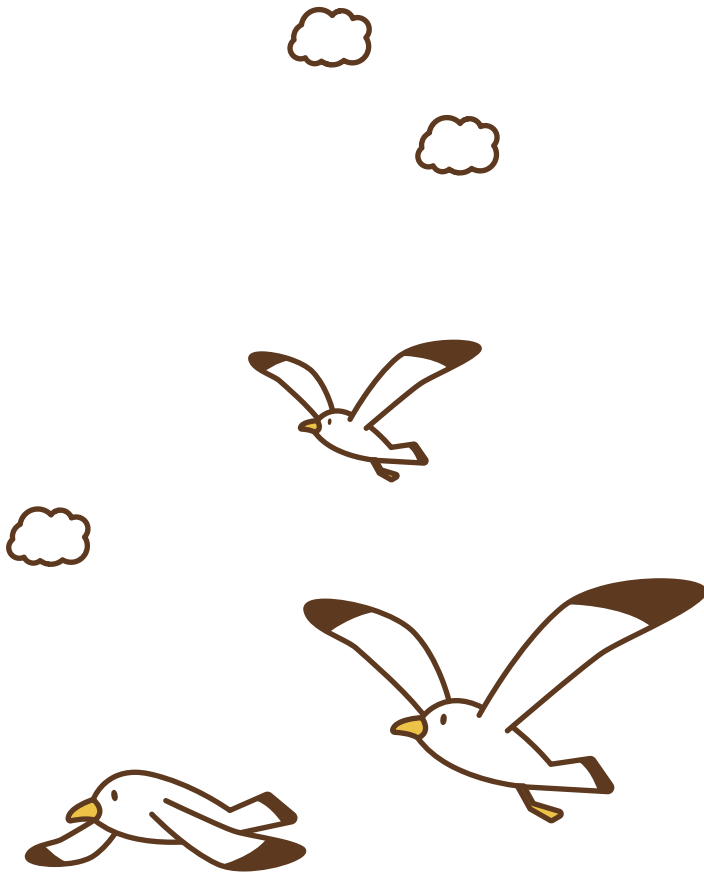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지키고 돌보는 일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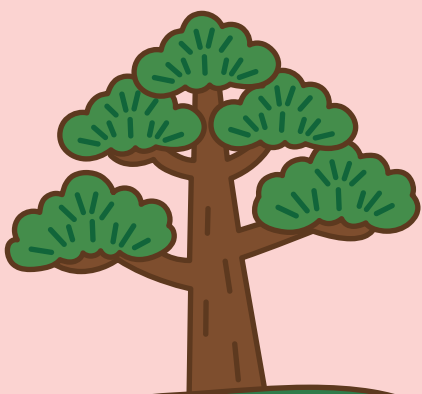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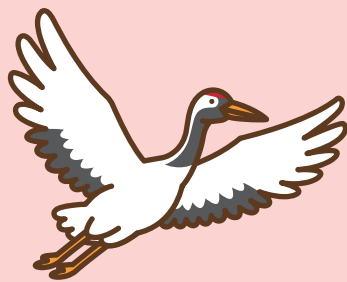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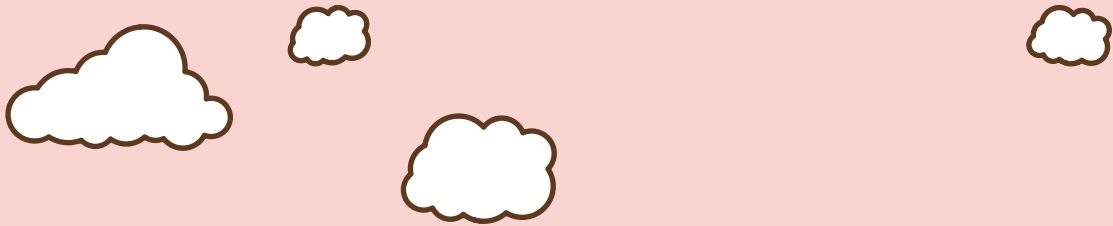




## 보충설명

- 강굴  
물을 타거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섞지 않은 굴의 살.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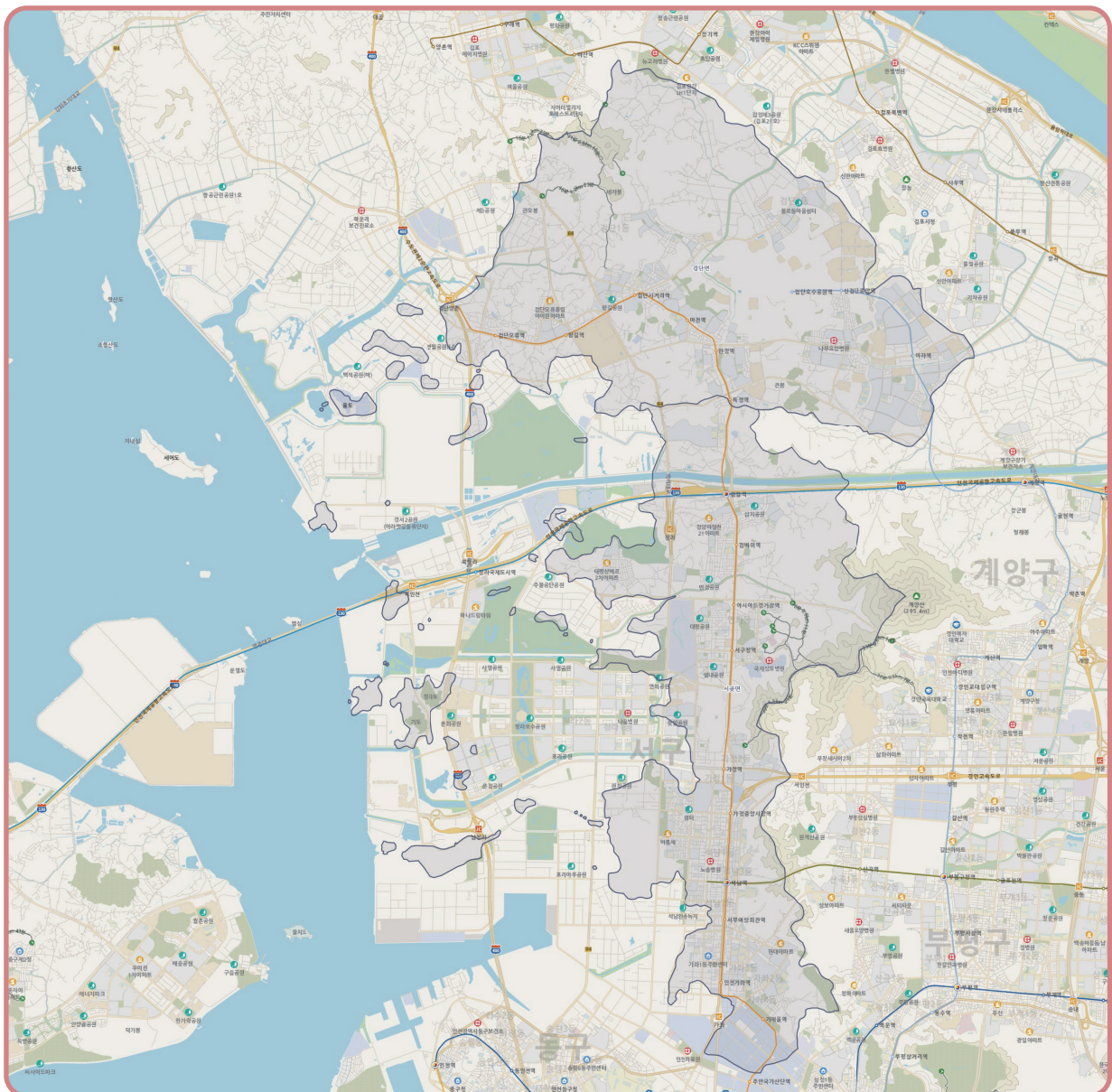
# 1 과거와 현재의 서구의 해안선

아래 지도에 해안선을 굵은 펜으로 그려보세요.

과거와 현재의 서구의 해안선을 보고, 달라진 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 100년 전 서구의 해안선은 빨간 펜으로 그려보세요.

✧ 현재 서구의 해안선은 파란 펜으로 그려보세요.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지리정보 DB

같은 점

달라진 점

## 2 섬과 해안에 담긴 서구 생활 이야기

### 갯벌이 매립되기 전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899년에 편찬한 부평군읍지에는 부평의 **토산품**으로 소금, 조기, 미네굴(바닷물조개), 굴, 부레, 낙지, 맛조개, 소라, 방게, 게, 곤쟁이(작은 새우 닮은 갑각류), 중새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구지역은 모월곶면과 석곶면으로 부평군에 속해있었고 검단지역은 검단면으로 경기도 관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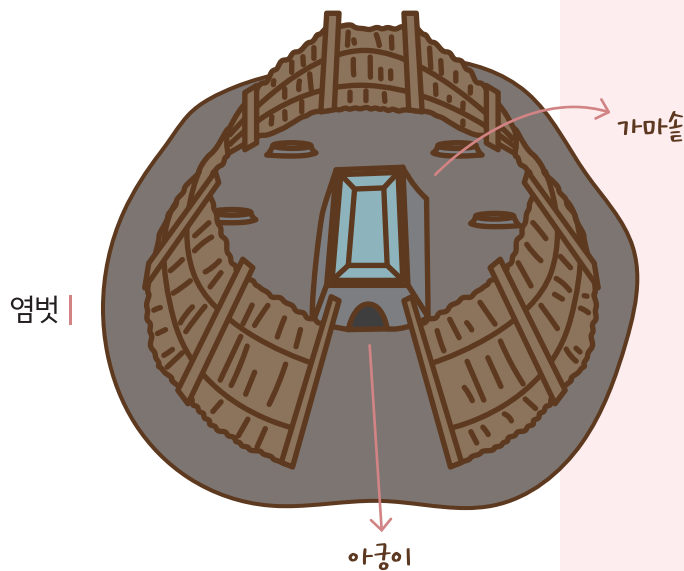
이 자료로 보아 과거 서구주민에게 바다는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 1.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자염이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구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염을 생산했습니다.

불뺨 자(煮) 소금 염(鹽)



자염은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입니다. 사람들은 갯벌에 구덩이를 파서 통자락을 세웁니다. 통자락은 소금물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은 때를 이용해 갯벌흙을 말린 후 통자락 바깥쪽에 채워넣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면 소금기 많은 갯벌흙을 통해 통자락에 진한 소금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 소금물을 퍼서 염뺨의 가마솔에서 오랜기간 끓이면 소금이 생깁니다. 자염의 일은 매우 고됩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했습니다. 자염은 많은 노동력과 많은 땀감을 필요로 했기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염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다 1910년대 가좌동에 천일염전이 생겼습니다. 가좌동 이외의 지역에 천일염전이 생긴 것은 해방 이후의 일입니다.



보충설명

- 토산품  
그 지역에서 특유하게 나는 것.

## 2. 갯벌에서 조개 등을 잡았습니다.

갯벌에는 조개뿐 아니라 게, 소라, 낙지, 굴 등이 있습니다. 호미나 삽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손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맨손어업이라 합니다. 낙지는 다른 도구가 없어도 맨손으로 잡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가까운 갯벌은 그냥 걸어서 잡지만 먼 갯벌까지 나갈 때는 뉘배(뉘시배)를 이용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면 대부분 갯벌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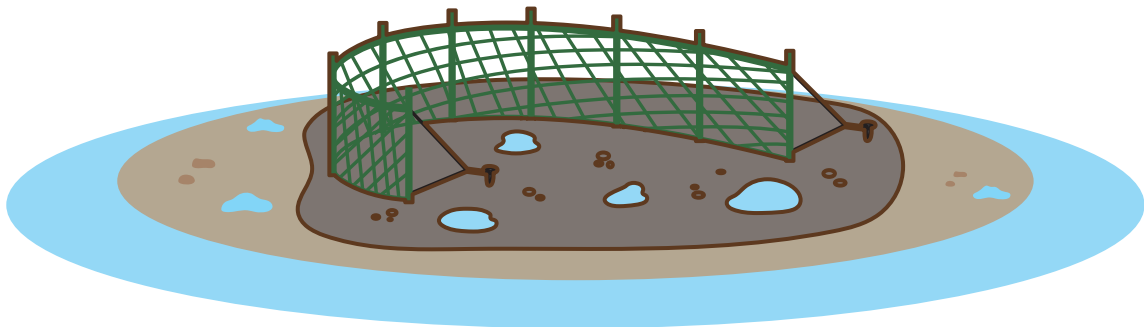
## 3. 건간망을 이용해서 갯벌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건간망은 바닷가 갯벌에 반원 모양으로 말뚝을 박고 그 사이를 둘러친 그물을 말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에는 그물을 아래로 내립니다. 바닷물과 함께 많은 물고기들이 밀려옵니다. 썰물이 되면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 그물을 위로 올립니다. 바닷물과 함께 빠져나가려던 물고기들은 그물에 갇히게 됩니다. 물이 많이 빠져나가 갯벌이 드러나면 주민들은 갯벌에 걸어들어가 고기를 주워옵니다.

건간망을 이용한 고기잡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는 서해안 지역에서 많이 쓰는 고기잡이 방법입니다.

세울 건(建) 막을 간(干) 그물 망(網)

건간망 |



## 4. 고기잡이 배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조기 등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조기 철이 되면 멀리 연평도 앞바다까지 가서 조기를 잡았습니다.

배 한가득 조기를 잡아오면 검단의 안동포에서는 조기 파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고기잡이 나가기 전 어망을 손질하는 모습 1950년대  
출처: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 5. 갯벌을 막아 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서구에는 따로 저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밭을 갈아 보리나 콩을 심었습니다. 부족한 논은 갯벌을 막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갯벌을 막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물을 대지 않으면 갯벌의 짠기가 올라와 벼가 타 죽기도 했습니다. 갯벌을 막은 방죽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 빗물을 바다로 내보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 때는 수문을 잠가서 바닷물이 논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 6. 바닷물이나 갯벌일에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함께 했습니다.

해안가 사람들은 어촌계를 조직하였습니다. 어촌계에서는 갯벌에 종패(조개씨)를 뿌렸다가 조개가 크면 수확을 했습니다. 굴양식도 했습니다.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갯벌에 나가 조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현재 세어도에는 서구 유일의 어촌계가 남아있습니다.



### 보충설명

- 파시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 한해 포구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

## 도움받은 글과 책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지역의 설화 천마와 아기장수 외』, 200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붓으로 전하는 선인의 향기』, 201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 그리고 사람들 2』, 201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광역시 서구 나무와 마을 이야기』, 201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알기 쉬운 인천 서구의 역사와 문화』, 201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의 사라진 섬, 남은 섬』, 2016.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의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202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 서구의 생활-길과 교통으로』, 2024.  
인천광역시 서구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사 上』, 2014.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지지와 지도』, 2015.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2017.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인천북부종합학술조사』, 200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섬』, 2004.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고종시대 인천자료』, 200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부평군읍지』, 2005.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갯벌과 간척』, 2009.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 인천도서지역의 지지자료』, 2010.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인천의 섬과 문화유산』, 2010.  
박한준, 『세어도를 지키는 보호수 이야기』, 『서구구정소식』 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2013. 7.  
이영태, 『옛지도와 함께 하는 한시 여행 - 인천으로 가는 길』, 채륜, 2017.

공항철도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arex\\_blog](http://blog.naver.com/arex_blog))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kor/main/main.do?rbsldx=1>)

인천광역시 공식 블로그 '온통인천' (<http://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hn?blogId=incheontogi&parentCategoryNo=1>)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그 '노을노리' (<http://noulnori.net>)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관 ([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publicity/#none](http://www.seo.incheon.kr/open_content/publicity/#none))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http://imap.incheon.go.kr/icmap/map.jsp>)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incheon.ekfem.or.kr>)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무인도서 ([http://uii.mof.go.kr/Ull/mn/mng\\_card/user.do](http://uii.mof.go.kr/Ull/mn/mng_card/user.do))

인천  
서구의 생활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 인천 서구의 생활

섬과 해안을 중심으로

인 쇄 2025년 11월 28일  
발 행 2025년 1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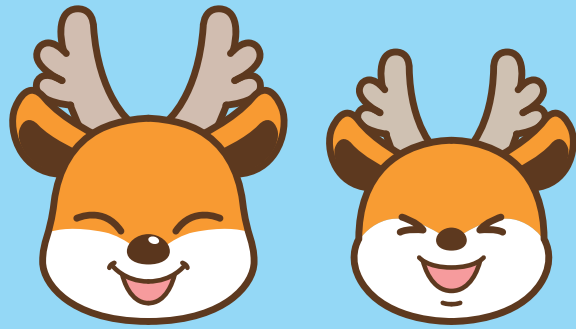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연 락 처 032-582-4341  
기획총괄 서덕현  
기획운영 이선미

자 문 강옥엽(인천여성사연구소 대표)  
강덕우((사)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집 필 김희주(인천역사교육연구소 소장)  
안정현((사)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원)  
감 수 김미현(인천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만 든 곳 아츠비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451(청라동202-2) 703B호  
연 락 처 070-8657-2580~1

I S B N 979-11-990641-2-6

※ 이 책은 「2025년 지방문화원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무료  
03800



9 791199 064126

ISBN 979-11-990641-2-6